creative commons

COMMONS DEED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dCollection

교육학 석사 학위논문

탈북 고등학생의 문화적응 스트레스와 진로장벽, 진로정체감의 관계에서 사회적 지지의 조절효과

The Moderating Effects of Social Support on the Relationship between Acculturative Stress, Career Barriers and Career Identity of North Korean Defectors' High School Students in South Korea

2022년 2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농산업교육과
김 동 주

탈북 고등학생의 문화적응 스트레스와 진로장벽, 진로정체감의 관계에서 사회적 지지의 조절효과

지도교수 정 철 영

이 논문을 교육학 석사 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22년 2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농산업교육과
김 동 주

김동주의 석사 학위논문을 인준함
2022년 2월

위 원 장 정 진 철 (인)

부위원장 정 철 영 (인)

위 원 이 찬 (인)

국문초록

탈북 고등학생의 문화적응 스트레스와 진로장벽, 진로정체감의 관계에서 사회적 지지의 조절효과

교육학 석사학위 논문

서울대학교 대학원, 2022년

김 동 주

이 연구의 목적은 탈북 고등학생의 문화적응 스트레스와 진로장벽, 진로정체감의 관계에서 사회적 지지의 조절효과를 검증하는 데 있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탈북 고등학생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문화적응 스트레스와 진로장벽, 진로정체감, 사회적 지지의 수준을 검증하고, 탈북 고등학생의 진로정체감에 대한 문화적응 스트레스의 영향 관계 및 두 변인 간 관계에서 진로장벽의 매개효과와 사회적 지지의 조절효과를 검증하였다.

이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첫째, 탈북 고등학생의 진로장벽은 진로정체감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둘째, 탈북 고등학생의 진로장벽은 문화적응 스트레스와 진로정체감의 관계에서 완전매개효과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사회적 지지는 탈북 고등학생의 문화적응 스트레스와 진로정체감의 관계에서 진로장벽의 매개효과를 조절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사회적 지지는 문화적응 스트레스와 진로정체감의 관계에서 조절효과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를 통해 얻은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탈북 고등학생의 진로장벽이 진로정체감에 강한 부적 영향을 미쳤으며, 문화적응 스트레스와 진로정체감의 관계를 완전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탈북 고등학생이 남한에서의 문화적응 스트레스로 인한 진로장벽이 높다는 것을 의미하며, 진로정체감 발달을 저해하는

핵심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둘째, 사회적 지지는 탈북 고등학생의 문화적응 스트레스와 진로장벽을 완화시켜주지 않았다. 이것은 탈북 고등학생들이 문화적응 스트레스와 이로 인한 진로장벽을 크게 느끼기 때문이며, 심리적 차원의 사회적 지지가 효과적으로 작용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셋째, 여학생 대비 남학생의 성역할 갈등이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북한의 가부장적인 문화에서 기인한 남녀 차별적 성향으로 탈북청소년의 성인지가 낮게 나타나는 선행연구 결과와 일치한다. 넷째, 자기이해와 직업정보의 부족이 비교적 높은 것으로 나타난 것은 자신의 신분을 숨겨야 하는 탈북과정에서 겪는 자아정체감 혼란 등 탈북청소년 집단의 특성이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다섯째, 가족과 동거하는 탈북 고등학생 대비 무연고 탈북 고등학생의 향수가 유의하게 높았다. 후자의 경우 보호자의 적절한 보호와 관심의 결여로 사회문화적 일탈 측면의 문제점에 더 쉽게 노출될 수 있음을 예측할 수 있다.

이 연구의 결론을 바탕으로 도출한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탈북 고등학생의 특성을 반영하여 측정할 수 있는 도구개발이 필요하다. 둘째, 중국 등 제3국 출생 탈북 배경 청소년과의 비교연구가 필요하다. 셋째, 어떠한 사회·문화적 및 심리적 요소와 현실적인 진로장벽이 탈북 고등학생의 진로정체감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지 파악하기 위한 질적 연구가 필요하다. 또한 이 연구의 결론을 바탕으로 도출한 실천적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탈북 고등학생이 인식하고 있는 다양한 진로장벽 요소를 탐색하고, 이를 극복할 수 있도록 교육적 개입과 물질적·정서적인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 둘째, 탈북 고등학생에게 특화된 진로·직업교육 등 실질적이고 현실적인 지원을 제공해야 한다. 셋째, 북한과 다른 남한 사회에서의 성역할에 대한 교육을 통해, 성인지를 함양해야 한다. 넷째, 자기 자신 및 직업세계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공해야 한다. 다섯째, 무연고 탈북 고등학생의 사회적응 현황을 모니터링하고, 정서적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

주요어: 진로정체감, 문화적응 스트레스, 진로장벽, 사회적 지지, 탈북 고등학생

학번: 2018-23514

목 차

I. 서론 ·····1

1. 연구의 필요성 ·····1
2. 연구목적 ·····5
3. 연구문제 ·····6
4. 용어의 정의 ·····8
5. 연구의 제한 ·····11

II. 이론적 배경 ·····12

1. 탈북 고등학생의 개념 및 특성 ·····12
2. 진로정체감 ·····28
3. 진로정체감 관련 변인 ·····42
4. 변인 간 관계 ·····62

III. 연구방법 ·····72

1. 연구모형 ·····72
2. 연구대상 ·····73
3. 조사도구 ·····77
4. 자료수집 ·····80
5. 자료분석 ·····81

Ⅳ. 연구결과 ·····83

1. 자료의 일반적 특성 ·····83

2.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진로정체감, 문화적응 스트레스, 진로장벽 및 사회적 지지의 평균 차이 ·····84

3. 탈북 고등학생의 문화적응 스트레스와 진로장벽, 진로정체감, 사회적 지지의 영향관계 ·····93

4. 탈북 고등학생의 문화적응 스트레스와 진로정체감의 관계에서 진로장벽의 매개효과 ·····97

5. 탈북 고등학생의 문화적응 스트레스, 진로장벽, 진로정체감의 관계에서 사회적 지지의 조절효과 ·····99

6. 논의 ·····103

Ⅴ. 요약, 결론 및 제언 ·····108

1. 요약 ·····108

2. 결론 ·····112

3. 제언 ·····113

참고문헌 ·····116

부록 ·····161

【부록 1】 본 조사 질문지 ·····161

표 차 례

<표 Ⅱ-1> 탈북청소년의 입국 유형 및 관계 부처별 명명 방식 ·····13
<표 Ⅱ-2> 정부 보조금 수혜 탈북청소년 대상 교육시설 현황 ·····19
<표 Ⅱ-3> 탈북청소년 대안학교 기본교육과정(예) ·····20
<표 Ⅱ-4> 탈북청소년 대안학교 특성화교육과정(예) ·····21
<표 Ⅱ-5> 부처별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사업 현황 ·····27
<표 Ⅱ-6> 진로정체감 6가지 지위 및 특성 ·····35
<표 Ⅱ-7> Berry의 문화변용 모델을 적용한 탈북청소년의 문화적응 유형 ···46
<표 Ⅱ-8> 진로정체감 관련 변인의 주요 선행연구 종합 ·····71

<표 Ⅲ-1> 적정 표본 크기 ·····74
<표 Ⅲ-2> 전국 소재 탈북청소년 대안교육시설 및 북한 출생 고등학생 현황 ···75
<표 Ⅲ-3> 탈북청소년 관련 주요 선행연구(학위논문) 분석 결과 ·····76
<표 Ⅲ-4> 조사도구의 구성 ·····77
<표 Ⅲ-5> 진로정체감의 내적일치도 계수 ·····78
<표 Ⅲ-6> 문화적응 스트레스의 내적일치도 계수 ·····79
<표 Ⅲ-7> 진로장벽의 내적일치도 계수 ·····79
<표 Ⅲ-8> 사회적 지지의 내적일치도 계수 ·····80
<표 Ⅲ-9> 연구 문제별 분석 방법 ·····82

<표 Ⅳ-1> 연구에서 사용된 변인의 기술통계량 ·····84
<표 Ⅳ-2> 성별에 따른 진로정체감의 평균 차이 검증 결과 ·····85
<표 Ⅳ-3> 성별에 따른 문화적응 스트레스의 평균 차이 검증 결과 ·····85
<표 Ⅳ-4> 성별에 따른 진로장벽의 평균 차이 검증 결과 ·····86

<표 Ⅳ-5> 성별에 따른 사회적 지지의 평균 차이 검증 결과 ·····87
<표 Ⅳ-6> 학교 유형에 따른 진로정체감의 평균 차이 검증 결과 ·····87
<표 Ⅳ-7> 학교 유형에 따른 문화적응 스트레스의 평균 차이 검증 결과 ·····88
<표 Ⅳ-8> 학교 유형에 따른 진로장벽의 평균 차이 검증 결과 ·····89
<표 Ⅳ-9> 학교 유형에 따른 사회적 지지의 평균 차이 검증 결과 ·····89
<표 Ⅳ-10> 가족의 동거 여부에 따른 진로정체감의 평균 차이 검증 결과 ····90
<표 Ⅳ-11> 가족의 동거 여부에 따른 문화적응 스트레스의 평균 차이 검증 결과 ··91
<표 Ⅳ-12> 가족의 동거 여부에 따른 진로장벽의 평균 차이 검증 결과 ·····92
<표 Ⅳ-13> 가족의 동거 여부에 따른 사회적 지지의 평균 차이 검증 결과 ·····92
<표 Ⅳ-14> 연구변인 간 상관관계 분석 결과 ·····93
<표 Ⅳ-15> 연구변인 하위요인 간 상관관계 분석 결과 ·····94
<표 Ⅳ-16> 다중공선성 진단 ·····95
<표 Ⅳ-17> 진로정체감에 대한 문화적응 스트레스 및 진로장벽의 회귀분석 결과 ····96
<표 Ⅳ-18> 문화적응 스트레스와 진로정체감의 관계에서 진로장벽의 매개효과 분석결과 (Model 4) ·····97
<표 Ⅳ-19> 문화적응 스트레스와 진로정체감의 관계에서 진로장벽의 직접효과, 간접효과 및 총효과와 유의수준 ·····98
<표 Ⅳ-20> 문화적응 스트레스와 진로정체감의 관계에서 사회적 지지에 의해 조절된 진로장벽의 매개효과(Model 8) ·····100
<표 Ⅳ-21> 사회적 지지에 의한 조건부 간접효과의 계수 및 유의수준 ·····101

그 림 차 례

[그림 Ⅱ-1] 탈북청소년 입국 경로 ·····14
[그림 Ⅱ-2] 남한 입국 탈북청소년의 교육경로 ·····15
[그림 Ⅱ-3] 진로정체감 지위 모델 ·····35
[그림 Ⅱ-4] 사회인지진로이론의 진로선택 모델 ·····52

[그림 Ⅲ-1] 연구 모형 ·····72

[그림 Ⅳ-1] 문화적응 스트레스와 진로정체감의 관계에서 진로장벽의 매개효과 검증 모형 ·····98
[그림 Ⅳ-2] 문화적응 스트레스와 진로정체감의 관계에서 사회적 지지에 의해 조절된 진로장벽의 매개효과 검증 모형 ·····101
[그림 Ⅳ-3] 사회적 지지의 크기에 따른 진로정체감에 대한 문화적응 스트레스의 조건부 간접효과 ·····102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통일부가 2016년 11월 11일 국내 입국 북한이탈주민 3만 명 시대 진입을 밝힌 바와 같이, 1998년 100명 수준에 불과하던 국내 북한이탈주민은 2021년 9월 말 기준 33,800명에 달하고 있다(김현수 외, 2013; 통일부, 2021). 이 중 19세 이하 아동·청소년은 5,105명으로서 전체 북한이탈주민의 15.10%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초·중·고등학교를 포함한 정규학교와 각종학교(학력인정 통일부 인가 탈북청소년 대안학교 포함), 특수학교, 공민학교, 방송통신 중·고등학교 등 기타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2,287명, 전일제 대안교육시설(학력 불인정 통일부 미인가 탈북청소년 대안학교 포함) 재학 학생 259명 총 2,546명의 탈북청소년이 국내 교육기관에 재적하는 것으로 집계됐다(탈북청소년교육지원센터, 2021).

통상 청소년은 미래를 준비하는 세대, 무한한 잠재력을 가진 세대로 불린다. 청소년들이 자신들의 미래를 개척하고 사회에 이바지할 수 있는 민주시민으로 성장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며, 이들이 지닌 잠재력은 어떠한 지지나 지원 등에 따라 매우 다양하게 발현 된다(좌동훈 외, 2016). 또한 청소년기는, 삶의 다양한 영역에서 자신을 탐색하는 시기로 자신의 능력과 요구, 삶의 목표 등에 대한 일관된 자아상이 정립될 때 즉 타인과 차별화되는 일관적인 '나' 를 구성할 때 정체감이 형성된다(윤초희, 한수연, 2015; Erikson, 1968).

청소년기는 자신의 진로에 대한 탐색과 준비를 하는 시기이며 실제적인 진로 선택 및 결정이 이루어지는 시기다. 특히 고등학생은 진학과 취업 등 구체적인 진로를 선택해야 하며 올바른 진로탐색과 결정을 위해서 무엇보다 자신에 대한 이해와 직업세계를 파악하고 이를 위한 학습과 기술을 습득하는 것이 요구 된다(송민경, 2009; 조혜은, 2019). 즉 청소년기 발달과업의 핵심인 자아정체감의 확립을 기반으로, 진로에 대한 진지한 물음과 탐색을 통해 구체적인 진로목표를 설정하며 목표성취를 위한 방법을 알아감에 따라 진로정체감, 진로성숙 등 진로

발달이 이뤄진다(석민경, 2011; 유혜림, 2015; 이승진, 2011; 최윤희, 김순자, 2011). 특히 진로정체감은 개인의 진로발달과 급변하는 환경에서의 진로적응에 기여하며 진로결정수준 및 진로성숙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측면에서 중요성을 지닌다(노안영, 2008; 이선영, 2017; Mortimer et al., 2002; Savickas, 2012; Skorickov & Vondracek, 2011.

탈북청소년의 경우 자신에 대한 깊은 성찰을 바탕으로 진로에 대한 탐색을 병행해야 하는 시기에 고향을 떠나 장기간의 도피생활을 하게 된다. 세부경로에는 차이가 있지만 보통 두만강이나 압록강을 건너 중국으로 간 후 중국이나 태국, 라오스, 베트남과 같은 제3국의 한국대사관·영사관에 잠입하거나 위조여권 등을 통해 남한에 입국하고 있다. 탈북과정은 수많은 위험 요소들을 내포하고 있으며 중국 공안에게 붙잡혀 북한으로 압송된 후 수용소에 수감되거나, 가족을 잃고 무연고자로 입국하는 경우도 꾸준히 존재하고 있다.

탈북청소년은 입국 당시 연령과 개인의 사정에 따라 일반학교와 탈북청소년 대안학교 중 자신이 진학할 곳을 선택하게 된다. 많은 경우 일반학교에서 남한 학생들과 섞이려는 선호가 높고 하나원 담임교사도 최대한 일반학교에 보내려는 경향을 보인다. 그러나 부모님의 부재로 임대주택이나 임대료 지원을 받을 수 없거나 외상 후 스트레스 등으로 많은 정서적 치료가 필요할 때, 기초학력 부족과 입시 위주 학습, 따돌림 등으로 일반학교에 적응하지 못하는 학생들의 경우 탈북청소년 대안학교로 진학하고 있다(이기영 외, 2014; 이화연, 2017).

탈북청소년을 대상으로 실시한 욕구조사 결과, 학업 및 진로에 대한 욕구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좌동훈 외, 2016). 특히 대안학교 학생의 경우 진로에 대한 관심과 고민이 부각되는 경향을 보이며, 학령이 높을수록 진로를 당장 무엇을 하며 살아야할지 결정해야 하는 현실적인 문제로 인식하고 있다(김정원 외, 2018; 신혜영, 2003). 하지만 탈북청소년은 남한 사회에 대한 이해결여와 문화 차이에 따른 괴리, 정보의 부족으로 자신의 소질이나 적성보다 사회 분위기에 편승한 유행이나 경향을 따라 진로를 선택하는 경우가 많다. 또한 학부모 역시 비슷한 이유로 자녀들의 진로 문제에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다(김정원 외, 2018;

현미희, 2019).

실제로 탈북대학생 중 많은 수가 다양한 능력과 소질이 있음에도 자신에게 적합한 전공을 선택하지 못해 학업을 그만두거나 진로를 재설정하고 있다. 현행 북한이탈주민 대상 입시전형을 분석한 결과, 특정 소수 학과에 탈북학생 절반 이상이 지원하는 쏠림현상이 심각한 것으로 조사되었는데, 이것은 학과에 대한 충분한 정보 없이 타인에게 휘둘려 전공을 선택하는 경향을 보여주며(남북하나재단, 2020; 현미희, 2019), 이들의 진로정체감이 충분히 성숙하지 못한데서 기인하는 문제로도 볼 수 있다.

특히 북한 출생 탈북청소년의 경우 출신 배경 공개 및 또래관계에 있어 중국 등 제3국 출생 탈북청소년보다 더 큰 어려움을 느끼고 있으며, 후자 대비 높은 기초생활수급 및 아버지 부재 비율 등 상대적으로 열악한 상황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강구섭 외, 2015; 김정원 외, 2018). 이 중 무연고 학생 역시 보호자 없이 이질적인 사회·문화에서 홀로서기를 하는 과정에서 학업중단, 사회부적응으로 인한 배제, 소외감, 낙오, 무능력감, 우울증과 같은 2차적 문제를 겪을 수 있는 위험이 높은 것으로 보고되었다(동용국, 2019).

이 외에 남한친구와의 관계적 어려움과 문화적응 스트레스도 탈북청소년의 심리·사회적 적응과 정체감 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데(김지현, 2009, 이향규, 2006), 이는 탈북청소년의 국내 정착 과정 중 가장 큰 어려움이 문화적 이질감과 정체감의 상실이라는 선행연구 결과와 일치한다(김윤나, 2008). 이에 북한 출생 탈북청소년이 탈북 및 남한사회 적응과정에서 겪는 심리적·환경적인 어려움을 잘 극복하는 것과 안정적인 학교생활, 학업·진로문제에 있어 각종 제도적 지원과 교사, 친구의 지지는 중요하다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탈북청소년 대안학교 교사는 수업과 생활지도 외에도 법적 대리인·보호인, 정서적인 지지를 제공하는 부모의 역할, 기숙사 및 그룹 홈에서의 생활관리 등 다중적인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교사의 진로지도에 의해 학생들은 진학 혹은 취업의 길을 선택하고 있다. 일부 졸업생들은 학교로 돌아와 교사나 봉사자로 활동하는데, 무엇보다 “편한” 관계가 형성된 교사의 관심은 부모에게

학업과 관련된 지원을 받을 수 없는 탈북청소년의 일상적인 학교생활이나 향후 진로의 결정, 대학 입시 준비 등에 있어 큰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김정원 외, 2014; 윤석주, 2015).

선행연구에 의하면 교사와 친구는 학생의 진로발달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작용한다. 교사-학생 관계가 좋지 않을수록 학생은 진로포부 하위집단에 속할 확률이 높았으며(신효정, 최현주, 2013), 교사의 사회적 지지는 학생들의 진로정체감에 정적인 영향을 미쳤다(이선영, 2017; 조혜은, 2019). 또한 친구로부터 제공되는 사회적 지지, 특히 문제해결에 대한 충고, 정보와 같은 정보적 지지는 위기청소년의 진로성숙에 정적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작용하였고, 친구와의 긍정적인 관계의 형성은 대인관계나 자아정체감, 진로정체감, 학교적응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김아름 외; 2010. 문은식, 2015; 성동제, 2015; 손연아 외, 2014; 이예진, 2014; 최영희 외, 2012; Feldsman & Blustein, 1995; Meeus & Dekovic, 1995).

지금까지 살펴본 논의를 종합하여, 이 연구에서는 탈북 고등학생의 문화적응 스트레스와 진로장벽이 진로정체감에 주는 영향 및 그 관계에서 사회적 지지의 조절효과를 구명하고자 한다. 기존 탈북 고등학생을 포함한 탈북청소년 연구는 학업·학교적응과 언어교육, 심리치료 등을 중심으로 이뤄졌으며, 진로와 관련된 연구는 미흡한 상태이다(윤혜순, 2014). 또한 일부 진로와 관련된 연구 역시 질적 연구에 치우쳐있어 일반화하는데 한계가 있고 이들의 진로발달에 대한 계량자료가 축적되지 않은 상황으로 향후 이들의 진로 관련 연구를 위한 기초적인 학술자료 확보가 필요하다.

따라서 이 연구를 통해, 탈북 고등학생의 진로정체감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적·환경적 요인들에 대한 과학적 이해를 확장함과 동시에, 응답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연구변인의 수준을 측정하여 기초적인 자료를 확보함으로써 탈북청소년을 위한 진로교육에 있어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2. 연구목적

이 연구의 목적은 탈북 고등학생의 진로정체감과 문화적응 스트레스, 진로장벽, 사회적 지지의 수준을 측정하고 그들의 설명력을 구명하는데 있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설정한 세부 연구목표는 다음과 같다.

첫째, 탈북 고등학생의 진로정체감과 문화적응 스트레스, 진로장벽, 사회적 지지의 수준을 구명한다.

둘째, 탈북 고등학생의 진로정체감, 문화적응 스트레스, 진로장벽, 사회적 지지 수준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차이를 구명한다.

셋째, 탈북 고등학생의 진로정체감에 대한 문화적응 스트레스 및 진로장벽의 영향 관계를 구명한다.

넷째, 탈북 고등학생의 문화적응 스트레스와 진로정체감 간의 관계에서 진로장벽의 매개효과를 구명한다.

다섯째, 탈북 고등학생의 문화적응 스트레스와 진로장벽, 진로정체감 간의 관계에서 사회적 지지의 조절효과를 구명한다.

3. 연구문제

이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 문제 1. 탈북 고등학생의 진로정체감, 문화적응 스트레스, 진로장벽, 사회적 지지의 수준은 어떠한가?

문제 1-1. 탈북 고등학생의 진로정체감 수준은 어떠한가?

문제 1-2. 탈북 고등학생의 문화적응 스트레스의 수준은 어떠한가?

문제 1-3. 탈북 고등학생의 진로장벽의 수준은 어떠한가?

문제 1-4. 탈북 고등학생의 사회적 지지의 수준은 어떠한가?

문제 1-5. 탈북 고등학생의 진로정체감, 문화적응 스트레스, 진로장벽, 사회적 지지의 수준은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라 차이가 있는가?

연구 문제 2. 탈북 고등학생의 문화적응 스트레스, 진로장벽은 진로정체감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가?

문제 2-1. 탈북 고등학생의 문화적응 스트레스는 진로정체감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가?

문제 2-2. 탈북 고등학생의 진로장벽은 진로정체감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가?

연구 문제 3. 탈북 고등학생의 문화적응 스트레스와 진로정체감의 관계에서 진로장벽이 매개효과를 가지는가?

문제 3-1. 탈북 고등학생의 문화적응 스트레스와 진로정체감의 관계에서 진로장벽이 매개효과를 가지는가?

연구 문제 4. 탈북 고등학생의 문화적응 스트레스와 진로장벽, 진로정체감의 관계를 사회적 지지가 조절하는가?

문제 4-1. 탈북 고등학생의 문화적응 스트레스, 진로장벽, 진로정체감의 관계를 사회적 지지가 조절하는가?

문제 4-2. 탈북 고등학생의 문화적응 스트레스, 진로정체감의 관계에서 진로장벽의 매개효과를 사회적 지지가 조절하는가?

4. 용어의 정의

가. 탈북 고등학생

탈북 고등학생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를 따라 ‘북한에 주소, 직계가족, 배우자, 직장 등을 두고 있는 자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의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자에 속하는 북한이탈주민 가운데 고등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자’ 로 정의할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1호에 명시된 바와 같이 북한에서 태어나 탈북 이후 외국 국적을 취득하지 않고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일반계 고등학교, 특성화 고등학교, 특수 목적 고등학교, ‘탈북청소년 대안학교’ 의 고등학생 학급 등에 재학 중인 북한이탈주민을 탈북 고등학생으로 정의한다.

나. 탈북청소년 대안학교

‘탈북청소년 대안학교’ 란 통일부에서 공식적으로 사용하는 용어로 한국에서 탈북청소년만을 교육하는 대안학교이다(김수희, 2021). 대안학교란 표준적이고 전통적인 교육을 제공하는 일반학교에서 발생한 중도탈락자와 부적응 학생들의 적응을 돕기 위하여 전인교육과 체험학습 등에 중점을 둔 별도의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고안된 학교들을 의미 한다(교육부, 2009).

국내 탈북청소년 대상 대안교육 시설은 탈북청소년의 학교·학업적응을 위해 운영되고 있는 학력인정 통일부 인가 대안학교(각종학교로 분류)와 학력 불인정 통일부 미인가 탈북청소년 대안학교(전일제 대안교육시설)로 구분된다. 이 연구에서는 두 종류의 대안교육시설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으로 사용한다.

다. 진로정체감

진로정체감은 직업 영역과 관련된 자아정체감으로 자기이해를 통한 진로목표의 정립과 그에 맞는 계획과 실천, 삶의 목표를 설정하는 것과 연관성을 갖는다(김우리 외, 2014; 인효연, 길혜지, 2017; Holland, 1985). 즉 진로정체감이란, 개인이 자신의 진로와 관련하여 지각한 자아상으로 볼 수 있다(노자은, 정미나, 2017).

탈북 고등학생의 진로정체감 수준을 측정하기 위해 Holland et al.(1980)이 개발한 My Vocational Situation(MVS) 검사 중 진로정체감을 측정한 객관식 문항 Vocational Identity(VI)를 한국어판으로 번안한 김봉환(1997)의 도구를 Likert 5점 척도로 수정한 이선영(2017)의 문항을 사용한다. 이 도구의 방식은 모두 역으로 합산하며, 응답한 점수가 높을수록 진로정체감이 잘 형성된 것을 의미한다.

라. 문화적응 스트레스

문화적응 스트레스란 문화적 상황의 변화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받게 되는 스트레스로(Berry, 1997) 새로운 문화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고통과 역기능, 전반적인 스트레스 반응을 의미한다(Berry & Annis, 1974; Berry, 2006). 이 연구에서 문화적응 스트레스란, 북한과 다른 남한의 문화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경험하는 전반적인 스트레스 반응을 의미한다.

탈북 고등학생의 문화적응 스트레스 수준을 측정하기 위해 김연희(2009)가 개발한 '북한이탈청소년 심리·사회적응 평가도구' 중 문화적응 스트레스 척도를 사용한다. 응답한 점수가 높을수록 지각된 문화적응 스트레스의 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마. 진로장벽

진로장벽은 개인의 진로발달을 어렵게 만드는 개인 내적·환경적 사건 혹은 조건으로(Seanson & Woitke, 1997) 취업이나 진학 등 진로와 관련된 행동이나 계획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진로의 선택 및 목표, 동기, 포부 등에 영향을 주거나 방해할 것으로 인식되는 여러 가지 부정적인 사건, 사태를 의미한다(손은령, 2004).

탈북 고등학생이 지각한 진로장벽을 측정하기 위해 황매향(2005)이 개발한 청소년용 진로장벽 척도 42문항 중 이지은(2016)이 중도입국 청소년의 특성을 고려하여 수정한 30개 문항을 활용한다. 응답한 점수가 높을수록 지각된 진로장벽 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바. 사회적 지지

사회적 지지란, 한 개인이 다른 사람들과 가진 대인관계로부터 얻을 수 있는 모든 긍정적인 자원을 의미한다(Cohen & Hoberman, 1983). 사회적 지지를 제공하는 주체에는 부모, 형제, 이웃, 또래, 교사 등 다양한 대상이 포함되며, 이 연구에서는 청소년기 발달 및 학교생활 적응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교사와 또래의 사회적 지지를 의미한다.

탈북 고등학생의 사회적 지지를 측정하기 위해 Dubow & Ullman(1989)이 개발한 사회적 지지 평가 도구를 김명숙(1994)이 번안한 것을 김연희(1999)가 수정·보완한 서정미(2004)의 교사지지 및 또래지지 16문항을 활용한다. 응답한 점수가 높을수록 지각하는 사회적 지지의 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5. 연구의 제한

이 연구의 대상은 통일부 인도협력국 정착지원과의 자료에 기초하여 한국교육개발원 탈북청소년교육지원센터가 공개한 통계자료와, 본 조사를 통하여 수집한 탈북청소년 대안학교에 재학 중인 탈북 고등학생 수를 합쳐 추산한 446명이다. 이 수치는 2021년 4월 기준 국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기타학교, 전일제 대안교육시설에 재학하고 있는 탈북청소년 2,546명의 17.5%에 해당한다. 연구대상의 신분에 따른 특성 및 관련부처의 지침으로 인해 출생 국가별 탈북청소년 대안학교 학생 수의 정확한 현황 자료에 접근하는 것에 제한이 있었다.

또한 이 연구의 대상은 북한에서 태어난 고등학생에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연구결과를 중국 등 제3국 출생 탈북청소년과 남한 출생 북한이탈주민 자녀 등 전체 탈북 배경 청소년 집단까지 일반화하는데 한계가 있다.

II. 이론적 배경

1. 탈북 고등학생의 개념 및 특성

가. 탈북 고등학생의 개념

남한 사회에 거주하고 있는 북한 출신 국민을 지칭하는 용어는 시대에 따라 변해왔다. 해방 이후 분단의 상황 속에서 체제 선택을 위한 이주가 주를 이루던 1945~1950년에는 '월남자' 라는 표현이 사용되었고 1950~1953년 한국전쟁 시기에는 '실향민, 이산가족, 피난민' 등으로 불렸다. 이후 정치적 망명과 냉전 시기였던 1953~1993년에는 '귀순용사' 로, 1990년대 탈냉전 및 탈북현상이 증가된 시기에는 '귀순북한동포(1993년~1997년)' 및 '새터민(2004년~2007년)', '북한이탈주민(1997년~현재)' 등 이주에 초점을 맞춘 명칭으로 불리고 있다(김윤나, 2017; 윤상석, 2006).

2005년부터 통일부는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긍정적 이미지를 제고하기 위해 '새로운 터전에서 삶을 시작하는 사람' 이라는 순수 우리말 '새터민' 사용을 권장하였으나, 해당 용어에 대한 부정적 의견이 대두되어 2008년을 기점으로 법률용어인 '북한이탈주민' 이 공식용어로 채택되었고 현재까지 사용되고 있다(이지민, 2019).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에 의하면, 북한이탈주민이란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이하 "북한")에 주소, 직계가족, 배우자, 직장 등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사람을 말한다. 대한민국 정부는 당국의 보호를 받고자 의사를 표시한 북한이탈주민에게 본 법률에서 제시한 각종 보호 및 지원체계를 제공할 의무를 지니고 있는데, 이 중 청소년 연령의 집단을 통상 탈북청소년이라 부르고 있으며 교육지원의 대상인 초·중·고등학교 학령과 청소년기본법에서 규정하는 만 24세까지 연령을 포함한다. 따라서 탈북 고등학생이란, 국내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탈북청소년으로 정의할 수 있다.

그러나 광의의 관점에서 접근할 때, 탈북청소년의 범주에는 부모 중 한 사람 이상이 북한이탈주민이거나 중국 등 제3국에서 출생한 아동·청소년이 포함된다. 이들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 대상에 포함되지 않지만 탈북배경을 지닌 가정의 자녀로서 교육지원이 필요한 경우가 있으므로 관계 부처별 지원 대상에 포함되고 있다.

<표 Ⅱ-1> 탈북청소년의 입국 유형 및 관계 부처별 명명 방식

<table>
<tr><th rowspan="2">출생국</th><th rowspan="2">입국 유형</th><th colspan="3">관계 부처별 명명</th></tr>
<tr><th>통일부</th><th>교육부</th><th>여성가족부</th></tr>
<tr><td rowspan="2">북한
출생</td><td>• 가족동반입국
• 선가족 후입국</td><td>탈북청소년</td><td rowspan="4">• 탈북학생
• 탈북청소년</td><td rowspan="4">• 이주배경청소년
• 다문화가정자녀</td></tr>
<tr><td>• 단독입국</td><td>무연고
탈북청소년</td></tr>
<tr><td rowspan="2">중국 등
제3국
출생</td><td>• 가족 동반 입국</td><td rowspan="2">중국 등
제3국 출생
북한이탈주민
자녀</td></tr>
<tr><td>• 초청을 통한 입국
• 안내인을 통한 입국</td></tr>
<tr><td>남한
출생</td><td>• 해당 없음</td><td>남한출생
북한이탈주민
자녀</td><td>북한이탈주민
등 다문화가정
자녀</td><td>다문화가정 자녀</td></tr>
</table>

자료: 전현준 외. (2016). 학교 밖 탈북청소년 효율적 대안교육 방안. 남북하나재단.

북한 출생 탈북청소년들이 남한에 입국하는 경로는 통상 북·중 국경을 넘어 탈북을 감행한 후 중국, 몽골, 베트남 등 제3국을 거친다. 제3국에 도착한 후, 이들은 각국 대사관이나 영사관에 보호를 요청하거나 브로커를 통하여 위조여권 등을 사용해 남한으로 입국하는데, 이 과정에서 북·중 국경수비대, 중국 공안에 붙잡혀 강제 북송조치를 받아 본국 소환 후 구타 및 수용소 수감 처분을 받거나 공개처형, 현장사살 등으로 목숨을 잃는다. 탈북청소년들은 이러한 과정을 통해 생사를 오가는 경험을 하게 되고 가족·친지를 잃기도 한다. 탈북청소년들의 입국 경로를 표현한 그림은 다음 <그림 Ⅱ-1>과 같다.

〔그림 Ⅱ-1〕 탈북청소년 입국 경로

자료: 탈북청소년교육지원센터. (n.d.). 탈북청소년 입국경로 및 초기 적응 교육. 탈북청소년 입국 경로. https://www.hub4u.or.kr/hub/edu/understand.do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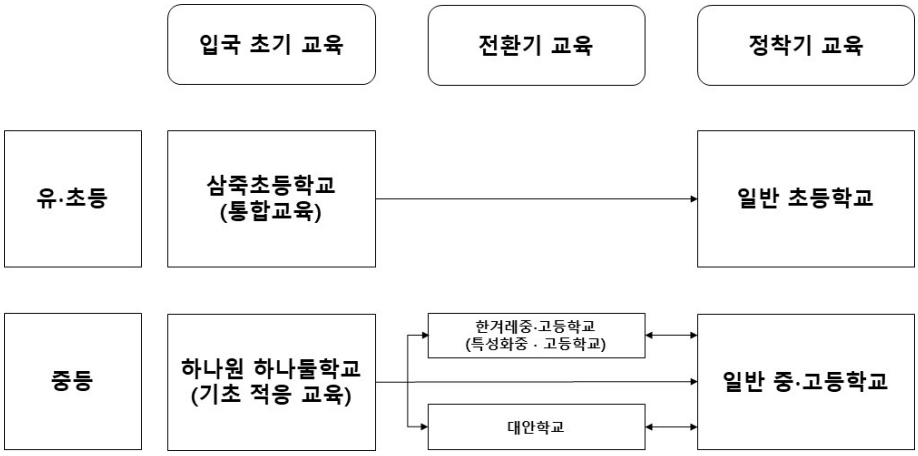
상기 탈북과정을 거쳐 남한에 입국하는 북한이탈주민은 국정원, 경찰 등으로 구성된 정부합동조사기관에서 일정 기간 조사를 받는다. 조사가 종료되면 사회적응교육을 위해 여성 및 미성년자는 경기도 안성시의 제1하나원, 성인 남성은 경기도 화천군의 제2하나원으로 신병이 이관되며 보호여부가 결정되면 이곳에서 12주간 문화적 이질감 해소, 심리적 안정 및 진로지도 상담 등 다양한 지원과 교육을 받게 된다.

이 시기에 초등학교 학령의 아이들은 하나원 인근의 삼죽초등학교에서 위탁교육을 받는다. 만 4~6세의 취학 전 아동의 경우 삼죽초등학교에서 남한 출생 유치원생과 통합교육을 이수하게 되며, 하나원 내 하나둘학교에서 방과 후 프로그램에도 참여하게 된다. 만 7~13세에 해당하는 초등학생 학령 어린이의 경우 오전에는 삼죽초등학교 일반학급의 학생들과 통합교육을 받으며, 오후에는 같은 학교 특별학급에서 맞춤형 수업을 이수한다. 일과가 끝나고 하교를 한 이후에는 하나원에 돌아와 하나둘학교의 방과 후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된다.

중·고등학생 학령에 속하는 만 14~19세의 청소년 역시 하나원의 하나둘학교에서 기초교육을 받게 된다. 이들의 경우 입소 기수별로 학급이 형성되며 국어,

영어, 수학 등 주요 교과목의 경우 수준에 따른 학급이 구성된다. 중·고등학생 학령에 속하는 탈북청소년들은 우리사회 및 학교 이해와 같은 현장체험학습과 기초학력증진 및 학력결손보충(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 역사 과목), 정서 안정 및 건강증진, 진학 진로 탐색 및 설계와 같은 정규프로그램과 정보화교육, 예체능활동을 포함하는 방과 후 프로그램, 교과목 보충 및 특별활동이 이뤄지는 주말 프로그램 등에 참여하고 있다. 또한 2011년 3월부터 하나원 하나둘학교 청소년반 학생 대부분은 하나원 재원기간 내에 경기도교육청에서 실시되는 학력 심의를 거쳐, 남한 학교에 편입할 수 있는 학력을 인정받고 있다.

탈북청소년은 남한 입국 당시의 연령, 개인적인 환경 등에 따라 일반학교와 대안학교 중 한 곳을 선택하게 진학하게 된다. 많은 경우 남한 출신 학생들과 함께 통합교육이 이뤄지는 일반학교에 진학하고자 하는 선호가 더 높고, 하나원 교사들 역시 학생의 적응이 가능하다면 일반학교에 진학시키고자 하는 경향을 보인다. 하지만 기초적인 학력이 부족하거나 정서적인 부분이 많이 불안정하여 치료가 필요한 경우, 입시 위주의 학습 분위기나 따돌림·차별 등으로 일반학교에 적응하지 못하는 경우 탈북청소년 대안학교에 진학하게 된다(이기영 외, 2014; 이화연, 2017). 탈북청소년의 교육경로는 다음 <그림 Ⅱ-2>와 같다.



〔그림 Ⅱ-2〕 남한 입국 탈북청소년의 교육경로

자료: 탈북청소년교육지원센터. (n.d.). 탈북학생교육. 단계별 교육 절차.
https://www.hub4u.or.kr/webmdl/sub4uEduStep/menuHtmlDetail.do

탈북청소년이 다수 재학하는 일반학교의 경우, 탈북학생 전담코디네이터가 배치되어 이들의 학교적응력 제고와 맞춤형 교육 내실화를 지원하고 있다. 탈북교사로 구성된 전담코디네이터는 재북 경력과 전문성을 활용하여 입학 및 전입 초기 학교생활 지원, 탈북학생 상담·지역자원 연계, 학부모 상담, 탈북학생 관련 학교업무 지원, 기초학습부진 학생지도, 북한 및 탈북학생 이해교육 등을 실시함으로써 학습 지원자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처럼 일반학교에 진학한 탈북청소년들은 가정-학교-지역이 연계된 교육지원을 받고 있다(남북하나재단, 2013).

한편 탈북청소년 대안학교에 진학한 탈북청소년의 경우, 탈북 배경을 지니고 있는 학생들과 함께 대안교육을 이수하게 된다. 선행연구에 의하면 대안학교에 대한 정의와 실천적인 양태는 학자나 국가별로 상이하지만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공통된 특징을 지닌다(김혜리, 2017).

첫째, 학생들의 자유를 존중하는 교육을 추구한다. 대안학교는 학력 중심의 획일적 제도 교육의 관행에 대한 비판에서 시작하였으며, 교육의 본질에 대한 문제를 제기한다. 따라서 대안학교는 학생 개개인의 특성과 요구에 최대한 부응할 수 있도록 자유로운 학교를 추구하기 때문에, 대안학교의 학생들은 교사에게 수동적으로 지도받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항을 학생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즉 학생들이 더 많은 자유와 책임감을 지닐 수 있도록 배려를 받는다(박길태, 2012).

둘째, 개별 학생의 인격과 개성을 존중함과 동시에 공동체적인 가치도 함께 중시한다. 대안학교는 학생이 공동체 생활을 통해서 인간상호 간 협력과 존중을 습득하고, 구성원 간 이해관계가 얽힌 갈등이 발생할 시에는 양보와 타협 등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찾아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 따라서 대안학교의 교육은 일반적·전통적 교육과 달리 주어진 교과내용과 그에 따른 효과적인 교육방법이 존재하지 않으며, 그러한 방법이 존재 하더라도 학생들의 주도에 의해 능동적인 참여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무의미한 것으로 간주한다(이종태, 2007; 전일균, 2002).

셋째, ‘작은 규모의 학교’를 지향한다. 일반적으로 대안학교는 한 개 학급당 20명을 넘지 않는 소규모로 전교생 숫자가 100명 내외인데, 이런 작은 학급이 구성될 때 교사들은 학생 개개인에게 관심을 줄 수 있으며, 사제지간의 친밀한 유대관계를 형성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소규모 집단이 갖는 동질성을 토대로써 각 학교에서 추구하는 교육이념을 자유롭게 실현할 수 있게 된다. 이것은 소위 가족적인 분위기에서 교사들이 학생에 대한 관심과 존중을 갖고 세밀한 관찰을 할 수 있게 하며, 학생을 위한 세심한 배려로 연결된다(김정숙, 2005; 박지연, 2002).

넷째, 대부분 대안학교는 종교적 배경으로 설립되었거나 사학의 형태를 띄고 있다. 역사적으로 볼 때, 종교적 신념을 가진 단체 및 개인은 이미 대안학교라는 용어를 사용하기 훨씬 이전부터 학교 설립을 통해 종교적 철학을 근간으로 하는 교육을 실천해 왔다. 이 외에도 학교를 설립하고 운영하기 위해 소요되는 재정적 지원을 안정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주체가 종교단체라는 측면에서도 이유를 찾을 수 있다(김혜리, 2017; 박길태, 2012).

지금까지 살펴 본 바와 같이, 학생들의 개성과 자유, 인격의 존중과 더불어 공동체적인 가치들을 중요하게 생각하며 학생들을 교육하고자 하는 탈북청소년 대안학교는 이들이 탈북과정에서 겪은 스트레스와 트라우마를 극복하는데 있어 효과적인 지원 방안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김수희, 2021). 탈북청소년 대안학교는 대안학교의 유형 중 ‘재적응 학교유형’에 해당하는데, 이는 탈북청소년 중 학령기를 지나거나 언어 및 문화적 차이 등으로 인해 정규학교에서 교육을 받기 어려운 학생들을 대상으로 분리교육을 제공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다(김정원 외, 2015).

반면 일반학교에 재학 중인 탈북청소년의 경우 보이지 않는 차별로 인하여 소외감을 느끼곤 하는데, 예를 들어 통합교육이 이뤄지는 일반학교에 남한 출신 친구들과 친해져 자신이 북한 출생이라는 사실을 밝히게 되었을 때, 겉으로는 표현하지 않지만 점차적으로 자신을 멀리한다는 것을 느끼는 것을 경험한 사례들이 보고되었다(박길태, 2012). 특히 동급생과의 나이차와 학력차, 차별 등은

탈북청소년들이 일반학교에서 적응하는 것을 어렵게 하고, 학교생활을 견디지 못하게 됨으로써 중도에 학업을 포기하게 하는 요소로 작용한다.

현재 남한 정부는 탈북청소년 중 일반학교에 진학하지 않았거나 정규학교를 중도에 포기한 학생을 위해 탈북청소년 대안학교의 운영을 지원하고 있다. 예를 들어, 일반학교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의 경우 탈북청소년 대안학교에서 일정 기간 특별교육계획에 따라 심리적 안정과 심신회복, 맞춤형 교육과 체험을 통한 사회적응력 제고 및 학력 증진의 기회를 제공받는 것이 가능하다(전연숙, 2012). 또 다른 예시로 탈북청소년의 경우 남한 출신 청소년과 다른 대학 입시 제도가 주어지는데, 학력 인증 대안학교(통일부 인가 대안학교)를 졸업하거나 검정고시를 통해 고등학교 졸업 자격을 취득하면 '재외국민특별전형' 과 같은 특별전형을 통해 대학에 진학할 수 있다.

<표 Ⅱ-2>는 국내에 있는 탈북청소년 대상 교육시설 현황을 나타낸다. 탈북청소년 교육시설에는 특성화학교인 한겨레 중·고등학교와 통일부 학력인정 인가 대안학교인 여명학교, 하늘꿈학교, 드림학교, 통일부 미인가 대안학교(전일제 대안교육시설)인 다음학교, 반석학교, 우리들학교, 한꿈학교, 해솔직업사관학교 등 총 9개의 학교들이 있다. 현재 탈북청소년 대안학교 운영에 필요한 연간 예산 중 일부는 통일부와 남북하나재단의 지원금을 통해 충당되고 있는데. 이 중에서 한겨레 중·고등학교와 여명학교, 하늘꿈학교는 통일부의 국고보조금을 지원받고, 드림학교와 5개의 미인가 대안학교는 남북하나재단의 출연금을 지원받아 나누어 사용하고 있다. 통일부와 남북하나재단의 지원금을 제외한 재정의 나머지는 주로 교회의 후원금, 장학 후원금, 기관 후원금, 특별 후원금과 공모사업 지원금을 통해 충당한다(김수희, 2021).

<표 Ⅱ-2> 정부 보조금 수혜 탈북청소년 대상 교육시설 현황

구분	단체명	소재지	비고
특성화 중·고등학교	한겨레 중·고등학교	경기 안성	통일부 국고보조금
인가 대안학교 (각종학교)	여명학교	서울 중구	
	하늘꿈학교	경기 성남	
	드림학교	충남 천안	남북하나재단 출연금
미인가 대안학교 (전일제 대안교육시설)	다음학교	서울 서초	
	반석학교	서울 서초	
	우리들학교	서울 관악	
	한꿈학교	경기 의정부	
	해솔직업사관학교	강원도 춘천	
합계(9개교)			

자료: 통일부. (2018). 탈북청소년 대안교육시설 현황. 보도자료 재구성.

2018년 탈북청소년 대안학교의 학교부지 현황을 살펴보면 9개교 중 7개교가 임대 건물을 사용하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탈북청소년 대안학교는 재정문제로 인하여 독립교사를 건축하기보다는 상가건물 등을 임대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교무실과 교실, 교장실, 컴퓨터실, 식당과 화장실 등이 모두 한 건물 안에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여러 수업들이 동시에 이루어지면 많은 소음들이 발생하게 되며, 학생들의 학업을 방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기도 한다. 또한 운동장과 같은 체육시설의 부족으로 인해 재학생들의 건강 증진 및 체력 강화를 위한 공간이 충분하지 않다는 부분도 단점으로 볼 수 있다(김수희, 2021).

이러한 현황에 대해 선행연구에서는 탈북청소년 대안학교를 내실 있고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학교교사 등 공간 확보와 유지, 대안학교 교사의 현실적인 급여, 다양한 프로그램 진행을 위한 기자재 및 시설을 위한 충분한 재원 등이 필요함을 지적한다. 또한 탈북청소년 대안학교의 열악한 재정을 극복하기 위해 정부 및 지역 내 민·관·기관 등의 추가적인 재정적 지원을 통해 안정화를 이뤄야 한다고 제시하였다(박길태, 2012, 김수희 2021).

탈북청소년 대안학교에서는 학생의 연령과 학습능력을 고려하여 기본교육과 특성화 교육이 동시에 제공되고 있다(김정원 외, 2015). <표Ⅱ-3>은 김정원 외

(2015)가 제시한 탈북청소년 대안학교에서 제공하는 기본교육과정 예시로서, 교육부가 지정한 국민공통기본교과를 과정별로 집중적으로 교육하며 검정고시로 고등학교 졸업 학력을 취득한 이후 상급학교로 진학하는 것을 목표를 설정하여 운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김정원 외, 2015).

기본교육과정은 6개월 이상 1년 미만으로 운영되며 한글을 중점적으로 교육하는 한글반, 남한 사회를 알아갈 수 있도록 문화체험에 중점을 둔 초등반, 중졸 검정고시를 대비하는 중학반, 고졸 검정고시를 준비하게 되는 고등반, 고졸 검정고시 합격 이후 대학 진학 준비과정이 제공되는 대입반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일반학교 교육과정에 포함되어 있는 교과목들로 이루어져있다(김정원 외, 2015; 전연숙 외, 2012). 이와 관련한 내용은 다음 <표 Ⅱ-3>과 같다.

<표 Ⅱ-3> 탈북청소년 대안학교 기본교육과정 (예)

구분	목적	기간	과목	수준
한글반	한글 중심 교육	6개월 이상	읽기, 쓰기, 말하기, 듣기 등 한국어 관련	한글기초, 회화, 문장독해
초등반	남한 사회 문화체험 활동	6개월-1년	국어, 수학, 영어, 사회, 국사, 과학, 한문, 체육, 미술, 음악, 컴퓨터 등	일반학교 초등학교 수준
중학반	고입 검정고시 준비	6개월-1년	국어, 수학, 영어, 사회, 국사, 과학, 한문, 체육, 미술, 도덕, 음악, 컴퓨터 등	일반학교 중1-중2 수준
고등반	고졸 검정고시 준비	6개월-1년	국어, 수학, 영어, 사회, 국사, 도덕, 과학, 컴퓨터, 진로교육 등	일반학교 중3-고1 수준
대입반	대학 공부 준비 과정	6개월-1년	논술, 수학, 영어, 독서, 세계사, 중국어, 과학, 컴퓨터, 한문, 진로교육 등	대학 학습 적응 수준

자료: 김정원 외. (2015). 탈북청소년교육백서. 한국교육개발원.

또한 <표 Ⅱ-4>는 탈북청소년 대안학교 특성화 교육과정으로서, 탈북청소년들이 한국사회 적응뿐만 아니라 전인격적인 인재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주요 교육내용으로는 명사특강, 영어특성화 교육, 진로 및 진학지도, 멘토링, 법 교육, 독서학습법, 자기계발, 심리상담 및 정신건강, 소비자 수업, 동아리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전연숙 외, 2012).

<표 Ⅱ-4> 탈북청소년 대안학교 특성화교육과정 (예)

구분	내용
명사 특강	명사 특강 및 간담회
영어특성화	원어민 교사, 소그룹, 각종 캠프(리더십, 청소년)
진로, 진학지도	진학상담 및 진로지도
멘토링	자매결연 및 멘토링
법 교육	이론 및 체험활동을 통해 일상생활에 필요한 법 교육
독서학습법	독서지도 및 인재학습 원리발견
자기계발	자기계발을 위한 공동체 훈련 및 문화탐방
심리상담 및 정신건강	갈등관리 능력향상 및 자기발전, 전문 치료
소비자 수업	경제관 확립, 한국사회 이해
스포츠 동아리	건강한 육체단련과 정신건강 도모
악기 동아리	1인 1악기 수업을 통한 심리적 안정, 자기계발

자료: 김정원 외. (2015). 탈북청소년교육백서. 한국교육개발원.

이 외에 탈북청소년 대안학교에서는 국가가 저작권을 가지고 있거나 교육부 장관이 검인정한 국민공통기본교과 교과서를 채택한다. 특성화 교육과정은 해당 교육과정의 특색을 최대한 살릴 수 있는 국내외 관련 도서나, 학교 실정에 맞게 자체적으로 개발하거나 재구성한 교과서를 학교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용하고 있다(김정원 외, 2015).

이처럼 탈북청소년 대안학교는 북한에서의 어려운 경제적 상황이나 탈북과정으로 체계적 교육을 받지 못했던 학생들에게 다양한 문화체험과 진로 관련 프로그램, 대학 진학을 위한 맞춤형·수준별 교육, 맞춤형 교재 등 학생들의 실정에 맞는 기본 교육과정과 특성화 교육과정을 통한 교육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탈북청소년 대안학교를 통해 학생들이 교사의 세심한 관심과 이해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은 분명한 장점으로 평가받을 수 있다. 그렇지만 탈북배경을 지니고 있는 학생들로만 구성되어 분리교육을 실시하는 대안학교의 환경은 통합교육을 실시하는 일반학교나 남한 사회의 현실과 동떨어진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탈북청소년들이 졸업 이후 대학 진학이나 곧바로 사회에 진출하는 경우 오히려 방해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견해도 존재 한다(최성훈, 2016).

그러나 입국 초기 탈북청소년들의 상황을 고려할 때, 남한 출생 청소년들과의 통합교육만을 강조하는 것은 탈북청소년들에게 과도한 부담을 떠안게 만드는 것이라는 비판도 있다(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13). 이러한 두 가지 축의 상반된 견해는 학교 유형에 따른 탈북청소년의 진로발달과 영향요인 간 관계가 어떻게 차이가 있는지 비교·분석하고, 향후 이들이 남한 사회의 한 일원으로 자립하여 안정적인 사회정착을 위한 연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나. 탈북 고등학생의 특성

청소년기는 과도기적 단계로서 아동기에서 경험하지 못했던 신체적·심리적·사회적·도덕적 측면에서 발달과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시기이다. 탈북 고등학생의 경우, 청소년기에 따른 발달과업과 함께 탈북이라는 특수한 사건을 동시에 겪기 때문에 청소년의 일반적인 특징뿐만 아니라, 다음과 같이 탈북청소년들이 갖는 독특한 특성을 지닌다(신현숙 외, 2001; 이은선, 2017; 정애리, 유순화, 2014).

첫째, 남한사회 적응과정에서 급격한 사회문화적 변화로 인해 혼란과 갈등을 겪게 된다(정진곤, 2011; 정향진, 2005). 남한과 북한은 언어와 역사 등에서 동질적 요인을 가지지만 분단 이후 약 70년이 넘는 시간동안 사회문화체제의 변화로 인해 이질화가 심화되었다. 예를 들어, 북한의 경우 집단을 우선시하는 주체사상과 사회주의 체제에 기초한 교육을(이여진, 2011), 남한은 개인의 권리를 존중하는 개인주의 사회에 기초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이충용, 2009). 이처럼 남·북한의 완전히 다른 사회·문화 체제와 교육은 탈북청소년이 남한 출생 청소년들과는 전혀 다른 이념과 의식을 형성하도록 작용한다(이여진, 2011).

또한 남한의 경쟁적 사회 환경은 탈북청소년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주고 있다. 선행연구에 의하면, 탈북청소년은 북한에서의 생활고 및 탈북과정에서의 교육 공백, 심리적 외상, 남·북한 사회의 사고방식 차이로 인한 문화적응 스트레스로 어려움을 겪게 되는데(박윤숙, 2006), 이러한 이유로 일반 학교에 진학 후 남한 청소년과의 학업수준 차이, 학업부진, 이해력 부족 등을 보이며 좌절을 경험하게 된다. 특히 학업수준 차이 극복을 위한 과정은 탈북청소년에게 많은 스트레스를 야기하게 되며 학교 적응의 문제로 이어지는 것으로 보고되었다(나지영, 2014; 박윤숙, 2006; 박윤숙, 윤인진, 2007; 양영은, 배임호, 2010; 유가효 외, 2004; 이부미, 2012; 이수연, 2008; 정애리, 유순화, 2014).

둘째, 가족의 해체와 부모 역할의 부재로 인해 심리적 부적응 문제를 겪는다. 특히 혼자서 탈북을 한 무연고 탈북청소년의 경우, 부모에 대한 그리움과 외로움으로 인한 애정결핍 행동을 보이거나(최명선 외, 2006) 북한에 두고 온 가족에 대한 죄책감으로 인한 심리적 고통을 겪기도 한다. 또한 본인때문에 가족들이 수용소에 끌려갈 수도 있다는 불안함이 우울증을 초래하기도 한다(전우택, 2000).

선행연구에 의하면 무연고 탈북청소년이 사회문화적 일탈에 가담할 가능성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보호자에 의한 적절한 보호와 관심의 결여로 인한 결과로 볼 수 있다(장창호, 2001; 최성숙, 2003). 가족과 함께 탈북을 한 경우, 제3국에서 가족이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하여 심리적 안정을 제공하기도 하지만, 남한 정착 이후 오히려 부모-자녀 간 갈등이 발생하여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도 조사되었다(김형태, 2004; 박윤숙, 2006; 박주현, 2010). 이것은 부모-자녀 간 남한사회 적응 양상의 차이로 인해 나타나는 문제로 세대 간 갈등을 야기하게 된다(김영수, 2000). 무엇보다 부모가 지닌 북한식 사회적 체계에 의한 양육방식은 자녀의 새로운 남한 문화 적응에 있어 어려움과 갈등을 증폭시키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최명선 외, 2006).

셋째, 탈북과정에서의 경험으로 인해 외상 후 스트레스 증상으로 높은 수준의 우울과 불안을 경험한다(이하원, 채경희, 2017). 북한이탈주민은 제3국에서 평균 2년 정도를 체류하다 남한으로 입국하게 되는데, 다수의 북한이탈주민들은 탈북

과정에서 가족해체, 은신과 도피로 인한 공포와 두려움을 겪게 되고 그 후유증으로 우울과 불안 등의 외상 증상을 겪고 있다(백혜정 외, 2007; 양계민, 황순택, 2008; 이향규, 2007).

선행연구에 따르면 탈북청소년의 30.5%가 심리적 문제를, 13%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 증상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는데, 아직 정체성이 확립되지 않은 청소년기에 겪게 되는 외상경험들은 탈북청소년의 성장 과정에 지속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김린 외, 2014). 또한 청소년기의 신체적·심리적 변화는 탈북청소년들이 남한 사회 적응과정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스트레스 및 외상 경험에 따른 증상을 확대시킬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조영아, 2011).

특히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의 증상들 중에서도 불안은 탈북청소년이 가장 많이 나타내는 심리적 문제로 강제북송에 대한 두려움과 낯선 남한 문화에 대한 걱정에 의해 발생하게 된다(김진섭, 2004; 최성숙, 2003). 일반적으로 청소년기에는 일시적으로 정서적인 불안을 경험하게 되는데, 탈북청소년의 경우 이러한 청소년기의 특성에 탈북과정의 고통이 더해져 더욱 증폭된 불안 증상을 보인다(이선윤, 2005).

넷째, 탈북 과정에서 자신의 정체를 숨기고 은신해야 했던 경험들 때문에 자아정체감 형성 과정에서 혼란을 경험하기도 한다(이향규, 2007). 보통 청소년기에는 발달적 변화를 통한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자아정체감을 형성해야하는 과업이 있지만, 탈북청소년은 생존을 위해 자신의 신분을 숨겨야만 하는 상황에 노출되기 때문에 자신을 억압하고 억제하게 된다. 즉 탈북 기간이 길어질수록 자아정체감 형성에 불리하게 작용하며 탈북청소년에게는 근본적인 정체감 혼란을 야기하게 된다(이향규, 2007).

탈북청소년의 자아정체감에 대한 혼란은 학교환경에서도 나타나게 되는데, 일반학교에 다니는 북한이탈청소년의 경우, 남한사람들의 차별적 시선이 두려워 자신의 출신을 숨기는 행동을 나타낸다. 이러한 행동은 자기에 대한 정체성을 부정하는 것으로써(오원환, 2011) 그 자체로도 심리적인 스트레스를 유발하여 학교생활의 부적응을 초래하며 학교 중도탈락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김지현,

2010; 정진경 외, 2004).

선행연구에서 탈북청소년의 긍정적인 학교적응을 돕는 결정적 중재 조건은 자기지지 또는 자기강화라고 보고하고 있다. 이는 자신을 인정하고 가치를 파악함으로써 스스로에 대한 인식변화를 이끌어내 궁극적으로는 적응적 행동을 촉발하게 됨을 의미한다(김성경, 2018). 따라서 탈북청소년 개개인이 자신의 강점을 탐색하고 인식하는 과정은 자아정체감 형성에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다섯째, 학습과 진로에 대한 욕구가 다른 욕구에 비해 높은 양상을 보인다. 이것은 탈북청소년들이 북한에서의 교육기회가 부족했다는 점과 남한에서 생활하는데 있어서 새로운 것을 파악하고 알아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인식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또한 진로에 있어, 북한과 같이 정해진 직업을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직접 직업에 대한 선택과 진행이 필요하며, 자기 스스로 생계를 유지해야한다는 점도 학습 및 진로에 대한 높은 욕구가 나타난 배경이라 볼 수 있다(좌동훈 외, 2016).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는 북한의 정치사회적 배경은 다음과 같다. 북한과 같은 사회주의 경제체제에서 노동을 작업에 배분하는 권한은 국가에 있는데, 국가는 인적자본과 물적 자본을 개별 노동자에게 연결하는 것에 대한 중대한 통제 권한을 행사한다. 예를 들어 학교 졸업생들은 일반적으로 자신의 평생노동서비스가 이루어지게 되는 작업 단위를 할당 받는데, 북한에서 입직을 위한 직업훈련은 직장 배치 이후 이루어진다. 뿐만 아니라 학교교육 이외 다양한 교육의 기회가 제공되지 않으므로 일반적인 학생들은 자신의 적성을 발견하고 개발할 기회를 갖기 어렵다,

또한 대학 입학시험의 경우, 응시 추천권이 학교별로 배정되고 10% 이내의 학생들만 고등중학교 졸업 이후 대학에 진학할 수 있으므로 개인의 진로희망이 반영되는 폭이 매우 좁으며,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중등학교나 대학교 졸업 후 원하는 직업과 직장을 본인이 선택하는 것이 아닌 국가가 노동력 배치 차원에서 직장을 배정한다.

이처럼 진로에 대한 개인의 자유와 선택권이 제한된 체제에서 생활했던 탈북청소년들은 자신의 진로에 관심을 갖고 장기적 관점에서 진로를 개발하는 것에 어려움을 느끼며, 진로 목표의 설정을 어려워할 뿐 아니라 결정한 진로에 대한 확신이 없는 경우가 많다. 탈북청소년의 진로·판단선택경험 부족은 결과적으로 진로와 관련된 계획을 실천하는 과정에서 난관에 부딪힐 때 쉽게 자신의 진로를 변경하도록 영향을 주고 있다(조정아, 2005; 박세훈, 2019).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탈북 고등학생을 포함한 탈북청소년은 크게 심리·생활 및 교육·학습이라는 두 가지 측면에서 고유한 특성을 형성하게 된다. 현재 탈북청소년의 수는 전체 남한 출생 아동·청소년들과 비교했을 때 적은 수이지만 지속적인 북한이탈주민 및 탈북청소년의 입국 및 향후 북한 정세의 변화에 따른 증가 가능성이 있기에 장기적인 관심이 요구된다. 뿐만 아니라 일반학교와 탈북청소년 대안학교에서도 사명감을 가지고 최일선의 현장에서 이들을 교육해야 할 것이 요구되고 있다(전현준 외, 2016).

현재 통일부와 남북하나재단은 탈북청소년이 남한 사회의 건전한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폭넓은 학습기회를 제공하고자 탈북청소년 교육·장학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예를 들어 탈북대학생 해외연수 지원이나 9세 이상 탈북청소년 및 북한이탈주민의 자녀를 대상으로 하는 화상영어교육, 만 3세~초등학생 탈북아동 및 북한이탈주민 자녀 대상 학습지원, 북한이탈주민 정보화 교육 등이 있다(전현준 외, 2016).

북한이탈주민 정착 도움과 관련하여 정부는 <표 Ⅱ-5>와 같이 2016년 기준 2개 부처를 통해 지원하고 있으며, 이 외에 이주배경청소년지원재단과 한국교육개발원 탈북청소년교육지원센터와 함께 탈북청소년의 성공적인 사회화를 목적으로 체계적인 교육을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남북통일 이후의 청소년 정책을 고려하였을 때 탈북청소년에 대한 지원방식과 지원체계에 대한 더 많은 고민이 필요하며 앞서 살펴보았던 탈북청소년들의 특성에 부합하도록 관련 제도들에 대한 정비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박세훈, 2019; 좌동훈 외, 2016; 한국직업능력개발원, 2016).

<표 Ⅱ-5> 부처별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사업 현황

부처명	단위사업명	세부사업명	사업주요내용
통일부	북한이탈주민 정착 행정지원	북한이탈주민 정책 및 지원체계 운영	• 지역적응센터 운영 • 탈북청소년학교 지원 • 지역협의회 운영 • 정책기획·조정
		북한이탈주민 지원재단 운영	•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출연금
		북한이탈주민 종합관리시스템구축 (정보화)	• 북한이탈주민의 국내 입국부터 거주지 정착과정까지 체계적 파악을 할 수 있도록 관리 시스템 구축
	북한이탈주민 사회적응지원	북한이탈주민 정착금 지급	• 정착지원금, 주거지원금, 취업장려금, 고용지원금, 자격취득장려금, 미래행복통장 등
		북한이탈주민 교육훈련	• 하나원 및 제2하나원 교육훈련
여성가족부	청소년사회 안전망 구축	청소년 사회안전망 (이주배경청소년)	• 탈북청소년 학업·상담·진로지도 및 비교문화 체험 등을 실시
	다문화가족 정착 및 자녀양육지원	폭력피해 이주여성 지원사업 (탈북여성 폭력예방 및 지원)	• 북한이탈주민 양성평등·인권보호 교육 • 북한이탈여성 동료상담원 양성교육 • 북한이탈여성 상담서비스 및 심리치유센터 운영

자료: 남북하나재단. (2016). 학교 밖 탈북청소년 효율적 대안교육 방안. 남북하나재단.

2. 진로정체감

가. 진로정체감

1) 진로정체감의 개념

진로정체감은 Erickson(1968)과 Marcia(1980)의 자아정체감 이론을 직업 영역에 한정하여 적용한 개념인데, '자아탐색 기회를 통한 자기이해 및 올바른 직업세계의 이해로 구성된 안정된 진로 관련 자아상' 으로 자신의 진로와 관련하여 능력과 목표, 흥미를 명확하게 인지하고 있는 것을 의미한다(이형국, 2007; 주지영, 2021). 진로정체감은 자신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적성과 진로에 대해 충분히 생각하고, 적성에 맞는 직업의 합리적 선택과 미래를 설계하는 토대가 되는데(피기용, 2005), 명확하고 구체적인 진로정체감을 지닌 경우, 목표로 하는 직업의 수가 적고 진로의사결정에 있어 자신감을 가지게 된다(김선환, 2007).

지난 50년 여 년 동안 진로정체감의 기능과 구조, 발달에 대한 많은 연구가 수행되었는데, 크게 개인-환경 합치 이론(Holland, 1985)과 자아정체감 이론(Erikson, 1956)으로 구분된다. 먼저 개인-환경 합치 이론의 경우 한 개인이 성공적으로 직업을 선택하고 직업생활을 영위하려면 성격유형과 직업 환경 간 부합도가 높아야 함을 전제하고 있는데, 두 요소 간의 부합도를 높이기 위해서 개인은 자신의 직업적 선호와 성격유형을 이해하고 자각하는 것이 필요하다.

즉, 높은 수준의 진로정체감이 형성된다는 것은 한 개인이 청소년기를 지나며 선호하는 활동과 진로에 대한 가치, 목표, 유능감, 흥미 등이 분화되고 발달하게 됨으로써 더욱 명확하고 안정적이며, 일관되게 진로에 대해 청사진을 형성함을 뜻한다. 이러한 Holland의 이론은 다양한 진로정체감 연구들의 이론적 토대가 되어왔다(손영미, 2018).

반면 Erikson(1956)의 자아정체감 이론은, 앞서 살펴본 Holland(1985)의 이론에서는 다루기 어려웠었던 정체감의 구조와 복잡한 발달과정을 살펴볼 수 있다는 점에서 차별성을 갖는다. 무엇보다 어린 시절 부모로부터 부여받게 되는

정체감(conferred identity)의 '자기재구성' 과정은 Erikson(1956)의 이론에서 가장 핵심 개념 중 하나이다. 후기청소년들의 경우 직업의 획득, 결혼계획, 시민으로 성장과 같은 '성인의 과제' 에 직면하게 된다. 이때 부모와의 동일시로 형성되어있던 자기를 재구성하기 위하여 노력하게 되는데, 이러한 과정을 통해 한 개인은 '자신의 과거와 현재, 미래를 이어주는 일관되고 연속성 있는 자신에 대한 지각' 곧 통합된 자기정체감을 경험하게 된다(Marcia, 1993). 반면 자기 재구성의 과정이 없이 어린 시절 형성된 부모와의 미숙한 동일시를 기반으로 한 진로의 선택은 미성숙한 진로정체감으로 볼 수 있다(손영미, 2018).

자기 자신을 재구성한다는 것은 다른 사람들과 다른 고유하고 진정한 자기를 발견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것은 치열한 자기탐색과정을 통해 가능하다. 즉, 진정한 자기 자신을 발견하기 위한 탐색과정은 건강한 자아정체감을 형성하는데 필수적인 요소가 된다. 이 같은 Erikson의 이론을 토대로 Marcia는 정체감의 성숙단계를 제시하였으며, 이후 Luyckx et al.(2006), Porfeli et al.(2013)의 진로정체감 지위이론의 발달에 이론적 토대가 되었다. 이러한 이론들이 공통적으로 제시하고 있는 높은 수준의 진로정체감은 개인이 자기와 직업세계에 대한 대안들을 다양하고 깊이 있게 탐색하는 높은 수준의 진로탐색과, 자신이 선택한 진로에 대하여 명확하고 높은 수준의 몰입을 보이는 것을 의미한다.

지금까지의 논의를 종합하면, 진로정체감은 '자신의 과거-현재-미래를 이어주는 일관성·연속성 있는 직업적 존재로서의 자신에 대한 통합된 지각' 으로(Erikson, 1956), 자신의 직업적 가치와 능력, 목표, 흥미에 대한 비교적 안정적이고 명확하며 일관된 그림이다(Holland, 1985). 이러한 진로정체감은 한 개인이 자기 자신과 직업세계에 대한 대안들을 다양하고 깊이 있게 탐색하며, 선택한 진로에 대하여 명확하고 높은 수준의 몰입을 함으로써 성취될 수 있다(Luyckx et al., 2006; Porfeli et al., 2013).

또한 Super(1957)는 진로발달의 핵심은 자아개념의 발달 및 그것의 실현이라고 보았는데, 진로발달과정은 개인과 사회적 요인간의 타협과 종합의 연속으로서 자아개념은 타고난 능력과 다양한 역할수행 기회, 역할수행의 결과에 대한

반응 등의 상호작용으로 얻은 결과이며, 이러한 과정은 평생에 걸쳐 이루어진다고 하였다.

Super는 진로란 전생애주기 동안 진로발달의 연속선상에서 개인이 달성하는 위치라 하였으며, 생애주기별 각 단계에서 이루어야 할 진로과업을 제시하였다(Super & Hall, 1978). 그 중 14~24세의 청소년기는 탐색기로 정의했으며, 이 시기에 결정화(crystallization), 구체화(specification), 실행(implementation)이라는 과업들을 달성해야 한다. 결정화란 자기이해와 직업이해를 바탕으로써 자신의 직업적 선호도를 좁혀 나아가는 단계이고 구체화는 고려했던 직업들 중 의사결정을 하는 과정이며, 이러한 두 과정들을 바탕으로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 실행이다.

이처럼 개인의 진로발달 과업을 다루는 행동과 태도를 평가하기 위해서 진로성숙이라는 개념이 제안되었는데, Super가 제안한 진로성숙은 각 생애단계에서 당면하게 되는 진로발달과업에 대처하기 위해 개인이 가지고 있는 심리적 자원으로 정의할 수 있다(김봉환 외, 2014). 따라서 Super(1963)는 진로와 관련된 정체감인 진로정체감 형성을 진로발달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요인이라고 강조하였고, 이후 Holland(1985)의 연구 등을 통하여 그 개념이 확립되었다(김은숙, 2011; 이형국, 2007). 서유란(2012)은 진로정체감에 대한 학자들의 정의가 다양하지만 공통적으로 다음 두 가지 요소를 포함하고 있다고 하였다.

첫째, 진로정체감을 형성할 때에 자기 자신을 이해하는 일이 매우 중요하며, 진로정체감은 자아정체감과 밀접한 관계를 맺는다는 것이다. Super(1963)는 진로정체감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일관된 진로계획을 수립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화된 자기개념의 발달이 요구된다고 주장하였으며(김미주, 2011), Tiedman & O' Hara(1963)는 자아정체감을 형성해가는 과정을 진로발달로 보았으며, 진로발달에서 가장 강조하는 개념은 광의의 자기 발달이라고 하였다.

또한 진로의사결정에서 사람들은 분화와 통합의 지점에 이르게 되고 이러한 과정을 거쳐 한 개인은 자아정체감을 형성하며 이것이 진로정체감을 형성하는데 중요한 기초요인이 된다고 주장하였다(김은숙, 2012; 이광자, 2005). 즉, 자아

정체감이 높은 사람은 비록 다른 사람과 같은 동기, 흥미, 가치 등을 공유하고 있더라도 자신을 다른 사람과 분리된 '독특한 개인' 으로 자각하며, 자기 일관성 내지는 정체감을 갖고자 노력한다. 그렇기 때문에 자아정체감이 높은 사람들은 타인으로부터의 분리와 자기통일성을 함께 의미하는 자기통합성을 이루려 하게 된다(박아청, 2004).

둘째, 진로정체감은 진로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요인이라는 것이다. Tiedeman & O' Hara(1959)는 직업의 선택 과정은 직업적 정체감의 발달로 특정지어질 수 있으며, 자아정체감의 개념은 한 인간이 직업을 선택하는데 있어 동기부여 하는 만족스러운 수단이 된다 하였으며. 김봉환(1997)은 적절한 진로 탐색을 위해서는 진로정체감의 확립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또한 김희진(2001)은 직업이란 정체감의 표현이며 정체감의 내용에 의해 영향을 받고 탐색 및 결정을 하게 됨을 지목하면서 자아정체감이 높을수록 자기 신뢰를 갖고 장래 직업에 대한 계획적인 선택을 하게 되며, 이를 위한 탐색과 활동에 참여하는 경향이 강하다고 주장하였다.

실제로 Holland et al.(1980)이 개발한 진로정체감 측정 도구인 My Vocational Situation(MVS)를 활용한 선행연구 결과, 홍혜경(1998)은 대학생의 진로결정 수준이 낮을수록 진로정체감이 확고하지 못한 것으로 보고되었으며. 최인화(1998)의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고등학생의 진로결정수준은 진로정체감 수준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이상의 연구결과들은 진로정체감이 진로결정 수준과 밀접히 관련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2) 진로정체감 지위이론

Marcia(1966)는 정체감을 지위 단계에 따라 유형화하였는데, 그는 다양한 대안들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질문하고 가중치를 부여하는 과정인 탐색(exploration)과 행위나 믿음의 과정에서 개인이 표현하는 투자정도를 의미하는 몰입(commitment)을 정체감 발달의 준거로 하여 성취, 유실, 유예, 혼미 총 네 가지의 정체감 지위를 제안하였다.

먼저 성취지위(achieved status)는 탐색의 과정을 거쳐 몰입에 도달한 것으로 가장 잘 발달된 정체감 상태를 나타낸다. 이 지위에 속한 사람은 외부의 영향력 및 압력에 의해 자신이 선택한 삶의 방향이 쉽게 흔들리지 않으면서도 동시에 융통성도 가지고 있으며, 미래를 미리 설정된 기준을 충족시켜야하는 것이 아니라 정체감을 창조하거나 실현하는 시기로 인지한다(Marcia, 1993). 반면 유실지위(foreclosed status)는 몰입수준은 높지만 탐색수준은 낮은 집단으로 부모와 같은 권위적 인물에 의해서 설계된 삶의 계획을 선택하는 경향이 있다. 이들 유형은 짜여진 이상이나 계획을 따라잡으려 하는데, 주어진 과제를 완수하는 정도에 의해 자존감이 결정되는 특징을 갖는다.

한편 유예지위(moratorium status)에 속한 이들은 확고한 몰입에 도달하지 못한 상태에서 다양한 대안들을 탐색하는 집단으로서(Porfeli & Lee, 2012), 자기 자신을 정의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시도하고 여러 가지 대안들 사이에서 고민하며 투쟁하는 집단이다(Marcia, 1993). 그러나 이와 달리 혼미지위(diffused status)에 있는 집단은 몰입되어 있지 않으며 의미 있는 탐색도 거의 하지 않는다. 뿐만 아니라 혼미가 유예처럼 몰입도가 낮다 하더라도 유예는 미래지향적인 반면 혼미는 상대적으로 방향성이 없고, 몰입이 부족한 것에 대한 관심과 문제의식이 부족하며 외부의 영향에 의해 쉽게 휩쓸리는 경향을 보인다(Kroger & Marcia, 2011).

Marcia의 정체감 지위이론은 정체감 발달 과정 연구에 대한 학문적 요구에 따라 급격히 발달 되었는데(Bosma, 1985; Meeus, 1996), 최근 정체감 발달을 탐색 및 몰입 차원뿐만 아니라 재고려의 차원까지 포함하여 보다 면밀한 분석이

이뤄지고 있다(Porfeli et al., 2013; Porfeli & Lee, 2012). 먼저 탐색을 보면, Marcia 모델은 탐색을 다양한 대안에 가중치를 부여하는 것으로 정의하였으며 탐색을 통해 몰입이 결정된다고 가정한다.

하지만 Meeus(1996)의 경우, 탐색을 통해 몰입이 결정된 성취지위에 속한 청소년들 역시 자신이 몰입하고 있는 진로에 대한 정보를 적극적으로 수집하고 반영하는 심층적 탐색(in-depth exploration)의 과정을 지속하기도 한다는 것을 제안하며 기존 Marcia의 탐색 개념을 확장하였다. 즉, 청소년은 몰입대상을 선택한 후 그에 대하여 심층적 탐색을 수행함으로써 '선택-평가-의문' 의 과정을 반복하게 되고 그러한 과정을 통해 진로몰입이 형성된다고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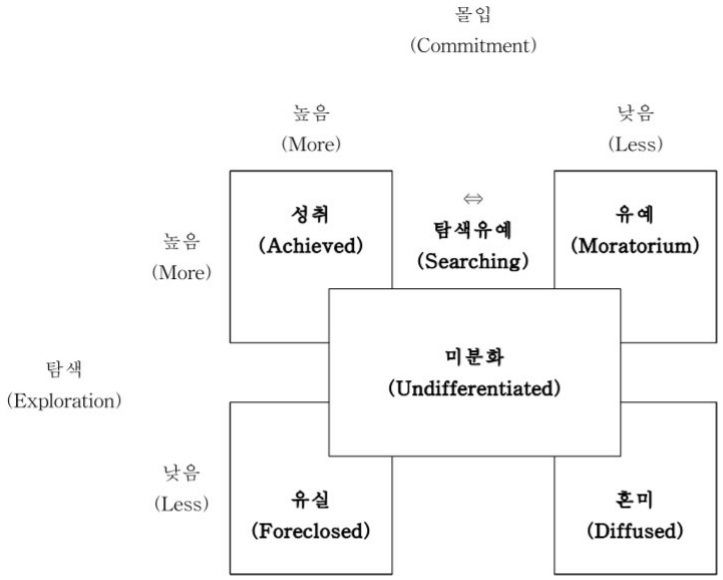
진로탐색은 폭 넓게 진로를 탐색하는 전반적 탐색(in-breadth exploration)과 깊이 있게 진로를 탐색하는 심층적 탐색(in-depth exploration)으로 구분되는데, 전반적 탐색이 다양한 진로선택지들을 만들어낸다면 심층적 탐색은 다양한 선택지를 줄이는데 사용된다. 전반적 탐색의 경우 진로미결정 및 진로계획, 자신감 부족과 정적 상관이 있지만 심층적 탐색은 진로미결정과는 부적 상관을, 진로계획 · 자신감과는 정적 상관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손영미, 2018; Porfeli & Skorikov, 2010).

Marcia의 모델에서의 몰입은 대상에 몰입하는 정도로 측정하고 있다. 그러나 Bosma(1985)는 진로몰입을 진로에 대해 어느 정도의 확신을 가지고 있는지를 의미하는 진로몰입확신(commitment making)과 자신이 선택한 진로에 대하여 어느 정도 몰입되어 있는지를 뜻하는 진로일체감(identification with a commitment)으로 구별해야 함을 주장하였다(Luyckx et al, 2011). 즉 개인이 진로에 몰입한다는 것이나 진로를 결정했다는 것이 자동적으로 진로를 확신하거나 일체감을 느낀다는 의미가 아니며, 진로몰입이 높더라도 진로일체감은 낮을 수 있음을 지적하였다. 또한 Porfelli et al.(2011)은 진로일체감이 진로몰입보다 진로에 대한 자기의심과 더 강한 부적인 상관이 있음을 밝힘으로써 진로몰입보다 진로일체감이 진로를 자기와 동일시하며, 진로에 대한 애착이 높은 경향성을 반영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마지막으로 진로재고란 정체감 발달의 역동성을 반영하기 위해 제안된 개념으로, 이미 선택한 진로에 대한 확신이 더 이상 만족스럽지 않아 현재의 진로에 대한 몰입과 일체감을 재검토하고, 자신과 더 부합하는 직업세계를 찾기 위해 가능한 대안들을 다시 비교하는 과정을 의미한다. 이러한 과정은 평생직장이란 개념이 사라지고, 이직률이 해마다 증가하는 등 불안정하고 급변하는 직업세계 속에서 현재의 진로를 다시금 검토하고 자신에게 더 잘 부합하는 직업을 다시금 탐색하는 것으로서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볼 수 있다.

Profeli et al.(2013)은 진로재고의 과정을 중요하게 바라보았는데, 이러한 과정이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 두 가지를 모두를 포함하는 것으로 가정하면서 자신의 진로 계획에 대해 어느 정도의 확신을 지니고 있는지를 의미하는 진로자기의심(self-doubt)과 진로선택·자기 변화에 얼마만큼 유연한 태도를 지녔는지를 뜻하는 진로유연성(career flexibility)의 개념을 제안하였다.

Profeli et al.(2011)은 지금까지 살펴본 진로정체감 지위이론을 종합하여 진로탐색(전반적 진로탐색과 심층적 진로탐색), 진로몰입(진로몰입확신과 진로일체감), 진로재고(진로자기의심과 진로유연성)라는 세 가지 차원의 여섯 가지 요인으로 구성된 진로정체감 지위 척도(Vocational Identity Status Assessment, VISA)를 개발하여 미국의 고등학생 및 대학생들의 진로 정체감을 성취, 유예, 탐색유예, 유실, 혼미, 미분화로 분류되는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국내 선행연구에서도 이 척도를 사용한 결과, 비교적 일관성 있게 이 여섯 가지 유형이 도출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박한샘, 조화진, 2016; 손영미, 2018; 이상희, 오보영, 2014; 최혜선, 2019).



〔그림 Ⅱ-3〕 진로정체감 지위 모델

자료: 최혜선. (2019). 고등학생의 성격강점과 진로정체감의 관계.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국내 고등학생의 진로정체감 지위에 따른 진로태도성숙 및 진로준비행동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진로태도성숙과 진로준비행동은 진로정체감 지위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고은희, 2017), 이것은 진로정체감의 지위에 따라 진로 관련 변인이 차이가 있음을 보고한 선행연구를 뒷받침한 것으로(오보영, 2013; 유혜림, 2015; 문지은, 2015; 심희준, 2016; Porfeli et al., 2011) 진로정체감이 진로발달과정에서 핵심 요소로 작용한다는 점을 시사한다.

<표 Ⅱ-6> 진로정체감 6가지 지위 및 특성

지위	특성
성취	진로 대안을 충분히 고려하며 구체적인 목표를 추구함.
유예	여러 진로 대안을 두고 선택의 가능성을 고려하지만 선택은 하지 못함.
탐색유예	기존의 관여를 유지한 채, 자신의 포부에 적절한 새로운 관여를 추구함.
유실	여러 진로 대안들을 고민하지 않고 선택을 함.
혼미	개인을 위한 특정한 목표를 추구하지 않고, 포기하거나 관심이 없음.
미분화	뚜렷한 진로정체감을 확립하고자 하는 노력이 부족하며 관망함.

나. 탈북 고등학생의 진로정체감

탈북 고등학생의 정체감 형성과정 및 진로결정과정에 관한 선행연구를 분석한 결과, 진로정체감을 종속변인으로 하여 실시한 계량적 연구는 존재하지 않았다. 다만 탈북 고등학생을 포함한 탈북청소년을 대상으로 진로설계(자기탐색, 직업탐색, 진로준비, 직업가치관), 여가활용(여가태도, 여가유능감, 여가만족, 여가몰입), 개척정신(차별화태도, 도전정신) 총 3가지 하위역량으로 구성된 진로개발역량을 정량적으로 측정한 결과, 진로개발역량의 하위역량 중 차별화태도와 도전정신의 평균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좌동훈 외, 2016).

타인과 다른 생각이나 행동을 의미하는 차별화태도가 낮은 경향을 보인 것은 탈북청소년의 학습공백, 북한에서의 집단생활, 남한사회 및 학교 친구들의 편견과 차별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함으로써 나타난 결과로도 분석할 수 있다. 따라서 탈북청소년이 주변의 시선, '자신이 어떻게 보여지는가' 에 대한 두려움 없이 당당하게 표현하는 방식을 익힐 수 있도록 교육하는 것이 필요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탈북청소년의 자기탐색이나 직업가치관은 남한 출생 청소년 대비 낮은 경향을 보였는데, 이것은 탈북청소년이 자신의 적성 및 태도, 직업가치관 등을 고려한 진로설계를 할 수 있도록 진로지도 방안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이 외에 대안학교 출신 탈북청소년을 대상으로 대학진학결정과정을 사회적응 및 개인의 발달적 맥락의 관점에서 분석한 박슬기(2011)는 남한입국 초기 탈북청소년들이 경험하는 정체성의 혼란은 심리적 위축을 유발하며, 남한 사회에서 자신의 진로를 개척하는 데 있어 소극적인 태도를 취하게 한다고 지적하였다. 특히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탈북청소년들은 '한국인' 이라는 정체감을 형성하기 위해 대학진학의 필요성을 인식하는 경향이 있으며, 자신이 남한 학생들과 동일한 진로결정을 선택함으로써 집단 간 차이를 감소시킬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일부 탈북청소년은 '동일한 한국인' 이라는 정체성을 획득하기 위해서 대학진학을 선택하려는 경향이 있으며, 이것은 사회적·문화적 체제의 변화로

기인한 정체성 혼란 탈피를 위해 진학동기가 형성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대학선택의 동기를 지닌 탈북청소년의 경우, 자신이 직면하고 있는 내적 혼란을 해소하기 위해 타인과의 동일화를 목적으로 대학진학결정을 선택했다는 점에서 자신에 대한 진지한 탐색과 성숙한 진로정체감에 바탕을 둔 진로결정으로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실제로 남북하나재단(2021)에서 실시한 2020 탈북청소년 실태조사에 따르면, 탈북청소년의 63.5%가 4년제 이상 대학(교) 교육 수준을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자신의 진로에 대한 생각 중 '나는 다양한 직업의 종류에 대해 알지 못한다.' 가 36.3%로 가장 높았다. 특히 진로정체감 영역에 해당하는 '나는 나를 잘 몰라서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겠다.' 는 32.9% 로서 2018년 대비 2.0% 상승하였다. 이 외에도 '나는 내가 어떤 일을 좋아하는지 모르겠다' 25.2%, '나는 나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모르겠다' 25.0% 등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탈북청소년은 진로결정과정에 있어 자신 및 직업세계에 대한 이해·정보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한편 2007년 기준 전국에서 탈북청소년이 가장 많이 취학하고 있던 서울시 K교육청 관내 남한 출생 청소년(중학생 80명)과 탈북청소년 대상 캠프에 참가한 학생(중학생 62명, 고등학생 3명)들의 진로성숙도, 진로자기효능감을 비교한 허은영, 강혜영(2007)의 연구에서 두 집단 간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남한 출생 청소년들보다 탈북청소년의 진로성숙도가 낮을 것이라는 선입견이 잘못된 것이라는 점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으나, 하위변인 중 독립성은 탈북청소년들이 유의미하게 낮았다. 또한 해당 캠프에 참여한 탈북청소년이 어떠한 교육시설, 즉 일반학교와 대안교육시설 중 어디에 재학하고 있는지 구별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일반화할 수 없는 한계점이 있다.

특히 탈북청소년의 진로자기효능감이 낮지 않은 부분은, 이들이 자신의 현실적인 능력에 비해 진로포부가 높다는 점과(윤성아, 2004), 방어기제로 자신의 부정적인 면을 무시하는 측면이 있다는 점을(조영아, 2007) 고려할 때 허은영, 강혜영(2007)은 탈북청소년의 진로성숙을 측정한 연구결과가 이들의 실제적인

수준과 부합하는지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제언하였다.

이 외에도 김혜경(2012)은 북한 출생 고등학생과 남한고등학생의 진로포부, 진로장벽, 진로결정 자기효능감과 진로태도성숙의 차이를 비교하였는데, 모든 변인에서 집단 간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으나 하위요인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진로성숙의 경우 북한 출생 고등학생은 확신성은 높았으나 준비성, 목적성은 낮았는데, 이것은 북한 출생 청소년들이 자신의 현실적인 능력보다 진로에 대한 기대수준이 높을 수 있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이들에게 현실적인 목적을 세우고 적절한 진로준비를 하게함으로써 진로에 대한 기대수준과 진로성숙도 사이의 균형을 맞추게 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허은영, 강혜영, 2007).

또한 탈북 청소년들은 일상생활에서 자신의 욕구나 취향을 존중 받아본 경험이나 자기성찰을 할 기회가 부족했던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진로의 선택에도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박상옥 외, 2011). 박선민(2011)의 연구에서 북한 출생 대학생들은 자신이 무엇을 좋아하고 잘하는지, 자신이 원하는 것은 무엇인지 등을 확신하기 어려워서 미래에 대해 막연하게 인식하는 경향이 있으며 자신의 적성에 부합하는 직업을 찾을 수 있을지 걱정하고 있었다.

김정원 외(2018)에 의하면 탈북 고등학생은 비교적 낮은 대학입시의 문턱에서 기인한 고민 없는 진학 및 학과 선택으로 인해 진로의 재설정이라는 역효과를 야기하기도 한다. 즉 자신의 적성, 흥미를 토대로써 전공을 선택하기보다 사회적 지위를 얻기 위해 안정적인 전공을 선택하여 대학에 진학한 탈북 고등학생들의 경우 대학적응의 어려움과 더불어 진로에 대한 고민을 다시 해야만 했다(박슬기, 오인수, 2011). 이러한 선행연구를 종합해볼 때, 어떠한 심리·사회적 요소들이 탈북 고등학생의 진로정체감 형성을 통한 진로발달을 저해하는지 분석할 필요가 있다.

다. 탈북 고등학생의 인구통계학적 특성과 진로정체감

1) 학교 유형

일반 고등학교와 대안학교 고등학생의 진로정체감을 비교분석한 선행연구를 분석한 결과, 대안학교 고등학생과 일반계 고등학생의 진로정체감과 진로성숙도를 비교한 김서영(2009)의 연구 외에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 연구 결과에 따르면, 대안학교 고등학생의 진로정체감이 일반 고등학교 학생보다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피기용(2005)에 의하면 고등학생의 진로정체감과 진로결정수준, 진로성숙도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인문계 고등학생과 실업계 고등학생 모두 자신의 미래와 진로에 대한 관심은 높았으나, 진로결정수준이 진로정체감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다고 논의하였다. 또한 이광자(2004)는 부모지지와 고등학생 진로발달의 관계에서 일반계, 실업계, 산업정보계 고등학생들 중 실업계 고등학생의 진로정체감이 제일 낮고, 일반계 고등학생의 총점이 가장 높은 것으로 보고하였다.

선행연구 분석 결과, 탈북 고등학생의 재학 학교 유형에 따른 진로정체감의 수준을 비교한 연구는 존재하지 않았다. 그러나 대안학교에 재학 중인 탈북 중·고등학생의 경우 진로에 대한 관심과 고민이 부각되는 경향을 보였으며, 학령이 높을수록 진로를 당장 무엇을 하며 살아야할지 결정해야 하는 현실적인 문제로 인식하고 있었다(김정원 외, 2018; 신혜영, 2003).

또한 자기탐색, 직업탐색, 진로준비, 직업가치관으로 구성된 진로설계역량의 경우, 대안학교에 재학 중인 탈북 청소년의 수준이 일반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탈북청소년보다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좌동훈 외, 2016). 진로설계역량에 포함된 자기탐색과 직업탐색 요인이 진로정체감을 구성하는 자신의 이해 및 직업의 이해와 유사한 맥락인 점을 고려할 때, 재학하고 있는 학교의 유형은 탈북 고등학생의 진로정체감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

2) 성별

최인화(1998)에 의하면, 고등학생의 내외통제성, 진로정체감, 진로결정과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인문계 고등학생과 실업계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성별에 따른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여학생의 평균이 남학생의 평균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성별이 진로 관련 변인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한 선행연구(김관용, 1996; 김혜래, 2007; 황미정, 2009)를 토대로 다문화 중도입국 청소년의 성별을 비교하여 진로정체감을 측정한 이소정(2018)의 연구에서도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이 외에도 앞서 살펴본 자기탐색, 직업탐색, 진로준비, 직업가치관으로 구성된 진로설계역량을 성별에 따라 비교분석한 결과, 성별에 따른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으나, 남학생 평균이 여학생보다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좌동훈 외, 2016).

그러나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진로정체감과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변인이라는 선행연구 결과와(어욘치맥, 2018), 북한 출생 탈북청소년의 경우 여자 청소년이 자신의 출신을 공개하지 않는 비율이 높다는 점(정진경, 2006)과 여자 청소년이 남자 청소년에 비해 문화적응에 어려움을 덜 겪고 있다(김형태, 2004; 백혜정 외, 2006)는 여러 가지 선행연구의 결과를 고려할 때, 성별은 탈북 고등학생의 진로정체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인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

3) 가족 구성

북한이탈주민의 가족 구성과 관련된 선행연구를 분석한 결과, 남한에서 함께 거주하는 가족 수가 많을수록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낮다고 밝힌 이소래(1997)의 연구와 가족과 친구를 포함한 비공식적인 지지의 크기가 탈북청소년의 사회·심리적 적응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박진숙, 윤인진(2007)의 연구, 가족의 구조적 특성이 문화적응과 큰 관련이 없다는 것을 밝힌 김종국, 조아미(2008), 진미정, 이순형(2007)의 연구 등이 있었다.

또한 몽골 이주배경 청소년의 문화적응 스트레스와 가족기능이 진로정체감이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어욘치맥(2018)에 의하면,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높을수록 진로정체감의 수준이 낮아졌으나, 부모의 동거 여부 등 가족기능은 진로정체감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선행연구의 결과 및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진로정체감에 부적 영향을 미치는 점(어욘치맥, 2018)과 무연고 탈북 청소년이 겪는 생활 및 사회적응 측면에서의 어려움(동용국, 2019)을 고려하여, 탈북 고등학생의 남한 내 가족 구성에 따라 진로정체감 수준은 어떠한지 구명할 필요가 있다.

라. 진로정체감의 측정

선행연구를 분석한 결과, 청소년의 진로정체감 측정을 위해 사용되는 도구로 공인규(2008)가 국내·외 문헌 및 선행연구를 참조하여 개발한 진로정체감 척도와 Holland et al.(1980)이 개발한 MVS(My Vocation Situation)의 검사 중 진로정체감을 측정하는 IS(Identity Scale)척도를 김봉환(1997)이 번안한 척도, 한국아동 · 청소년패널조사에서 공인규(2008)의 척도를 재구성하여 사용한 척도, Porfeli et al.(2011)이 개발한 진로정체감 지위 척도(VISA; vocational identity status assessment)를 이보라 외(2014)가 타당화한 한국어판(VISA-K)척도, 조은주(2001)가 전윤식 외(1988)과 박아청(1996)의 자아정체감 척도를 개정하여 사용한 도구 등이 있다.

이 연구에서는 탈북 고등학생의 진로정체감을 측정하기 위해 김봉환(1997)이 번안한 MVS 도구를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자신의 이해(9문항), 직업정보의 이해(7문항), 능력·자신감(2문항) 총 3개 하위 하위요인 총 18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도구는 다른 도구에 비해 문항수가 많지 않아 간편하므로, 설문조사에 거부감을 가지고 있는 탈북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활용하기에 적합할 것으로 판단하였다. 또한 국내 연구뿐만 아니라 국외의 다양한 선행연구에서 사용되었기 때문에 신뢰도와 타당도의 측면에 있어서 어느 정도 검증이 되어있는 도구라는 장점이 있다(이보라 외, 2014; Holland et al, 1993).

이 외에도 탈북청소년과 유사한 이주 및 이문화 배경을 지니고 있는 다문화 중도입국 청소년을 대상으로 사용된 연구에서 높은 수준의 신뢰도를 보였으므로 (어욘치맥, 2018; 유비, 김기현, 2015; 이소정, 2020), 이 연구 대상인 탈북 고등학생의 진로정체감을 측정하는데 적합할 것으로 판단하였으며, 측정 결과 .961로 높은 수준의 신뢰도를 보였다.

3. 진로정체감 관련 변인

1) 문화적응 스트레스

가) 문화적응 스트레스의 개념

문화란 관습, 도덕, 법률, 종교 등 인간이 한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획득하는 능력과 습관의 총체로서 개별 문화는 고유하게 내재하는 특정 규범과 이에 따른 행동유형을 지니게 된다. 이에 자신이 태어난 국가가 아닌 다른 국가로 이주하는 경우, 적응하는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과 스트레스를 겪게 된다(Taylor & Lambert, 1996). 즉 문화적응 스트레스란, 이주민이 자신의 문화를 유지하는 동시에 새로운 주류문화를 수용해야 하는 사회적 압력으로 발생하는 적응의 부정적 측면으로서 (Rodriguez et al., 2002) 문화적응 과정에서 발생되는 고통 및 역기능 등을 의미한다(Berry & Annis, 1974; Born, 1970).

문화적응 스트레스의 경우 주로 사회적 비주류 집단이 경험하는데, 주류 집단이 바람직한 행동과 가치의 기준, 문화적 수용 가능성의 여부를 설정하는 권력을 행사하는 반면, 비주류 집단에 속한 이들은 낮은 사회적 지위나 취약한 권력으로 인해 이주한 곳의 문화에 대한 동화를 강요받기 때문이다(Berry, 2003). 문화적응 스트레스와 관련된 초기 연구는 주로 미국 내 이민자들의 정신적 건강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며(Mena et al., 1987; Snyder, 1987) 점차적으로 유학생과 결혼이주 여성, 다문화 청소년, 북한이탈주민 등 다문화적인 맥락으로 연구가 확장되고 있다(성윤희, 장은영, 2020).

문화적응 스트레스에 대해 이해하기 위해서는 개인이 처한 문화적 특수성의 환경이 고려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인종차별이 심각한 사회문제인 국가의 경우 인종적 소수자의 문화적응 스트레스(Thompson et al., 2000)는 학업을 위해 일시적으로 다른 나라에서 거주하며 유학생으로서 겪는 문화적응 스트레스와는 질적 차원에서 다를 수 있다(Wei et al., 2012).

특히 난민 청소년의 경우 청소년기의 정체감 형성문제와 문화적응이라는 두 가지 과제를 한 번에 겪게 되어 통제감, 자기 확신감의 상실로 인한 의존성, 학습된 무기력 및 수동성과 같은 위험요인들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Rangaraj, 1988; Beiser et al., 1988; Ahearn & Athey, 1991). 우리나라의 경우 다문화 청소년이나 탈북청소년, 중도입국 청소년 등 이문화 및 이주배경을 지닌 청소년이 겪는 문화적응 스트레스는 부모의 낮은 사회·경제적 지위나 단일민족으로서의 순수성을 강조하는 문화, 경제적인 수준이 낮은 국가에 대한 높은 차별적 태도 등과 밀접하게 관련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성윤희, 장은영, 2020).

무엇보다 차별은 이주민이 공통적으로 경험하는 문화적응 스트레스로(Romero et al., 2007) 심리 및 사회적 문화적응, 신체·정신건강 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Schmitt et al., 2014), 주류사회로부터 차별을 받는다고 지각하는 경우 주류문화에서 분리되어 자신이 속한 원문화에 잔류하는 것을 선호하게 된다(Juang & Cookston, 2009; Ramos et al, 2016). 실제로 문화적응 유형 중 분리나 주변화 유형은 통합·동화유형보다 차별에 대해 더 많이 지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Berry et al., 2006).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심리·사회적, 신체적 영역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Berry(2006)의 주장과 심리·사회적 발달 및 적응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에 관한 경험적 연구에 비추어 볼 때(남효진, 2007; 이지영, 2016; 전수정, 윤혜미, 2013; 최선화, 2009; Jang & Chiriboga, 2010; Sung, 2020), 탈북 고등학생의 진로정체감 발달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선행연구에 의하면 다문화 배경 청소년은 일반가정의 청소년보다 대학 진학 및 성공에 대한 기대, 미래에 대한 희망 등이 유의미하게 낮았고(전영실, 2012), 다문화가정의 중학생들은

일반 중학생들 대비 더 높은 진로장벽을 지각하였으며(이지민, 오인수, 2013) 일반 학생에 비해 학업 및 직업탐색과 진로계획에 있어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남부현, 최충옥, 2012).

특히 학교의 경우 단순히 공부만 하는 곳이 아니라, 교사나 친구와 서로 상호작용함으로써 사회·문화적 산물과 특성을 공유하는 공간이기도 하다. 이 때문에 문화에 대한 부적응은 학교생활의 어려움으로 이어질 수 있는데, 실제로 문화적응 스트레스 수준이 높은 다문화 청소년이나 국내 이주민의 경우 진로결정성, 진로정체감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성윤희, 장은영, 2020; 어욘치맥, 2018).

북한이탈주민 역시 국내 다른 이주민들과 마찬가지로 남한 사회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문화적응 스트레스를 경험하고 있다(김종경, 양영희, 2011). 실제로 문화적응 스트레스는 북한이탈주민의 정신건강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하는데(이채영, 박주희, 2014; 조영아 외, 2009), 성인 북한이탈주민들의 경우 이질적인 남한 문화에 대한 부적응이 직장 내에서의 갈등을 유발하는 주요 원인 중 하나로 보고되었다(조인수 외, 2020). 따라서 탈북 고등학생들이 지각하는 문화적응 스트레스는 그들이 새로운 사회·문화 환경 안에서 적응하는 것과 진로발달에 있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2) 문화적응 스트레스 관련 이론

이주민은 이주한 지역에서 다양한 단계의 문화적응 과정을 거치는데, Berry(1995)는 문화적응 이론을 통해 두 가지의 문화가 접촉하게 됨에 따라 개인은 동화(Assimilation), 통합(Integration), 분리(Segregation), 주변화(Marginalization)라는 총 4가지 유형의 문화적응을 겪게 된다고 보았다. 동화란 개인의 고유한 정체성이나 전통을 버리고 이주한 사회에 완전히 흡수되는 것을 뜻하며, 통합은 자신의 고유성을 유지하여 문화적 주체성을 가지는 동시에 새로운 정착 사회와도 충분히 접촉하는 것이다. 분리는 외부세계와 정착사회 문화 간 연결이 없는 상태로서 고유집단의 주체성만을 유지하면서 정착한 사회와 분리되는 것을 의미한다. 주변화는 자신이 속한 고유집단뿐만 아니라, 새롭게 정착한 사회와의 관계를

모두 끊은 상태(금명자 외, 2004)이다.

Berry & Sabatier(2010)에 의하면 문화적응 유형별 차별감의 차이가 주류사회의 사회·문화적 맥락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는데, 예를 들어 문화적 다양성 수준이 높은 케나다 몬트리올시의 경우 통합 유형은 분리나 주변화 유형 보다 낮은 차별을 인지하는 것으로 보고된 반면, 비교적 문화적 다양성 수준이 낮고 단일 문화적이며 동화 지향적 정책을 지닌 프랑스 파리에서 통합유형은 동화, 주변화 유형 보다 높은 수준의 차별감을 지닌 것으로 조사됐다.

이것은 문화적 다양성이 허용되는 주류사회 맥락에서는 이주민의 원문화를 유지하는 것이 존중되고 지지받지만, 문화적 다양성이 허용되지 않거나 동화에 대한 압력이 있는 경우는 원문화를 유지하는 것이 오히려 이주민에 대한 차별을 증대시켜 새로운 사회에 적응하는 것에 장애요소로 작용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이러한 문화적응 과정에서 지각된 차별 등은 스트레스와 정체성 갈등을 증대시키고, 학업 만족도 및 진로정체감 등을 저하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구교태, 2014, 어욘치맥, 2018).

우리나라의 경우 단일민족·단일문화를 강조해온 사회적 특성을 고려할 때, 남한사회에서 남·북한의 문화를 동시에 지향하는 통합의 전략은 한 문화만을 지향하는 동화나 분리 전략, 혹은 두 문화 모두와 연결되지 않는 주변화 전략 보다 차별감의 지각을 더 높게 보고할 가능성이 있다. 즉 남한사회의 사람들은 북한이탈주민이 잘 정착하기 위해서 북한의 관습이나 문화, 전통, 주체성 등을 내려놓고 남한사회에 완전히 흡수되는 것을 기대하기 때문에, 북한이탈주민이 동화전략을 선택하는 경우 문화적응이 상대적으로 용이해질 수 있지만, 반대의 경우에는 오히려 더 높은 차별을 받을 수 있음을 보여준다(한나 외, 2017).

Berry(1999)는 가장 이상적인 문화적응의 상태를 이민자가 문화적 유산을 유지하면서 동시에 자신이 속하게 된 새로운 문화에 통합되는 것이라 하였는데, 이런 정의를 기반으로 하여 탈북청소년의 적응과정에 적용한 홍순혜 외(2010)의 분류를 정리하면 다음의 표 <Ⅱ-7>과 같다.

<표 Ⅱ-7> Berry의 문화변용 모델을 적용한 탈북청소년의 문화적응 유형

문화 구분		남한 문화 (새로운 문화)	
북한 문화 (기존 문화)		남한문화의 사고, 생활방식을 존중하며 남한문화를 수용하려는 성향을 가짐.	
		그렇다	아니다
북한문화의 정체성 및 북한문화를 유지하려는 성향을 가짐.	그렇다	통합형	분리형
	아니다	동화형	주변형

자료: 홍순혜 외. (2010). 북한이탈 청소년의 문화변용 추적과 남한사회 적응에 관한 연구. p.348. 재구성

소수문화에 속한 사람들의 주류문화 적응과정에서의 정체감 발달단계를 설명한 Atkinson et al.(1998)의 소수집단의 정체감 발달 모델(MID)을 금명자 외(2004)가 탈북청소년에게 적용한 결과, 시간의 흐름에 따라 문화적응 과정에서 변화가 나타났다. 즉 입국 이후 경과 기간에 따라 하나원 입소 시절을 포함한 4개월 이하 탈북청소년들의 경우 '통합' 및 '동화' 유형을, 보호기간이 끝난 후 1년 동안은 '분리' 유형, 그 이후 1~2년 간에는 '주변화' 유형이 나타났으며, 2년이 경과한 후에는 '통합' 유형이 증가하여 소수집단의 정체감 발달 모델(MID)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U자형' 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탈북청소년의 남한사회 적응 과정에서, 정착기간 및 시기에 따른 문화적응과 적응 과정에서 겪게 되는 스트레스에 관한 연구는 이들의 삶과 경험을 이해함으로써 남한 사회에서의 적응을 도울 수 있는 유용한 관점을 제시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문희정, 2018).

3) 문화적응 스트레스의 측정

선행연구 분석 결과, 북한이탈주민의 문화적응 스트레스를 측정하는 도구는 Sandhu & Asrabadi(1994)가 외국 유학생을 대상으로 개발한 척도(Acculturative Stress Scale for International Student, ASSIS)를 이승종(1996)이 한국어로 번안하여 사용 한 것을 강수정(2018)과 이소래(1997)가 수정·보완하여 사용한 척도, Rodriguez et al.(2002)이 개발한 다차원 문화적응 스트레스 척도(Multi-dimensional Acculturative Stress Inventory, MASI)를 남·북한으로 번안하여 사용한 이민지(2016)의 척도, 그리고 김연희(2009)가 개발한 '북한이탈청소년 심리·사회적응 평가도구의 문화적응 스트레스 척도' 등이 있다.

MASI의 경우 성인 북한이탈주민 여성을 대상으로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우울에 미치는 정신건강 측면에서의 영향을 측정하기 위해 활용되었다. 하위요인을 살펴보면 언어역량 압력, 문화적응 압력, 문화적응에 반하는 압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로 남북한 언어차이, 남북한 노래와 춤, 결혼희망 등에 대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다만 문항의 개념이 다소 거시적이며 구체적이지 않기 때문에 탈북 고등학생의 문화적응 스트레스를 측정하기에는 부적합하며, 원도구 역시 번안 및 타당화 과정 없이 연구자의 판단에 의해 용어만 남한 및 북한으로 변경하여 사용했다는 한계점을 지닌다.

반면 ASSIS의 경우 지각된 차별감, 향수병, 지각된 적대감, 문화충격, 두려움, 죄책감, 기타(사회적 고립, 열등감, 불신, 의사소통 문제)로 구성되어 현재 북한이탈주민 및 탈북청소년이 겪는 스트레스 요소가 반영되어 있다. 또한 탈북청년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사용한 결과 .84(송경, 2020), .97(장옥진, 2020), .87(정재경, 2019) 등 높은 신뢰수준을 보였으므로 탈북 고등학생의 문화적응 스트레스 측정에 적합하다. 그러나 문항의 수가 많아 여러 가지 변인들을 함께 분석할 때, 설문에 대한 거부감이 있는 탈북청소년 특성 상(허은영, 강혜영, 2007) 이 연구에서 활용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탈북고등학생의 문화적응 스트레스 수준을 측정하기 위해 김연희(2009)가 개발한 '북한이탈청소년 심리·사회적응 평가도구 중 문화

적응 스트레스 척도 16문항을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이질감과 문화충격, 차별, 주변화, 향수 총 5가지 하위요인 Likert 5점 척도로 구성되었다. 총점수가 33점 미만일 경우, 문화적응으로 인한 스트레스 문제를 갖고 있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33~43점 미만일 경우 문화적응 스트레스 문제로 인한 잠재적 위험군에 속하며 43점 이상이 되면 고위험군에 속한다. 탈북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이겨레(2011)의 연구에서 본 도구의 신뢰도는 .862이었으며, 이 연구에서는 .923으로 높은 신뢰도를 보였다.

나. 진로장벽

1) 진로장벽의 개념

진로장벽(career barriers)이란 개인의 직업·진로계획, 목표실현과 같은 진로발달을 어렵게 만드는 개인 내적 혹은 환경적인 사건·조건들로 정의될 수 있다(Swanson & Woitke, 1997). 진로장벽을 직장에 적응해가는 과정을 '방해하는 조건' 이라는 개념으로 처음 사용한 Crites(1969)는 진로결정에 장애가 되는 모든 요소들을 진로장벽으로 명명하고 자신감, 동기, 직업정보의 부족 등의 내적 장벽과 차별이나 가난과 같은 맥락적 장벽으로 구분하였다.

또한 Swanson & Woitke(1997)는 진로의 향상을 방해하는 개인 및 환경적 상황을 진로장벽으로 보았고 London(1997)은 진로장벽이 개인·직업 환경 또는 이 둘의 결합에서 발생할 수 있으며 갈등과 기대, 변화와 상실, 핸디캡, 직무 및 요구 사항들의 증가, 낮은 수준의 고용 및 부정적 수행 평가를 포함하며, 개인에 따라 지각되는 정도가 다르다고 주장하였다. 이와 같이 진로장벽에 대한 정의는 학자마다 차이가 있지만 공통적으로 심리적 측면의 개인 내적인 장벽과 환경적 측면에서 기인하는 외적인 장벽으로 구성된다(김혜경, 2012).

선행연구에 의하면 진로장벽은 진로발달 과정에서 중요한 변인으로 진로준비 과정을 설명하는 핵심 변인이자 진로준비행동이나 진로결정에 영향을 주는 맥락 변인으로 이해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진로장벽은 진로결정 과정에서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며(김영경, 2008; 이기엽, 2012; 이희정, 김금미, 2010) 진로태도 중 결정성과 부적 상관관계가 있었다. 또한 진로장벽이 낮은 청소년에 비해 높은 청소년이 진로에 관해 결정된 사항이 없어 진로혼란을 경험하는 정도가 많고, 현실적인 욕구를 자아개발이나 사회적 봉사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며, 자신이 일하고자 하는 분야에서 성공적으로 적응할 수 있을지에 대해 의심하는 정도가 높았다.

이 외에도 진로장벽이 높은 경우 진로선택 과정에 있어 바른 선택을 하는데 필요한 정보나 능력이 부족하고, 직업선택 능력에 대한 자신감이 부족해 스스로 결정을 내리지 못하여 주변 사람의 평가와 의견에 의존하는 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강원덕, 안귀여루, 2010). 선행연구 분석 결과, 개인이 지각하는 진로장벽의 정도가 높아질수록 진로준비행동(차아름, 2012; 장이슬, 송병국, 2015; 김민정, 2016),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희정, 김금미, 2010), 직업결정성(손은령, 2005; 이기엽, 2012)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이처럼 진로장벽을 많이 지각한 청소년과 대학생들이 진로결정이나 진로선택에 제약을 받는다는 선행연구 결과는(손은령, 2002; 유성경 외, 2006; 이명진, 김은영, 2002) 진로장벽이 청소년 진로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과 개인이 지각하는 장벽에 따라 직업결정과정과 진로준비행동이 달라질 수 있음을 의미한다(손은령, 김계현, 2002).

하지만 진로장벽을 내적, 외적 장벽으로 구분하는 것은 개념적인 단순함으로 인해 편리하지만, 실제 개인이 지각하는 진로장벽 전체를 포괄하는 기준으로는 부족하다는 견해가 있다. Swanson & Woitke(1997)는 특정 장벽이 내적 혹은 외적 장벽으로 구분되는 것은 연구자의 해석이며, 객관적으로 어떤 장벽을 내적, 외적 장벽으로 구분하기는 어렵다고 하였다(공윤정, 2005).

즉, 진로장벽이란 객관적인 사실이나 상황이기보다 그러한 사실이나 상황에 대해 당사자가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가에 달려있는 주관적이라는 것이다. 진로장벽이 주관적이라는 것은 진로장벽이 극복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특성이나 장벽의 본질에 따라 어려움의 정도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충분히 극복이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예를 들어, 진로장벽을 많이 인식하는 연구 참여자의 경우 진로발달이나 진로의사결정에 어려움을 겪었으나, 주변 환경으로부터 많은 지지를 받는 경우에는 진로발달이나 진로의사결정이 수월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이동혁, 2010).

이처럼 한 개인을 둘러싼 사회적 영향 요소들 즉, 개인의 진로발달에서 결과기대, 자아효능감과 같은 인지적인 개인변인과 함께 개인을 지원하거나 제약하는 외적 요인 혹은 진로장벽 등 맥락적인 요인들 간의 상호관계에 초점을 맞춘 사회인지진로이론의 관점에서 진로장벽을 이해하려는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다. (Lent et al., 1994).

2) 진로장벽 관련 이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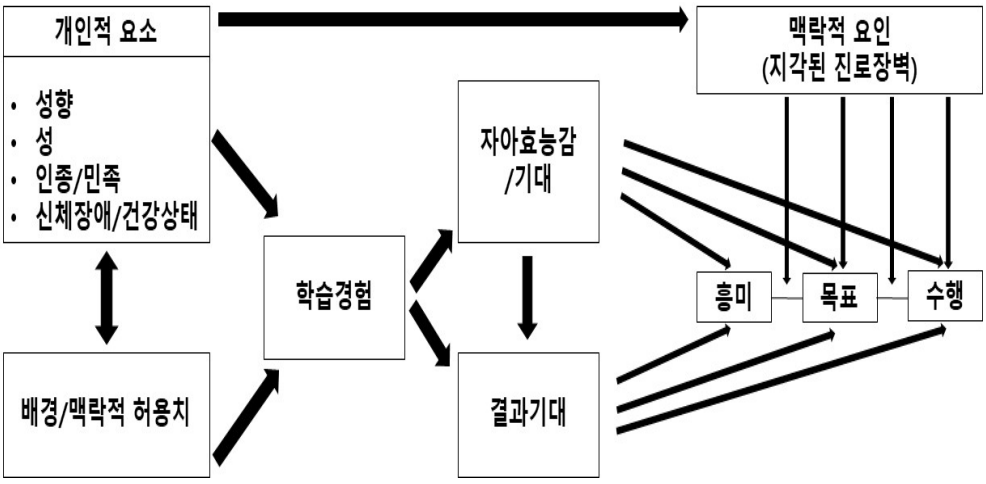
사회인지진로이론(Social Cognitive Career Theory: SCCT)은 성별, 인종, 사회계층과 같은 사회맥락의 특성과 환경적 배경이 개인의 진로발달 및 선택에 정적이거나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제시하며 개인의 내적요인에 초점을 두었던 기존 진로이론들을 개인을 둘러싼 맥락적인 요인들과 내적요인과의 영향관계로 확장시켰다(김봉환 외, 2013).

사회인지진로이론에서 중요한 4가지 변인은 자기효능감, 결과기대, 목표, 맥락변인인데, 먼저 자기효능감이란 어떠한 과제를 수행해내는 것에 대한 자신감이며 개인이 실현하려 하는 목표를 이룰 수 있다는, 자신의 능력에 대한 신념으로 볼 수 있다. 결과기대는 자신이 선택한 행동에 따라오는 성취 등에 산출물에 대한 기대를 뜻한다. 이는 자기효능감과 구분되는 개념으로 Bandura(1986)는 결과기대를 진로선택을 비롯하여 개인의 행동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보았다. 예를 들어, 한 개인이 자신의 진로와 관련된 선택을 하고 그 선택이 행위로 이어졌을 때, 어떠한 결과를 야기할지 개인 스스로 성취를 판단하고 그 판단에 따른 결과를 기대하게 된다. 결과기대는 주로 여러 가지의 진로 대안의 결과를 비교해 보는 진로상담에서 활용된다(조혜은, 2019).

목표의 경우, 개인이 원하는 미래를 성취하겠다는 결심으로(Bandura, 1986) 행동을 촉진하거나 약화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한 개인은 목표를 통해 자신의 행동을 구조화하여 실행하며, 촉진제가 없는 상황 속에서도 자신의 행동을 지속함으로써 설정한 목표를 실현할 수 있는 가능성을 높인다. 진로목표, 진로계획, 진로 관련 의사결정, 진로선택과정 등이 모두 목표에 해당할 수 있다(Lent et al., 1994).

마지막으로 사회인지진로이론은 환경 관련 변인을 다루며, 이를 근접맥락변인과 배경맥락으로 분류하여 개념화한다. 개인의 근접맥락변인으로는 가족이나 친구 등 주변 사람과 경제적 상황 등이 있으며, 배경맥락으로는 성별이나 사회계층, 인종에 의한 차별, 거시적인 경제 환경 등 보다 큰 사회적 맥락을 뜻한다. 한 개인은 가족이나 사회·문화에 의해 사회적 기능을 습득하며, 그 과정 안에서 근접맥락변인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자신의 능력에 대한 신념과 기대감을 갖게 되고 직업적 흥미를 형성하게 된다.

또한 배경적 맥락요인은 진로선택의 시점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예를 들어 진로장벽은 근접맥락변인과 배경맥락에서 진로포부를 방해하거나 가로막는 내·외적 요인이 된다(조혜은, 2019; Lent et al., 1994). 이처럼 사회인지진로이론에 의하면 한 개인의 진로와 직업 선택에 있어 흥미와 관심 등이 반영되며, 그 과정에서 개인적 요인뿐만 아니라 다양한 사회적 맥락(social context)으로 표현되는 사회적 요소들의 영향력과 밀접한 연관성을 갖는다.



〔그림 Ⅱ-4〕 사회인지진로이론의 진로선택 모델

자료: 이지은. (2016). 중도입국청소년의 진로장벽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이러한 사회적 영향력은 크게 개인의 성별, 민족, 인종, 장애와 같은 개인 고유 속성과, 사회적 계층의 정도, 차별의 경험과 같은 무형의 잠재적인 요인들과의 구조적인 맥락으로 구분된다. 특히 후자의 경우, 한 개인의 행위를 유도하는 성질(contextual affordance)을 지닌다는 부분에서 중요하게 다뤄질 필요가 있는데, 특정 진로와 직업을 목표로 설정하더라도 사회적 영향력으로 인해 다른 진로를 형성해간다는 것이다(유비, 김기현, 2015).

이와 관련하여 Marko와 Savickas(1998), Blustein et al.(2005)은 개인의 진로 및 학업발달을 위해서는 주변 사람들의 지지와 긍정적인 모델링(modeling), 교육기회 공정한 제공과 같은 사회적 맥락의 도움이 필요하지만 사회구조적인 맥락은 모든 청소년들에게 동일한 양질의 자극을 제공하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한다. 즉 부정적인 사회적 맥락은 청소년의 진로발달과 진로결정이 온전히 자신의 계획과 노력, 흥미 등으로 이뤄지는 것을 방해하며(Blustein et al., 2005) 이것은 진로발달에 있어 사회적 관점에서의 접근이 필요함을 보여준다.

성별이나 인종, 외모, 국적 등 개인의 고유한 특성으로 인해 부당한 처우를 받는 차별은 사회적 폭력의 한 유형으로서(Sanders-Phillips, 2009). 차별에 대한 인지는 절대적 및 상대적인 측면에서 이뤄질 수 있기 때문에, 한 사회를

구성하는 개개인 누구나 인지할 수 있는 특성을 갖고 있다(Heider, 1958). 이는 교육이나 취업과 같은 기회의 박탈부터 일생생활 내 유·무형 의사소통, 사회경험 등이 모두 포함된다는 측면에서 부정적인 사회적 맥락의 특성과 부합되는 경험으로 앞서 청소년들이 직업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긍정적 기능으로 설명된 사회적 이동성과 극명하게 대치되며 이를 저해하는 경험이기도 하다.

이 밖에 진로발달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는 개인의 정신건강 수준이 있다. 진로발달 개념은 기본적으로 정체감(identity)의 틀에서 차용된 것으로(Wallace-Broscious et al., 1994) 광의의 관점에서 개인의 정체감 및 진로발달 간의 관계를 논의한 연구들은 자기평가에 있어 강한 영향을 주는 우울, 불안, 자존감 같은 개인적 심리정서의 수준들이 진로선택과 발달에 있어 많은 영향을 줄 수 있음을 밝혔다(Hirschi, 2012). 정신건강 수준은 차별 경험 등에서 적지 않은 영향을 받는데, 인간은 사회적인 배제를 피하고 사회의 한 집단에 소속되고자 하는 욕구를 가지기 때문에 지각된 차별은 자존감을 낮추거나 우울을 야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Turner et al., 1979).

부정적 심리 및 정신건강 상태는 우울감이 높이는데, Beck(1972)에 의하면 인지는 특정 사건에 대한 개인의 감정과 행동 반응 등에 영향을 주며 특히 자신과 세계, 미래에 대한 왜곡을 야기하는 부정적 인지의 경우 비관적이고 수동적인 사고와 관련이 있으며 삶의 만족도 등을 저해하고 개인의 감정, 사고, 행동을 극단적인 방향으로 변화시킨다. 즉 부정적인 인지는 진로발달에 있어서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과 관련이 있다(Saunders et al., 2000).

지금까지의 논의를 종합하면 개인의 진로발달과 선택은 개인의 특성과 환경 간 상호작용, 인지적 요소의 끊임없는 상호작용 과정이라 볼 수 있으며, 탈북 고등학생의 진로장벽 역시 사회인지진로이론의 측면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3) 진로장벽의 측정

Swanson et al.(1996)은 진로장벽척도 개정판(Career Barriers Inventory)에서 진로장벽 하위 요인으로 자기이해 부족, 자신감 부족, 중요한 타인과의 갈등,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진로 및 직업정보의 부족, 성역할 갈등 및 성차별, 경제적 어려움 등 7가지를 제시하고 있다. 또한 Swanson & Tokar(1991)는 진로장벽의 종류를 알아보기 위해 미국의 남녀 대학생을 연구대상으로 선정하여 연구를 진행한 결과, 성차별, 연령·인종차별, 자신감 및 능력과 흥미의 부족, 역할 갈등, 성역할에 대한 근심, 의미 있는 타인으로부터의 불인정, 부적절한 근심 및 경험, 미래의 생활 방식에 대한 불확실성, 신체장애, 직업을 찾는 방식에 대한 불확실성, 정보부족 등이 나타났다(김민정, 2016).

국내의 경우 여자청소년용(황매향 외; 2005)과 남자청소년용(황매향 외, 2005) 진로장벽 측정 도구가 각각 개발 되었고 Swanson et al.(1996)이 제시한 7가지 요인을 포함하고 있다. 이 외에도 몇 가지 진로장벽 척도를 포함하는 진로결정에 관한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지만, 아직 초기 단계에 머물고 있고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김혜경, 2012).

예를 들어, 대학생이 지각하는 진로탐색 방해요인을 분석한 김은영(2001)의 연구 결과 경제적 어려움과 대인관계의 어려움, 자기명확성부족, 타인과의 갈등, 신체적 열등감, 직업정보 부족, 흥미부족, 연령, 미래불안의 총 9가지 요인으로 나타났다. 또한 장애대학생을 대상으로 진로장벽 측정 도구를 개발한 김원호(2010)는 자기명확성의 부족, 미래 불안, 장애관련 요인, 경제적 어려움, 나이, 진로정보 부족, 중요한 타인과의 갈등을 진로장벽의 하위요인으로 분석했다.

이 외에도 국내 초등학생이 주로 경험하는 진로장벽은 자신감부족, 자기이해 부족, 성역할 갈등 및 성차별, 중요한 타인과의 갈등,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경제적 어려움, 진로 및 직업정보의 부족이었으며(이은설, 2005), 다문화 청소년이 지각하는 진로장벽 하위요인의 경우 진로 관련 부정정서, 지지체계 부족, 자기이해 부족, 직업정보 부족, 다문화 가정에 대한 차별, 경제적 어려움, 언어적 어려움 등이 있었다(이아라 외, 2018).

이 연구에서는 탈북 고등학생의 진로장벽을 측정하기 위해, 황매향 외(2005)가 개발한 청소년용 진로장벽 척도 42문항 중 이지은(2016)이 중도입국청소년의 특성을 고려해 수정한 30개 문항을 활용하였다. 자기이해 부족과 자신감 부족, 중요한 타인과의 갈등, 직업정보의 부족,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경제적 어려움, 성역할 갈등(남녀 구분) 총 7개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었다. 이 도구는 제3국 출생 북한이탈주민 자녀를 제외한 9세 이상 24세 이하의 중도입국청소년을 대상으로 사용되었고, 문항 수가 적절하여 탈북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사용하기 적합하다 판단하였으며 이 연구에서의 신뢰도는 .955로 나타났다.

다. 사회적 지지

1) 사회적 지지의 개념

사회적 지지란 '한 개인이 주변 환경으로부터 사랑과 애정을 통해 보살핌을 받고 있다고 믿게 하고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였을 때 상호 관계 속에서 그것이 수용된다고 믿게 하는 정도' 로 정의할 수 있다(Cobb, 1976). 사회적 지지에 대한 정의는 학자들에 따라 차이를 보이지만 타인과 상호작용을 통해 얻을 수 있는 모든 형태의 긍정적 자원이며, 이것이 개인의 적응에 있어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측면에서 공통점을 보인다.

예를 들어, 박지원(1985)은 개인이 가족이나 친척, 이웃, 친구, 전문가 같은 사람들로부터 받게 되는 정서적·정보적·물질적·평가적 도움 등 여러 가지 형태의 도움과 원조를 사회적 지지로 보았다. 성영혜(1992)의 경우 '타인에 대한 긍정적인 감정의 표현, 타인의 행동이나 지각의 인정, 타인에 대한 상징적·물질적 도움의 제공 중 하나 또는 그 이상을 포함하는 대인 관계의 거래를 통해서 개인이 얻을 수 있는 모든 긍정적 자원' 으로 정의하였다(조홍용, 2018).

또한 한미현과 유안진(1996)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관심. 사랑, 서비스, 인정, 정보 등 모든 형태의 긍정적 자원' 을 사회적 지지로 보았고 이러한 지지는 개인이 사회 안에서 적응하며 살아가는 데 있어 필요한

욕구의 충족 및 소속감을 제공함으로써 건강하게 사회에 적응을 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설명하였다.

지금까지 살펴 본 바와 같이, 사회적 지지는 개인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자신감을 높여주고, 성공적으로 과제를 수행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따라서 탈북 고등학생들에게 사회적 지지는 학교생활 및 남한사회 적응에 있어 중요한 심리적 자원인 동시에 필수적인 요소라 할 수 있을 것이다.

2) 사회적 지지 관련 이론

가) 교사지지

교사지지의 개념은 단일변인으로 사용되기보다 사회적 지지의 하위요소 안에 포함되거나 교사지지와 유사한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다. Cobb(1976)은 사회적 지지의 유의미한 타인의 일부로 교사를 제시하였는데, 유의미한 타인에게 사랑받고 있다는 정서적지지, 존중되고 가치가 있다고 믿게 하는 평가적지지, 사회적 관계망에 속한 구성원들과 대화를 할 수 있는 정보적지지 등 총 3가지 차원의 지지로 개념화하였다.

교사는 주 업무인 교수(Teaching)를 넘어 학생과의 관계 형성을 통해 학생 생활지도, 생활태도, 친구간의 관계 형성에 영향을 미치며, 학생이 학교생활에 적응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학교 문화주도자이자 학생에게 유의미한 타자로 여겨진다(남부현, 오영훈, 2017). 이렇듯 교사는 학생들에게 물리적인 환경도 되고 사회적, 심리적, 정신적 환경도 될 수 있는데, 따라서 교사의 인성과 행동 특성에 따른 영향력은 학생의 학교생활에 대한 정서적·사회적 적응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친다. 또한 교사는 학생들의 진로포부 형성 등 진로발달에도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Sewell et al, 1992).

교사지지와 유사한 개념으로는 교사리더십, 교사-학생 관계의 개념 등이 사용되는데, Forster(1997)는 교사리더십을 교육과정 안에서 교육목적 달성을 위한 교사의 헌신과정으로 정의하였고, 정철민, 김규태(2013)는 교사가 스스로 성찰

하여 자신의 역할에 대해 끊임없이 열정을 발휘함으로써 학생에게 영향을 미치는 과정으로 정의하며 교사의 리더십을 감성적, 변혁적, 인지적 리더십으로 구분하였다. 선행연구에 의하면 교사의 리더십은 조직의 구성원들에게 영향을 미치며, 구성원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형성되는 과정임을 시사했다.

교사-학생 관계는 교사와 학생사이에 상호작용을 통해 형성되는 관계로서 이러한 관계는 학생의 학업동기와 행동, 학업수행에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갖는데, Patrick & Kaplanl(2009)는 학생이 교사로부터 많은 지지를 받을수록 학교생활 및 학습에 대한 흥미가 높아진다는 결과를 도출하였다. 우리나라의 경우, 교사와 학생의 관계는 학생이 학교에 대하여 형성하는 태도와 자아개념과 정신건강 등 학교생활 전반과 관련된 요인에 직접적인 영향 관계를 갖는 것으로 조사되었는데, 특히 긍정적인 자아개념은 진로정체감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김광수, 2002; 김효선, 2014).

전술한 논의들을 종합해보면 교사지지란 교사가 학교의 구성원인 학생에게 리더십을 발휘하는 과정이자 교사-학생 관계와 유사한 개념이라 할 수 있다. 즉, 교사와 학생이 서로 상호작용하면서 맺는 관계를 사회적 관계라고 한다면, 교사와 학생의 관계에서 단순한 감정적 지원을 넘어 지속적인 상호작용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구체적 도움과 원조와 같은 긍정적 형태의 자원을 교사지지라고 정의할 수 있을 것이다(조혜은, 2019).

탈북청소년의 경우 일반학교와 달리 탈북청소년 대안학교의 교사는 학생의 법적대리인, 보호인, 정서적인 지지를 해주는 부모, 기숙사나 그룹 홈에서의 생활관리, 각종 행정 및 사무 업무, 교육 프로그램 계획과 실행, 후원자 모집과 관리 등 훨씬 더 다양한 역할을 하고 있다(윤석주, 손지희, 2015). 특히 탈북과정에서 부모가 사망하거나 북한에서 홀로 탈북하여 무연고로 입국하게 된 학생의 경우는 공식 등록 거주지가 학교의 기숙사이다. 이러한 무연고 탈북청소년의 경우 하나원에서 퇴소할 때 주거지 등록이 선행되어야하며 탈북청소년의 담임교사는 학생의 교사인 동시에 보호자가 되는데, 탈북청소년이 미성년자일 경우에는 휴대폰개통 시 담임교사의 명의를 빌려주어야 하며 탈북청소년에게 매달 지급되는

기초생활 수급권자 최소생계비 통장의 관리도 맡게 된다. 이외에도 계절별 필요한 의류를 구매해 주거나 각종 사고에 연루될 경우 사건의 중재자가 되는 역할을 맡기도 한다(변정훈, 2017).

또한 탈북청소년 대안학교 교사들은 수준별 교과지도와 진로·진학지도로써 탈북청소년을 돕는다. 탈북청소년들은 긴 학업공백으로 현재 남한의 교과과정을 따라가는 데에 어려움을 겪기 때문에 교사들은 학생들 개별 수준에 맞춘 교재를 개발하거나 수업방식 및 학습자료에 변화를 주기도 한다. 즉 교사들은 학습자인 탈북청소년의 언어문화와 교육경험 측면을 고려하여 학생들이 다양한 학습 용어와 그 의미를 명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촉진하는 다양한 전략들을 수업에 활용하고 있다(김명수, 2015).

특히 미인가 대안학교의 경우는 탈북청소년들이 검정고시에 합격해야 중학교, 고등학교의 학력을 인정받을 수 있으므로 교사들은 학생들의 검정고시 준비를 도우며 철저히 지도한다. 탈북청소년 대안학교 교사들은 학생들의 학력 수준이 낮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으며, 이런 상황들을 고려하여 검정고시 준비에 필요한 최소한의 지식에 초점을 맞추어 수업을 하고 있다(윤석주, 손지희, 2014).

또한 교사들은 학생들이 자신의 적성에 맞는 진로를 찾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수행하는데, 탈북청소년들은 교사의 대안학교에서 경험하는 다양한 체험수업, 교사와의 진로상담 등을 통해 학교 진학에 도움을 받으며 그동안 부족했던 학업의 공백을 채워나간다. 이상의 논의를 종합하여, 이 연구에서는 교사의 사회적 지지가 탈북 고등학생의 문화적응 스트레스와 진로장벽, 진로정체감 간의 관계에서 조절변인으로서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예측하여 그 효과를 구명하고자 한다.

나) 또래지지

학생들에게 학교는 하나의 작은 사회이며 가정의 역할을 수행하는 공간이다. 뿐만 아니라 배움의 터전으로서 학생들의 지적 호기심을 충족시켜주는 동시에 집단의 가치 및 행동양식의 공유가 이뤄지는 장소이다(윤초희, 한수연, 2015). 조성심, 최승희(2011)에 의하면 학교생활에 만족하지 못하는 학생의 경우 장래에

하고 싶은 일이나 적성에 부합하는 일을 찾는 행위에 소홀하게 되며, 자신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인식이 부족할 수 있다. 또한 학교생활에 대한 적응 여부는 청소년의 진로정체감이나 진로성숙 등 진로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김미숙, 2014, 오정아, 남부현, 2013; 황매향, 박혜영, 2005)

청소년기에 접어들며 아동들의 애착대상은 부모가 아니라 부모 외의 대상인 또래에게 옮겨가게 되는데, 애착(Attachment)이란 개인이 가장 가까운 사람과 강력하면서도 지속적으로 정서적 유대관계를 맺는 것을 뜻하는 용어이다(Bowlby, 1969). 애착과 관련한 초기 연구에서는 양육자와 영아 간에 형성되는 정서적 유대관계를 애착으로 규정하였지만, 최근에는 애착이 전 생애에 걸쳐 형성되며, 애착 대상의 범주를 양육자에게 국한하는 것이 아닌 교사나 형제, 또래 등 다양한 사람들과도 형성할 수 있는 정서적 유대로 확장하며 인식하고 있다(정옥분 외 2009). 따라서 또래친구와의 애착형성은 친구를 믿고 이해하며 자신의 생각이나 감정을 주고받을 수 있는 긍정적인 관계(오순옥, 2007), 즉 서로 의지하며 감정과 생각을 공유할 수 있는 긍정적 유대관계(홍미자, 2006)로 발전하며 정서적인 지지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

이에 Weiss(1982)는 청소년기 또래와의 긍정적인 관계 형성에 있어 중요한 것은 친구의 성장촉진 의욕들에 대하여 지지하고 격려하는 능력으로 보았는데, 이러한 친구와의 애착은 부모와는 다르게 수평적이고 평등한 관계로 형성되며 이를 기반으로 사회적인 교류가 이루어진다. 따라서 청소년기 친구와의 긍정적 관계의 형성은 정서적인 안식처를 제공하며 전반적인 발달에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Laible et al., 2005).

청소년기 또래친구와의 관계형성은 청소년들의 삶에서 가장 중요하며 필수적으로 거쳐야만 하는 단계이다. 이 시기에 속한 아동들은 아직 부모에게 의존적이지만 사춘기 등을 겪으며 독립심과 반항심이 강해지며 특히 친구와의 관계가 자신의 삶에 있어서 더 큰 영향력을 가지게 된다. 예를 들어, 가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모와의 갈등이나 문제를 자신과 가까운 친구의 지지를 통해 해소하게

됨에 따라, 친구는 더욱 소중하고 의미 있는 애착의 대상이 되며 더욱 친밀한 우정과 관계를 이루게 된다(Collins & Repinski, 1994).

이처럼 친구로부터의 긍정적이고, 충분한 지지를 받는 것은 청소년들이 안정감과 더불어 존중감을 느끼도록 하여 긍정적인 자아가치를 형성하도록 작용하며 위기에 직면한 상황에서도 도움을 얻음으로써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요인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한다(박미연, 2020; Davidson & Demaray, 2007). 반면 친구로부터의 폭력과 같은 괴롭힘은 청소년의 학업성취, 우울과 불안 등 정신건강에 유의한 부적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Hawker & Boulton, 2000; McDougall & Vaillancourt, 2015).

청소년기는 비교적 짧은 시간 안에 다양한 변화가 발생하는 시기로, 불안과 우울증상에 취약한 상황이기도 하다(Grills-Taquechel et al., 2010; Hankin & Abramson, 2001). 특히 새로운 환경과 신체적 변화, 학업에 대한 부담 및 새로운 친구, 교사 관계에서의 적응 등은 우울감이나 불안증상을 야기하는 요인이 되기도 하는데, 이 중에서 친구로부터의 괴롭힘과 관련된 피해 경험은 청소년기 내재화 문제에 있어 대표적 원인으로 꼽힌다(Grills & Ollendick, 2002; Totura et al., 2009).

또래 친구로부터의 괴롭힘은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특징을 지니는데, 이러한 괴롭힘에 지속적으로 노출된 청소년들은 다른 상황에서 역시 쉽게 부적응적인 반응을 보인다(Erath et al., 2008). 즉 또래 집단으로부터의 부정적인 경험과 이로 인한 내재화 문제가 반복될 경우, 청소년은 대인관계에서 자신의 능력에 대하여 부정적 인식을 형성하게 된다. 또한 부정적 경험에 대한 원인을 자기 자신에게 돌림으로써 자아가치 등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Grills & Ollendick, 2002; Grills-Taquechel et al., 2010).

이처럼 청소년기는 친구를 중심으로 상호작용을 하게 되며 친구라는 존재는 정체감의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핵심요소로 작용한다. 한편 탈북 과정에서 구금·체포에 대한 공포로 자신의 존재를 숨겨온 탈북청소년의 경우 남한 정착 이후에도 출신을 잘 드러내지 않는 등 스스로의 존재를 계속해서 감춤으로써,

친구관계의 형성뿐만 아니라 정체감 형성에도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이향규, 2006).

특히 일반학교의 경우 북한 출생의 배경과 북한식 말투가 열등하고 촌스러운 것으로 간주되어 따돌림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자신의 출신을 밝히지 않는 학생들의 수가 많고, 특히 여학생의 경우 그 비율이 67%로 높게 나타났다(정진경 외, 2006). 또한 담임 선생님을 제외한 다른 사람에게 '비밀' 이 드러나지 않도록 신경을 쓰는 것 자체가 심리적 부담이며, 이러한 사실이 친구들에게 알려지게 되었을 때 왕따의 대상이 되어 학교를 그만두는 경우도 존재한다.

이처럼 또래와 부정적인 관계가 형성될 경우, 자신에 대한 부정적 인식과 문화적응 스트레스, 우울, 학업중단, 일탈, 대인기피 등으로 인한 진학 및 취업 포기 등으로 이어지는 영향요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에(김지현, 2009), 긍정적 또래관계형성 및 또래의 지지는 탈북청소년의 학교적응과 진로발달에 중요한 요소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또래지지가 탈북 고등학생의 문화적응 스트레스와 진로장벽, 진로정체감 간의 관계에서 조절변인으로서 수행할 것으로 예측하여 그 효과를 구명하고자 한다.

3) 사회적 지지의 측정

이 연구에서는 탈북고등학생의 사회적 지지를 측정하기 위해 Dubow와 Ullman (1989)이 개발한 사회적지지 평가 도구(Social Support Appraisal Scale: SSAS)를 김명숙(1994)이 번안하고 김연희(1999)가 수정·보완한 것을 토대로 서정미(2004)가 8~22세 탈북청소년에게 사용한 도구에서 교사지지(8문항)과 또래지지(8문항)을 사용하였다.

SSAS척도는 또래지지(8문항), 가족지지(8문항), 교사지지(8문항)에 대한 지각이나 평가를 측정하며 Likert 5점 척도 총 24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이 도구는 개개인이 사랑을 받고, 관심 있는 대상이고, 가치 있는 존재로 여겨지며, 사회적 관계망의 일원으로 받아들여지는 정도를 평가한다. 이 연구에서는 탈북 고등학

생의 재학 학교유형에 따른 조절효과의 차이를 분석하기 위해 교사지지와 또래지지만을 측정한다.

하나원 퇴소 이후 남한사회에서 생활하고 있는 8~22세까지의 탈북청소년을 대상으로 실시한 서정미(2004)의 연구결과, 본 도구의 신뢰도는 교사지지 .84, 교사지지 .81로 나타났으며 이 연구에서는 또래지지 .876 교사지지 .703으로 나타났다

4. 변인 간 관계

가. 문화적응 스트레스와 진로정체감의 관계

다문화 사회에서 사회적 배제를 겪게 되는 소수집단의 고립을 해결하기 위한 다면적 접근방식 중 하나로 청소년들의 직업과 진로발달은 매우 중요한 요소로 고려되고 있다(유비, 김가현, 2015). 진로는 일반적 발달과업 측면에서 뚜렷한 목표의식의 부여와 자아실현을 통하여 사회적응을 돕는 역할을 하는데(Morse & Weiss, 1968), 특히 사회적 배제의 여러 가지 측면 중 경제적·문화적 영역에서의 결핍은 직업과 진로를 통한 실질적 소득과 특정 집단에 소속되어 있다는 안정감을 제공함으로써 사회적 통합을 돕는 기능을 가진다(Watts, 2001).

하지만 직업의 다양성과 함께 진로선택 과정에서 많은 장애요소들과 마주하기 때문에, 안정적인 진로발달을 위해서는 여러 가지 요인들에 대한 고려가 필수적이다. 특히 청소년들이 자신의 희망 진로와 관련 있는 충분한 정보와 이해를 바탕으로 주체적인 선택과 인지를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제공하는 것은 중요한 일로, Holland et al.(1980)은 능동적이고 안정적인 진로의 선택은 청소년의 진로정체감 함양과 높은 연관성이 있음을 주장하였다.

즉 직업 및 진로의 선택은 자아실현을 위한 수단이기 때문에 자신만의 주관이나 확신이 부족하거나, 다른 사람들에 의한 진로선택은 자아실현과 소명의식 성취를 어렵게 할 가능성이 높으며, 진로발달 목표들 중 하나인 삶의 만족에도

많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유비, 김기현, 2015).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탈북 고등학생의 진로발달에 있어 진로정체감은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할 요소라 할 수 있다.

청소년 진로발달 이론 및 선행연구들의 논의에 의하면 진로정체감의 발달은 개인을 둘러싼 거의 모든 요인들과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어, 인종과 성별, 가정환경, 사회적지지, 교육수준과 차별의 경험 등과 같은 사회적 요인(Lent et al., 2000; Diemer & Blustein, 2007)에서부터 우울, 불안, 자존감, 자기효능감 등의 개인적인 심리·정신건강 요인들(Gushue et al., 2006; Koumoundourou et al., 2012)이 다양하게 얽혀있다.

진로정체감이 발현되기 위해서는 특정 직업 및 진로에 대한 목표와 관련된 사고와 행동이 조합되어야 하는데(Holland et al., 1993), 우울과 같은 부정적 인지는 진로문제에 대한 극복행동과 진로결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 즉, 특정 진로를 결정하는 것은 진로와 관련된 과업이나 문제, 장벽 등을 극복해야 하는 행동이 수반되어야 하는데, 우울과 같은 인지적 왜곡은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행동의 발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진로결정 자체에도 영향을 미친다.

이렇듯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무상감을 야기하는 우울과 같은 부정적인 정신적 건강수준은 진로의 결정을 배제, 유보시키며, 우울의 수준이 높을수록 진로결정 수준, 진로성숙, 진로정체감 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신효정, 이문희, 2011; 유비, 김기현, 2015; 최윤미, 이문희, 2011; Strauser et al., 2008). 또한 어욘치맥(2018)에 의하면, 한국 내 몽골배경 중도입국 청소년의 문화적응 스트레스는 진로정체감에 직접적으로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작용하였다.

지금까지 논의한 이론적 배경과 선행연구를 종합하여 볼 때, 탈북 고등학생의 지각된 차별과 미워함, 두려움, 문화충격과 같은 문화적응 스트레스와 이로 인한 우울 등 심리적 건강의 저해는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진로정체감 발달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가정에 논리적인 토대를 제공한다고 볼 수 있다.

나. 문화적응 스트레스와 진로장벽의 관계

초기 진로장벽 연구가 여성의 능력과 성취 간 불일치를 설명하는 등 여성의 진로발달에 초점을 두었다면, 이후 연구에서는 청소년, 대학생, 문화적 소수집단 등 다양한 연구대상으로 확장하여 개인의 진로발달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성윤희, 장은영, 2020; Kim & O' Brien, 2018). 선행연구에 의하면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높을수록 진로결정에 대한 어려움이 커졌으며(Franco et al., 2019), 여성이 남성보다, 유색인종인 멕시코계 미국인이 미국 내 인종적 주류에 해당하는 유럽계 미국인들에 비해 진로 및 교육적 장벽 을 높게 지각함을 발견하였다(McWhirter, 1997).

이와 유사한 결과로, 아프리카계 포르투갈 중학생들이 백인 포르투갈 중학생보다 진로장벽에 대한 인식이 유의하게 높았으며, 아프리카계 학생들 중에서도 포르투갈에서 태어난 학생보다 아프리카 출생의 학생이 진로장벽을 더 높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Cardoso & Marques, 2008). 이러한 연구들은 문화적응 스트레스를 높게 경험하는 다문화청 소년일수록 진로장벽을 높게 지각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국내 다문화 청소년들이 경험하는 차별이나 문화충격과 같은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높을수록 진로장벽을 높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성윤희, 장은영, 2020; 이지은, 2016).

다. 진로장벽과 진로정체감의 관계

선행연구에 의하면, 진로장벽과 진로정체감은 부적인 상관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김경미 외, 2014; 이건우, 2018; 이신남, 2013; 이동혁 외, 2012; 김종걸, 2008). 이신남(2013)은 회계학 전공 대학생들이 지각한 진로장벽이 진로정체감에 부적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김종걸(2007)은 경호학과 대학생이 진로장벽을 높게 지각할수록 진로에 대한 확신이 부족하고, 직업흥미 수준이 낮아지며, 직업결정의 과정에서 혼란감이 증가하는 등 진로장벽은 진로정체감에 부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였다.

한편, 유혜승(2016)은 대학생의 진로정체감 지위를 측정하고, 지위에 따른 진로장벽의 차이를 확인하였는데, 진로장벽은 진로에 대한 구체적인 탐색행동과 진로에 대한 전념, 진로전념에 대한 확신과 부적 상관을 보였으며, 진로에 대한 의심 및 진로에 대한 유동성과는 정적인 상관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진로장벽이 높을수록 진로를 위해 노력하려는 태도나 진로에 대한 확신이 감소하고 자신의 진로를 의심하며 진로를 변경할 유동성이 높아짐을 의미한다. 이 외에도 이건우(2018)는 심리·환경적 진로장벽이 진로정체감에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하며 진로장벽을 심리적 진로장벽과 환경적 진로장벽으로 구분하고 각 진로장벽이 진로정체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을 제언하였다. 이처럼 진로장벽은 진로정체감에 부적 영향을 미치며, 진로장벽을 높게 지각할수록 진로정체감은 낮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라. 사회적 지지의 조절효과

1) 문화적응 스트레스에 대한 사회적 지지의 조절효과

사회적 지지는 스트레스는 중재하는 요소로(송경, 2020) 사회적 네트워크가 발달한 사람일수록 낮은 스트레스를 경험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이소래, 1997; Henderson & Berry, 1977). 또한 Cassel(1976)은 개인과 사회의 구성원들 간의 접촉에 대한 연구 결과, 개인이 얻을 수 있는 사회적 지지와 적응 스트레스는 상관관계를 가졌는데, 이를 통해 사회적 지지가 개인적인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 있어 정서적·심리적 도움을 주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실제로 문화적응 스트레스와 사회적 지지 간 관계에 대한 선행연구들은 주로 이주노동자, 이민여성, 유학생, 임시체류자 등 이주민 집단을 대상으로 실시되었으며 문화적응 스트레스와 사회적 지지 간에 높은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Naidoo, 1985). 예를 들어 국제결혼이민여성의 경우 출신국가의 문화에 대한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 거의 존재하지 않는 타문화 생활권으로 홀로 유입하게 된다. 따라서 이들은 높은 문화적응 스트레스를 느낄 수 있는데 이 상황에서

사회적 지지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즉, 의미 있는 타인(이웃, 동료 등)으로부터 받는 사회적 지지가 높을수록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낮았으며, 사회적 지지가 적을수록 문화적응 스트레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노하나, 2007; 최금해, 2006; 홍미기, 2010; Liamputtong & Naksook. 2003; Naidoo, 1985).

또한 유학생의 경우 역시 문화적응 스트레스와 사회적 지지의 관계는 높은 상관관계를 보였다. Ying & Liese(1991)은 대만 유학생들을 대상으로 연구한 결과, 같은 국가의 동포인 친구 및 이웃이나 친척 등 의미 있는 타자의 지지가 심리적 안정감이나 문화 적응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이것은 의미 있는 타자와의 접촉이 많을수록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기 위한 학습이 촉진되며 일반적인 적응 및 만족 수준이 증가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외에도 재한 중국인 유학생을 대상으로 한 이홍직(2011)의 연구에서 사회적 지지를 많이 받는다고 인식한 유학생들이 사회적 지지를 적게 받는다고 생각한 유학생들보다 문화적응 스트레스를 더 적게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탈북 고등학생을 포함한 탈북청소년의 경우 남한 출생 청소년과 전혀 다른 정치·경제, 사회·문화적인 배경과 환경에서 성장하였기 때문에 일반 남한청소년과는 이질적인 의식구조가 형성되어 있고, 가치지향 및 현실인식 등에서 차이가 있는 상태로 남한에 입국하게 된다. 특히 국외 정보가 차단되는 폐쇄적인 사회에서 생활하다가 서구화가 진전된 남한 사회에서 겪게 되는 혼란과 불안, 현실에 대한 인식은 남북한 문화차이에서 기인하는 자연스런 현상으로 볼 수 있다(김종국, 2008; 김형태, 2004).

선행연구에서는 탈북청소년이 지각하는 사회적 지지는 두려움이나 차별감, 소속감과 같은 문화적응 스트레스에 부적인 영향을 미쳤는데, 특히 또래지지는 두려움과, 교사지지는 두려움 및 차별감에 부적 상관이 있었다(김종국, 2008). 또한 사회적 지지는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높아질 때 우울, 불안 등 정신건강의 상승을 방지하는 완충작용을 하는 조절변인으로 작용하였다(김미영, 2019). 또한 탈북청소년의 또래지지는 가족지지와 다르게 문화적응 스트레스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부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정재경, 강민주, 2019).

2) 진로장벽에 대한 사회적 지지의 조절효과

선행연구에 의하면 사회적 지지를 많이 받을수록 진로장벽을 낮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경필, 고정리, 2018; 박한샘, 2008; 엄태영 외, 2011; 이상희, 2006; 이정림, 조영아, 2017; 전영주, 박미회, 2018; Lent et al., 2000; Rosental, 1995).

예를 들어, 고졸검정고시를 준비하는 학교 밖 청소년이 지각한 사회적 지지는 평가적 지지, 정서적 지지, 정보적 지지, 물질적 지지 순서로 진로장벽과 유의한 부적상관을 보였다(이정림, 2016). 특히 직업정보의 제공과 물질적 지지, 자존적 지지는 여성 북한이탈주민의 진로장벽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으며 사회적 지지가 높을수록 남한 사회에서 진로목표를 세우고 실행하는데 있어 진로장벽이 높게 작용하지 않는다는 것이 확인되었다(안서영, 2018).

이러한 선행연구 결과는 진로장벽이란 개인에 따라 지각되는 정도가 다르며, 진로장벽을 어떻게 지각하느냐에 따라 개인의 행동은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는 London(1997)의 주장과 일치한다. 즉, 진로장벽은 주관적이므로 개인이 진로장벽에 마주했을 때 그것에 대해 느끼는 자극의 강도와 정서에 따라 얼마든지 극복이 가능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장이슬, 송병국, 2015).

지금까지 살펴본 논의들을 종합하여 볼 때, 진로장벽을 사회적 지지에 대한 지각을 통해 극복할 수 있다고 인식할 경우 장벽을 적응적으로 대처할 수 있으며(김은희, 김봉환, 2010) 사회적 지지에 따라 지각된 진로장벽의 크기가 달라질 수 있음을 의미한다.

3) 진로정체감에 대한 사회적 지지의 조절효과

청소년기는 심리적으로 자유롭게 집단을 형성하며, 자신이 사회적으로 활동하기에 적합한 장소를 찾는 시기이다. 또한 청소년기는 전공 가치관과 직업, 삶의 방식, 더 나아가 자신의 삶에서 무엇을 하고 살아가야할 것인가에 대하여 결정을 해야 하는지 압박감을 느끼는 시기이기도 하다(Erickson, 1994). 청소년에게 직업

및 진로의 선택은 어려운 결정이며 때때로 지나치게 이상적이거나 낙관적인 이유 때문에 잘못된 시작을 할 수 있는 위험이 있고, 이러한 선택으로 인하여 좌절하거나 비관적으로 되기도 한다(Colins, 2007).

이렇듯 청소년기는 인생의 다른 어느 시기보다도 자신의 미래에 대한 모호함과 불확실성을 경험하게 되는 시기이며 청소년기의 진로선택은 향후 대학진학을 비롯하여 사회로 나아가는 진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진로정체감의 발달은 핵심적인 과업이라 할 수 있다(권수정 외, 2017).

그러나 진로와 직업에 대한 충분한 지식과 정보, 이해가 있더라도 자신이 희망하는 선택에 대해 불안감을 느끼거나 자신감이 결여된다면 진로에 대한 행동과 사고, 진로정체감의 발달 등이 현저히 느려질 수 있다(권수정 외, 2017). 이에 Hirschi & Hermann(2012)과 Wanberg & Muchinsky(1992)는 청소년의 진로정체감이 직업적 만족도와 삶의 만족과 높은 연관이 있으며, 진로정체감의 발달은 주위에서 제공되는 사회적·정서적 지지 등에 의해 촉진될 수 있다고 보았다(김기현, 유비, 2015; 윤초희, 2015).

특히 교사는 학교의 주요 구성원으로 학교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는 청소년들에게 중요한 사회적 지지원 중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이효경, 2019).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교사와 관계가 친밀할수록 학생은 학교생활에 잘 적응하며, 학교 내에서는 교사의 지지가 부모애착, 가족의 지지, 친구의 지지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영향력이 있었다(허재경, 김유숙, 2005). 또한 교사지지를 많이 받을수록 학습활동이 즐거워지고 심리적 안녕감이 높아지며, 초기청소년들의 학업성취와 학교적응에 유의미한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담임교사와의 언어적 공감도가 높은 집단에서 진로정체감이 높게 나타났다(김종백, 탁현주, 2011; 이상길, 2006; 허승연, 2009).

박영신 외(1999)는 교사지원의 많은 부분이 정서적 지원과 정보적 지원이 주를 이루고, 일반적으로 교사지지를 교사로부터 제공되는 정서적, 학문적 지지의 조합이라고 보았다. 따라서 진로 및 직업에 대한 정보 부족과 자신의 적성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학생들을 위해서는 교사지지의 역할이 진로의 선택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선행연구에 의하면 담임교사와의 언어 공감도가 높은 집단에서 진로정체감이 높았으며, 교사지지는 중·고등학생의 진로정체감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김유경, 이우경, 2017); 이상길, 2006; 이효경, 2019).

또한 선행연구에 의하면, 청소년기 또래 및 친구와의 긍정적인 유대 관계의 형성과 진로정체감과의 관계에 대해 여러 학자들이 강조하고 있다. Colins(2007)는 '청소년기(Adolescence)' 라는 단어가 '성숙을 향하여 성장해가는 시기' (period of growth to maturity)를 의미한다고 하였는데, 청소년기는 사춘기(puberty)에서 시작하여 10대 후반에서 20대 초반까지 지속된다. 이 시기 아이들은 감정적, 사회적, 성적, 신체적, 지적으로 변화해가며 가족들의 보호와 부모에게 의존하던 삶으로부터 벗어나 독립과 사회적 생산으로 옮겨가며 공부. 또래 친구, 직업, 취미 등과 관련된 다양한 스트레스가 병존하는 사회적 환경에 놓이게 된다.

청소년들은 일차적으로 타인의 눈에 자신이 어떻게 보이는지와 스스로에게서 느끼게 되는 점들을 비교하며 생각하게 되고, 청소년기 이전에 형성된 자신의 기술과 역할을 직업적 원형과 연결시키게 된다. 이것은 곧 직업(career)에 대한 기약을 확실히 하는 것처럼 과거 준비하였던 내적 동일성과 연속성이 타인과의 관계에 있어서 개인적인 의미에 대한 동일성과 연속성과 부합하게 된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청소년들은 각자를 괴롭히는 이 직업적 정체성(occupational identity)과 관련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은 갖춰있지 않기 때문에, 자신이 속한 집단의 주인공(영웅)에게 잠정적으로 과잉동일시(overidentify), 즉 자신이 속한 또래와 그 사회에서의 위인과 동일해지도록 노력하게 된다. 또한 청소년들은 무리를 짓고 자신들과 자신들의 이상, 적에 대한 고정관념을 만듦으로써 다양한 불편함이나 어려움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서로 돕는 경향이 있으며, 또래 집단의 지지를 갈망하게 된다(권수정 외, 2017).

이렇듯 또래 친구는 학교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는 청소년들에게 중요한 사회적 지지원 중의 하나로 '친밀감과 중요한 인지·정서적 자원' 기능을 가지는 대상(최영희 외, 2012)으로서 심리적 안녕을 증진하며 다양한 스트레스를 감소

시키는 역할을 수행한다. 따라서 긍정적인 친구 관계가 형성될 경우 타인에 대한 신뢰와 자신의 미래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지각을 가지게 될 가능성이 높아진다(권수정 외, 2017; 최영희 외, 2012).

실제로 원만하고 친밀한 또래 친구와의 관계는 긍정적 자기상의 확립을 통해 대인관계능력 및 문제해결력 습득하도록 하며, 청소년의 진로정체감의 발달에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김아름 외, 2010). 이와 관련하여 선행연구에서 Feldsman & Blustein(1999)와 Meeus & Dekovic(1995)은 친구와의 긍정적 관계가 청소년의 진로정체감 발달에 있어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하였는데, 중학생의 경우 진로정체감뿐만 아니라 학교생활적응과 밀접한 관련이 있었다(손연아 외, 2014; 이예진, 2014; 문은식, 2015). 또한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윤초희(2015)의 연구에서 또래의 사회적 지지는 진로정체감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다.

또한 문은식(2015)은 중학생의 또래애착, 자아정체감, 진로정체감, 학교생활적응 간 관계를 검증한 결과, 또래애착이 진로정체감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결과를 제시하였고, 손연아 외(2014)는 또래애착이 개인발달 환경 변인으로 작용함으로써 중학생의 진로정체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를 제시하였다. 뿐만 아니라 권수정 외(2017)에 의하면 또래애착은 청소년의 진로정체감에 직접적인 영향과 학교적응 및 공동체의식을 매개로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외에도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 2010(KCYPS 2010)을 이용하여 중학교 1학년 패널의 제6차 연도(2015년) 자료를 활용하여 고등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한 박찬미(2020)의 연구 결과 친구와의 의사소통과 신뢰가 높을수록 진로정체감은 높아지는 경향이 있었으며, 친구의 사회적 지지는 청소년의 진로정체감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이효경, 손은령, 2019).

이러한 연구 결과는 하루 중 대부분의 시간을 친구와 할애하는 청소년기의 특성상 그들과의 상호작용으로부터 정보나 지지를 얻음으로써 자신의 연령대에 적합한 관심과 흥미를 발달시킬 수 있고, 청소년 시기에 공통적으로 겪게 되는 유사한 문제들이나 감정의 공유를 통한 사회적 지지의 획득은 자신이 누구인지,

또 앞으로 나아가야할 자기 자신을 발견할 수 있는 진로정체감의 형성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의미한다(권수정 외, 2017).

지금까지 논의한 내용을 종합하여 볼 때, 청소년기는 친구에게 많은 영향을 받는 시기이며, 긍정적인 친구관계와 지지는 청소년의 진로정체감 발달에 보다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변인 간 관계를 토대로 하여 이 연구에서도 교사와 또래의 사회적 지지가 문화적응 스트레스, 진로장벽, 진로정체감에 조절변인으로서 미치는 효과를 구명할 수 있는 것으로 기대된다.

마. 진로정체감과 관련 변인의 선행연구 종합

문화적응 스트레스와 진로장벽, 진로장벽, 사회적 지지의 관계를 분석한 선행연구들을 종합하면 다음 표<Ⅱ-8>과 같다.

<표 Ⅱ-8> 진로정체감 관련 변인의 주요 선행연구 종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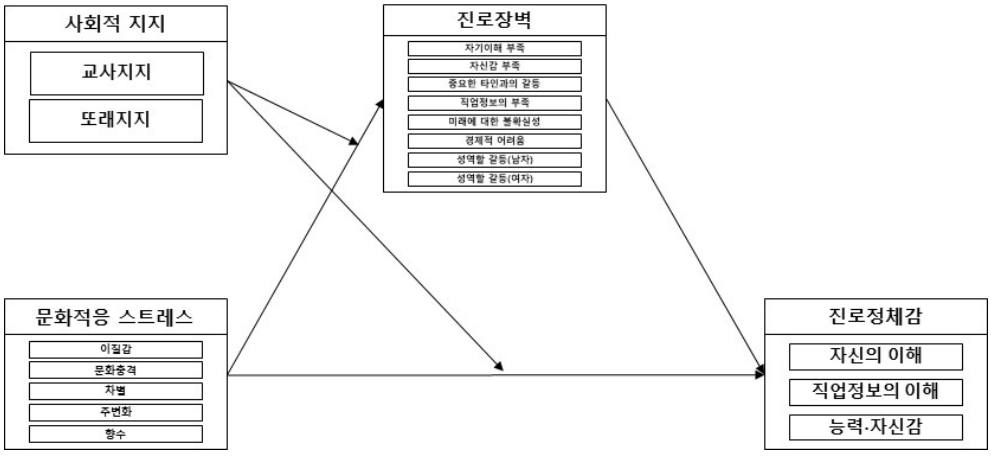
변인 간 관계	선행연구
문화적응 스트레스 → 진로정체감	어욘치맥(2018)
문화적응스트레스 → 진로장벽	성윤희, 장은영(2020), 연은모, 최효식(2019), 윤수민(2020), 이지은(2016), Cardoso & Marques(2008), Franco et al.(2019), McWhirter(1997)
진로장벽 → 진로정체감	김경미 외(2014) 박은선, 박혜훈(2019),이건우, 최바울(2020), 심효주(2017), 이순영(2008)
사회적 지지 → 진로장벽	고경필, 고정리(2018), 박한샘(2008), 엄태영 외(2011), 이정림, 전용수(2018), 조명실(2006), 조영아(2017), 전영주(2018), Lent et al.(2000), Rosental(1995)
사회적 지지 → 진로정체감	고명숙(2014), 김선경(2017), 김유경, 이우경(2017), 김종백, 탁현주(2011), 이상길(2006), 이선영(2017), 이효경(2019), 이효경, 손은령(2019), 이희선, 선우현정(2015), 윤초희(2015), 정미나, 노자은(2016), Johnson et al.(1999), Vignoli et al.(2005)
사회적 지지 → 문화적응 스트레스	김종국(2008), 노하나(2006), 이일정(2019), 이지선(2011), 이홍직(2011), 최금해(2006), Hovey & Magana(2002), Poyrazli et al.(2004), Yeh & Inose(2003)

III. 연구방법

1. 연구모형

이 연구의 목적은 탈북 고등학생이 지각한 문화적응 스트레스 및 진로장벽이 진로정체감에 미치는 영향과 사회적 지지의 조절효과를 구명하고,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차이점을 비교·분석하는데 있다.

이 연구의 분석 대상이 되는 변인은 진로정체감와 문화적응 스트레스, 진로장벽, 사회적 지지이며 국내·외 선행 연구들을 고찰하여 다음과 같은 연구 모형을 설정하였다.



〔그림 Ⅲ-1〕 연구모형

2. 연구대상

가. 모집단

이 연구의 대상은 국내 고등학교와 탈북청소년 대안학교의 고등학생 학급에 재학 중인 북한 출생 고등학생이다. 2021년 4월 기준, 북한 출생 고등학생은 355명이며, 탈북청소년 대안학교 학생은 91명으로 추정된다. 탈북청소년 대안학교 학생의 출생 국적 및 학급에 따른 학생의 수는 대상의 특성 및 관련부처의 업무방침으로 정확한 자료에 접근하는 것이 불가능했으며, 통일부 정착지원과의 담당자와 전화통화로 수집한 대략적인 비율과 실제 본 조사를 통해 수집한 표집 자료를 참고하여 추산하였다. 국내 고등학교의 경우 일반계 고등학교와 특성화 고등학교, 특수목적 고등학교 등을 포함하며, 통일부 인가 탈북청소년 대안학교는 각종학교로, 통일부 미인가 탈북청소년 대안학교는 전일제 대안교육시설로 분류되고 있다(통일부, 2020).

나. 표집

1) 표집크기

중다회귀분석을 활용하는데 있어 적정 사례 수에 대한 일치된 의견은 없으나, 대체로 측정변인과 사례수의 비율이 약 1:20 정도가 되는 것을 권장하고 있으며(박원우 외, 2010; Tabachnick & Fidell, 2007), Barbara & Linda(2001)와 Keith(2019)의 경우 50 + 8×독립변인의 수를 적정 사례수로 보았다. 이 외에 관찰변인과 전체 사례 수비율이 1:15 수준이 되어야 예측 변수의 검증력 확보가 가능하다고 한 Stevens(2009)의 주장에 근거하여, 이 연구에서는 최소 60개 이상의 표본이 필요한 것으로 보았다.

또한 G*Power3.1을 활용해 중간 정도의 효과크기(0.15), 유의수준(0.05), 검정력(0.85), 예측변인(2개)을 고려하여 매개회귀분석을 위한 적정 표집크기를 계산하였을 때 76명의 표본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탈북청소년이 갖는 특수성과 표집 및 회수의 어려움, 불성실 응답률, 탈북청소년 대상 선행연구에서의 표집크기 등을 고려해 최소 80개 사례를 기준으로 연구를 수행하였다.

<표 Ⅲ-1> 적정 표본 크기

연구자 / 프로그램	표본 크기 / 조건	연구의 예상 표본
• 박원우 외(2010) • Tabachnick & Fidell(2007)	• 각 변인별 최소 20 표본 할당	80명
• Barbara & Linda(2001) • Keith(2019)	• 50 + 8×독립변인의 수	66명
• G*power 3.1	• 중간 정도의 효과크기 0.15 • 유의수준 0.05 • 검정력 0.85 • 예측변인 2개 • 매개효과 분석	76명
• Kelly & Maxwell(2003)	• 100+m(독립변인수)	100명 이상
• Krejcie & Morgan(1970)	• 1,000,000명 기준 384명 • 75,000명 기준 382명 • 440명 기준 205명	205명
• Stevens(2009)	• 관찰변인의 15배	60명

2) 표집방법

이 연구의 대상은 2021년 4월 기준 국내 고등학교와 탈북청소년 대안학교에 재학 중인 탈북 고등학생 436명이다. 탈북 고등학생은 탈북청소년 집단이 갖는 특수성 때문에 설문지 배부 및 회수가 어려우며, 많은 표본을 대상으로 연구를 실시하는 것에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 이러한 경우 통계 표집과 관련된 학계에서는 눈덩이 표집(비확률적 표집)을 대표적인 방법으로 제시하고 있다(성동제, 2015).

탈북청소년 대상 선행 연구를 분석한 결과, 대다수 연구가 심층면담 등 질적 연구를 통해 이뤄졌다. 양적연구의 경우 탈북청소년 대안학교와 하나센터, 북한 출신 청년들이 활동하고 있는 수도권 소재 대학 동아리, 학술 단체 등을 통하여 표집이 실시되거나, 연구에 참여한 탈북학생들의 소개를 받아 눈덩이 표집 방식

등을 통하여 온·오프라인 설문조사가 실시되었다. 이와 같은 선행 연구의 표집 방법을 참고하여, 이 연구에서는 탈북청소년 대안학교와 북한 관련 NGO, 하나센터, 종교단체 등을 통하여 눈덩이 표집을 실시하였다.

<표 Ⅲ-2> 전국 소재 탈북청소년 대안교육시설 및 북한 출생 고등학생 현황

학교명	소재지	총원	북한출생	비고
꿈터학교	서울 강동구	비공개	0명	-
여명학교	서울 중구	73명	30명	-
하늘꿈학교	경기 성남시	47명	10명	-
한꿈학교	경기 의정부시	50명	17명	-
겨레얼학교	서울 양천구	비공개	0명	-
금강학교	서울 구로구	확인불가	확인불가	연락불가
다음학교	서울 서초구	50명	15명	-
셋넷학교	강원 원주시	확인불가	확인불가	연락불가
해솔직업사관학교	강원 춘천시	비공개	1명	-
우리들학교	서울 관악구	비공개	10명	-
지구촌학교	서울 구로구	67명	0명	-
서울다솜관광고등학교	서울 종로구	119명	0명	-
인천한누리학교	인천 남동구	31명	0명	-
한국폴리텍다솜고등학교	충북 제천시	129명	0명	-
장대현학교	부산 강서구	비공개	약 5명	-
남북사랑학교	서울 구로구	비공개	0명	-
자유터학교	서울 동작구	비공개	0명	-
프라이밍 사관학교	서울 양천구	비공개	0명	-
반석학교	서울 서초구	비공개	3명	-
새일아카데미	서울 동작구	비공개	0명	-
북한 출생 고등학생 총원			약 91명	

다만 앞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탈북과 입국, 사회 배치 과정에서 의무로 설문조사에 임해야 하는 탈북청소년의 특성상 설문지에 거부감을 나타내는 경향이 있으며, 허은영, 강혜영(2007)의 연구의 경우 2명의 학생은 끝내 설문조사에 응하지 않았다. 특히 설문조사 실시 전에 학생들과 충분한 관계를 맺고 설문을 실시한 경우와 시간만 할애 받아 설문을 실시한 경우 학생들이 설문조사에 협조하는 정도에 있어 큰 차이를 보였다. 이 연구에서도 탈북 고등학생들의 참여가 높지 않았는데, 이러한 현상은 탈북 청소년의 특성에서 기인한 것을 볼 수 있다.

<표 Ⅲ-3> 탈북청소년 관련 주요 선행연구(학위논문) 분석 결과

선행연구	주요내용
김윤나(2008)*	-전국 소재 10세 이상 29세 이하 북한이탈청소년(193부 분석) -의도적 표집방법 및 눈덩이표집방법 실시 -문화적응 유형에 따른 적응유연성 집단 간 차이 분석 -적정 표본 수 관련 이론적 근거 부재
김종국(2008)*	-9세 이상 24세 이하 새터민 청소년(228부) -229명 중 고등학생 44명 -상관관계 분석 -적정 표본 수 관련 이론적 근거 부재
김지현(2010)	-국내 거주 북한이탈청소년(90부 분석) -중다회귀분석 -적정 표본 수 관련 이론적 근거 부재
김현진(2008)	-만 9세 이상 24세 이하 탈북청소년(125부 분석) -중다회귀분석 실시 -스노우볼 표집실시(통계적 추론과정의 한계 명시)
김혜경(2012)	-한겨레 고등학교 북한이탈고등학생(101부 분석) -남한고등학생(119부) -중다회귀분석 -적정 표본 수 관련 이론적 근거 부재
목혜연(2008)	-14세 이상 24세 미만 새터민 청소년(84부 분석) -변인 간 평균비교분석 및 상관관계분석 -적정 표본 수 관련 이론적 근거 부재
서정미(2004)	-8세 이상 22세 이하 북한이탈청소년(63부 분석) -중다회귀분석 -적정 표본 수 관련 이론적 근거 부재
송경(2020)	-만 19세 이상 35세 이하 북한 출신 청년(101부 분석) -이중매개효과 분석 -적정 표본 수 관련 이론적 근거 부재
이지형(2016)*	-북한이탈가정청소년(88부 분석, 북한출생 44명) -중국 등 제3국 출생 아동・청소년 포함 -상관관계 분석 및 위계적 회귀분석 -적정 표본 수 관련 이론적 근거 부재
정재경(2019)	-만 13세 이상 24세 이하 북한출생 청소년(101부 분석) -매개효과 분석 -적정 표본 수 관련 이론적 근거 부재
조양희(2019)	-만 13세 이상 25세 이하 서울, 경기지역 북한이탈청소년(117부 분석) -중국 등 제 3국 출생 포함 -중다회귀분석 실시 -적정 표본 수 관련 이론적 근거 부재

*박사학위논문을 의미함.

3. 조사도구

이 연구의 목적은 탈북 고등학생의 진로정체감을 측정하고 이와 관련된 변인 간의 관계를 구명하는 것이다. 이를 위한 조사 도구로 질문지를 사용하였으며, 질문지 구성은 다음 <표 Ⅲ-4>과 같다. 질문지는 탈북 고등학생의 문화적응 스트레스, 진로장벽, 진로정체감, 사회적 지지, 인구통계학적 특성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표 Ⅲ-4> 조사도구의 구성

구분	하위요인	문항번호	문항 수
문화적응 스트레스	이질감	Ⅰ. 4, 8, 9, 10	4
	문화충격	Ⅰ. 6, 7, 13	3
	차별	Ⅰ. 1, 2, 3	3
	주변화	Ⅰ. 11, 12, 16	3
	향수	Ⅰ. 5, 14, 15	3
	전체		16
진로장벽	자기이해 부족	Ⅱ. 1, 2, 3, 9	4
	자신감 부족	Ⅱ. 4, 5, 6, 7, 8	5
	중요한 타인과의 갈등	Ⅱ. 10. 11. 12. 13. 14	5
	직업정보의 부족	Ⅱ. 15, 16, 17, 18	4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Ⅱ. 19, 20, 21, 22,	4
	경제적 어려움	Ⅱ. 23, 24, 25	3
	성역할 갈등(남자)	Ⅱ-1. 1, 2, 3, 4, 5	5
	성역할 갈등(여자)	Ⅱ-2. 1, 2, 3, 4, 5	5
	전체		30
시회적 지지	또래지지	Ⅲ.1, 2*, 3, 4, 5, 6, 7, 8	8
	교사지지	Ⅲ.9, 10*, 11*, 12, 13, 14, 15*, 16	8
	전체		16
진로정체감	자신의 이해	Ⅳ. 3*, 4*, 5*, 10*, 11*, 12*, 13*, 17*, 18*	9
	직업정보의 이해	Ⅳ. 1*, 2*, 6*, 7*, 8*, 9*, 14*	7
	능력・자신감	Ⅳ. 15*, 16*	2
	전체		18
인구통계학적 특성	생년, 성별, 하나원 기수, 입국시기, 현재 가족구성, 고향, 재학 학교 유형	Ⅴ. 1-7	7
합계			87

*역채점 문항을 의미함.

가. 진로정체감의 측정도구

탈북 고등학생의 진로정체감 지위에 따른 유형을 측정하기 위하여 Holland et al.(1980)이 개발한 My Vocational Situation(MVS) 검사 중 객관식 문항으로 진로정체감을 측정한 Vocational Identity(VI)를 한국어판으로 번안한 김봉환(1997)의 도구를 Likert 5점 척도로 수정하여 구성한 이선영(2017)의 문항을 사용하였다. 총 18문항으로, 자신의 이해(9문항), 직업정보의 이해(7문항), 능력·자신감(2문항) 3개 하위요인으로 구성된다. 이 연구에서 Cronbach's α는 .961로 높은 신뢰도를 보였다.

<표 Ⅲ-5> 진로정체감의 내적일치도 계수

구분	내적일치도 계수(Cronbach' s α)
	본조사(N=84)
전체	.961
자신의 이해	.940
직업정보의 이해	.898
능력・자신감	.847

나. 문화적응 스트레스의 측정도구

탈북 고등학생이 남한 사회에서 겪고 있는 문화적응 스트레스 수준을 측정하기 위해 김연희(2009)가 개발한 '북한이탈청소년 심리·사회적응 평가도구' 의 문화적응 스트레스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탈북청소년들이 남한 사회에 정착하는 과정에서 겪게 되는 문화적 차이로 인한 스트레스 수준을 측정하며, 이질감(4문항), 문화충격(3문항), 차별(3문항), 주변화(3문항), 향수(3문항) 총 5가지 하위요인 16개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탈북청소년 대안학교, 일반 중·고등학교, 하나원 재원 중인 탈북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에서의 Cronbach's α는 .862로 나타났으며(이겨레, 2009), 이 연구에서는 .923의 높은 신뢰도를 보였다.

<표 Ⅲ-6> 문화적응 스트레스의 내적일치도 계수

구분	내적일치도 계수(Cronbach' s α)
	본조사(N=84)
전체	.923
이질감	.866
문화충격	.812
차별	.827
주변화	.669
향수	.815

다. 진로장벽의 측정도구

탈북 고등학생이 남한 사회에서 지각하는 진로장벽을 측정하기 위해, 황매향(2006)이 개발한 청소년용 진로장벽 척도 42문항 중 중도입국 청소년 특성을 고려하여 이지은(2016)이 수정·보완한 30문항을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자기이해 부족(5문항), 자신감 부족(4문항), 중요한 타인과의 갈등(5문항),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4문항), 경제적 어려움(3문항), 성역할 갈등(남녀 각 5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제3국 출생 북한이탈주민 자녀를 제외한 9~24세 중도입국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에서의 하위요인별 Cronbach's α는 .642~.856으로 나타났으며 이 연구에서는 .955의 신뢰도를 보였다.

<표 Ⅲ-7> 진로장벽의 내적일치도 계수

구분	내적일치도 계수(Cronbach' s α)
	본조사(N=84)
전체	.955
자기이해 부족	.905
자신감 부족	.774
중요한 타인과의 갈등	.886
직업정보의 부족	.903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820
경제적 어려움	.800
성역할 갈등(남자)	.932
성역할 갈등(여자)	.880

라. 사회적 지지의 측정도구

탈북 고등학생이 지각하는 사회적 지지를 측정하기 위해, Dubow & Ullman (1989)이 개발한 사회적 지지 평가 도구를 김명숙(1994)이 번안하고, 김연희(1999)가 수정·보완한 서정미(2004)의 도구를 사용하였으며, 교사지지(8문항), 또래지지(8문항) 16문항으로 구성되었다. 8~22세 탈북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에서의 신뢰도는 또래지지 .84, 교사지지 .81로 나타났으며(서정미, 2004), 이 연구에서는 또래지지 .876 교사지지 .703으로 나타났다.

<표 Ⅲ-8> 사회적 지지의 내적일치도 계수

구분	내적일치도 계수(Cronbach's α)
	본조사(N=84)
전체	.855
또래지지	.876
교사지지	.703

4. 자료수집

조사결과의 일반화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국내 북한 인권 NGO의 도움을 받아 전국의 고등학교 및 탈북청소년 대안학교(전일제 대안교육시설 포함)에 재학 중인 북한 출생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2021년 9월 15일부터 2021년 11월 3일까지 본 조사를 실시하였다.

탈북 고등학생과 유사한 이주 배경 및 특성을 지닌 중도입국청소년과 다문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를 고찰한 결과, 측정도구의 타당도 및 신뢰도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어 예비조사를 생략하였으며, 온라인(PC 및 모바일)을 통해 비대면으로 설문이 진행되었다. 총 85부가 수집되었으며, 이 중에서 연구대상이 아닌 데이터 1부를 제외하고 84부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5. 자료분석

이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는 IBM SPSS Statistics 26 통계프로그램 및 PROCESS macro for SPSS 활용을 통해 연구문제를 중심으로 분석하였으며, 상관분석의 경우 Davis(1971)가 제시한 기준에 따라서 상관계수의 해석기준을 적용하였다.

연구문제 1에서는 탈북 고등학생들의 진로정체감, 문화적응 스트레스, 진로장벽, 사회적 지지 수준을 구명하기 위해 평균, 표준편차 등의 기술통계를 활용하였으며,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집단 간 차이를 분석하기 위하여 독립표본 t검정을 활용하였다.

연구문제 2에서는 탈북 고등학생의 문화적응 스트레스와 진로장벽이 진로정체감에 미치는 영향력을 구명하기 위해서 상관분석과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문제 3에서는 탈북 고등학생의 문화적응 스트레스와 진로정체감의 관계에서 진로장벽의 매개효과를 구명하기 위해 Process macro model 4를 활용한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문제 4에서는 탈북 고등학생의 문화적응 스트레스와 진로장벽, 진로정체감의 관계에서 사회적 지지의 조절효과를 구명하기 위해 Process macro model 8을 활용한 조절효과 분석을 실시하였다. 이 연구에서 활용된 분석 방법을 종합하면 <표 Ⅲ-9>와 같다.

<표 Ⅲ-9> 연구 문제별 분석 방법

연구문제	분석 방법
연구 문제 1. 탈북 고등학생의 진로정체감, 문화적응스트레스, 진로장벽, 사회적 지지의 수준은 어떠한가?	
1-1. 탈북 고등학생의 진로정체감의 수준은 어떠한가?	기술통계, 독립표본 t-test
1-2. 탈북 고등학생의 문화적응 스트레스의 수준은 어떠한가?	
1-3. 탈북 고등학생의 진로장벽의 수준은 어떠한가?	
1-4. 탈북 고등학생의 사회적 지지의 수준은 어떠한가?	
1-5. 탈북 고등학생의 진로정체감, 문화적응스트레스, 진로장벽, 사회적 지지의 수준은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라 차이가 있는가?	
연구 문제 2. 탈북 고등학생의 문화적응스트레스, 진로장벽은 진로정체감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가?	
2-1. 탈북 고등학생의 문화적응 스트레스는 진로정체감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가?	중다 회귀분석
2-2. 탈북 고등학생의 진로장벽은 진로정체감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가?	
연구 문제 3. 탈북 고등학생의 문화적응스트레스와 진로정체감의 관계에서 진로장벽이 매개효과를 가지는가?	
3-1. 탈북 고등학생의 문화적응스트레스와 진로정체감의 관계에서 진로장벽이 매개효과를 가지는가?	PROCESS macro model 4를 활용한 매개효과 분석
연구 문제 4. 탈북고등학생의 문화적응스트레스, 진로장벽, 진로정체감의 관계를 사회적 지지가 조절하는가?	
4-1. 탈북고등학생의 문화적응스트레스, 진로장벽, 진로정체감의 관계에서 사회적 지지가 조절변인으로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가?	PROCESS macro model 8를 활용한 조절효과 분석
4-2. 탈북고등학생의 문화적응 스트레스, 진로정체감의 관계에서 진로장벽의 매개효과를 사회적 지지가 조절하는가?	

Ⅳ. 연구 결과

1. 자료의 일반적 특성

이 연구에서 분석한 진로정체감과 문화적응 스트레스, 진로장벽, 사회적 지지의 기술통계량은 다음 <표 Ⅳ-1>과 같다. 진로정체감의 평균 점수는 3.12점으로 확인되었으며 최댓값 5.00 최솟값 1.00이었다. 하위요인인 자신의 이해는 평균 3.20점, 최댓값 5.00 최솟값 1.00이었으며 직업정보의 이해 평균 2.92점, 최댓값 5.00 최솟값 1.00, 능력·자신감 평균 3.47점, 최댓값 5.00 최솟값은 1.00이었다. 문화적응 스트레스의 평균 점수는 2.36점이며 최댓값은 5.00 최솟값 1.00이었다. 하위요인의 경우 이질감 평균 2.08점, 최댓값 5.00 최솟값 1.00, 문화충격 평균 2.31점, 최댓값 5.00 최솟값 1.00이었고 차별 평균 2.32점, 최댓값 5.00 최솟값 1.00, 주변화 평균 2.27점, 최댓값 5.00, 최솟값 1.00, 향수 평균 2.92점 최댓값 5.00 최솟값 1.00으로 나타났다. 진로장벽의 평균 점수는 2.28점으로 최댓값 4.28 최솟값 1.00이었다. 하위요인 중 자기이해 부족 평균 2.55점, 최댓값 5.00 최솟값 1.00, 자신감 부족 평균 2.32점, 최댓값 5.00 최솟값 1.00이었다. 중요한 타인과의 갈등 평균은 2.35점 최댓값 4.20 최솟값 1.00, 직업정보의 부족 평균 2.42점, 최댓값 5.00 최솟값 1.00,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평균 2.46점, 최댓값 4.25 최솟값 1.00 경제적 어려움 평균 2.50점, 최댓값 5.00 최솟값 1.00, 성역할 갈등(남학생) 평균 2.63점, 최댓값 5.00 최솟값 1.00, 성역할 갈등(여학생) 평균 1.77점 최댓값 3.60 최솟값 1.00이었다. 사회적 지지의 평균 점수는 3.69점으로 최댓값 4.94 최솟값 2.00이었으며 하위요인 중 또래지지 평균 3.67점, 최댓값 5.00 최솟값 1.50, 교사지지 평균 3.71점 최댓값 5.00 최솟값 2.50으로 나타났다.

<표 Ⅳ-1> 연구에서 사용된 변인의 기술통계량

구분		최솟값	최댓값	평균	표준편차
문화적응 스트레스	전체	1.00	5.00	2.36	0.79
	이질감	1.00	5.00	2.08	0.88
	문화충격	1.00	5.00	2.31	0.97
	차별	1.00	5.00	2.32	0.99
	주변화	1.00	5.00	2.27	0.91
	향수	1.00	5.00	2.92	1.11
진로장벽	전체	1.00	4.28	2.28	0.74
	자기이해 부족	1.00	5.00	2.55	1.06
	자신감 부족	1.00	4.40	2.32	0.87
	중요한 타인과의 갈등	1.00	4.20	2.35	0.81
	직업정보의 부족	1.00	5.00	2.42	1.04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1.00	4.25	2.46	0.96
	경제적 어려움	1.00	5.00	2.50	0.99
	성역할 갈등(남자)	1.00	5.00	2.63	1.13
	성역할 갈등(여자)	1.00	3.60	1.77	0.77
시회적 지지	전체	2.00	4.94	3.69	0.54
	또래지지	1.50	5.00	3.67	0.70
	교사지지	2.50	5.00	3.71	0.55
진로정체감	전체	1.00	5.00	3.12	0.94
	자신의 이해	1.00	5.00	3.20	1.01
	직업정보의 이해	1.00	5.00	2.92	0.98
	능력·자신감	1.00	5.00	3.47	1.00

2.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진로정체감, 문화적응 스트레스, 진로장벽 및 사회적 지지의 평균 차이

가. 성별에 따른 진로정체감, 문화적응 스트레스, 진로장벽 및 사회적 지지의 평균 차이

성별에 따른 진로정체감의 인식의 수준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하기 위해 독립표본 t검증을 실시하였다. Leven의 등분산검정의 유의확률(p값)이 .05보다 클 경우 등분산을 가정하는 것을 기반으로 살펴볼 때 진로정체감 전체의 유의확률은 .859로 등분산을 충족하였으며, 성별 간 유의미한 차이가 존재하지 않았다. 또한

자신의 이해의 유의확률은 .972, 직업정보의 이해의 유의확률은 .887, 능력 · 자신감의 유의확률은 .740으로 하위요인 모두 등분산 가정을 충족하였으나, 성별 간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표 Ⅳ-2> 성별에 따른 진로정체감의 평균 차이 검증 결과

구분		빈도(명)	평균	표준편차	t
진로정체감 전체	남학생	31	2.97	0.93	-1.131
	여학생	53	3.21	0.95	
자신의 이해	남학생	31	3.03	1.01	-1.179
	여학생	53	3.30	1.00	
직업정보의 이해	남학생	31	2.74	0.96	-1.253
	여학생	53	3.02	0.98	
능력 · 자신감	남학생	31	3.45	0.93	-0.130
	여학생	53	3.48	1.04	

성별에 따른 문화적응 스트레스 수준의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하기 위해 독립표본 t검증을 실시한 결과, 문화적응 스트레스 전체의 등분산 검정 유의확률은 .872, 하위요인별 등분산 검정 유의확률의 경우 이질감 .663, 문화충격 .469, 차별 .878, 주변화 .636, 향수 .424로 등분산 가정을 충족하는 것으로 확인하였다. 검증 결과, 성별 간 문화적응 스트레스 수준은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Ⅳ-3> 성별에 따른 문화적응 스트레스의 평균 차이 검증 결과

구분			빈도(명)	평균	표준편차	t
문화적응 스트레스	전체	남학생	31	2.35	0.81	-0.138
		여학생	53	2.37	0.78	
	이질감	남학생	31	2.07	0.93	-0.061
		여학생	53	2.08	0.86	
	문화충격	남학생	31	2.24	1.04	-0.554
		여학생	53	2.36	0.93	
	차별	남학생	31	2.45	1.00	0.918
		여학생	53	2.25	0.99	
	주변화	남학생	31	2.34	0.94	0.537
		여학생	53	2.23	0.91	
	향수	남학생	31	2.72	1.14	-1.240
		여학생	53	3.03	1.09	

성별에 따른 진로장벽 인식 수준의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하기 위해 독립표본 t검증을 실시한 결과, 진로장벽 전체의 등분산 검정 유의확률은 .143, 하위요인별 등분산 검정 유의확률은 자기이해 부족 .107, 자신감 부족 .459, 중요한 타인과의 갈등 .965, 직업정보의 부족 .719,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284, 경제적 어려움 .540으로 등분산 가정을 충족하는 것으로 확인하였다. 검증 결과, 남학생과 여학생이 인식한 진로장벽은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으며(p<.05), 진로장벽의 하위요인 중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p<.05)과 성역할 갈등(p<.001)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즉,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과 성역할 갈등 높게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Ⅳ-4> 성별에 따른 진로장벽의 평균 차이 검증 결과

구분			빈도(명)	평균	표준편차	t
진로장벽	전체	남학생	31	2.54	0.82	2.524*
		여학생	53	2.13	0.65	
	자기이해 부족	남학생	31	2.80	1.22	1.683
		여학생	53	2.40	0.93	
	자신감 부족	남학생	31	2.22	0.95	-.824
		여학생	53	2.38	0.82	
	중요한 타인과의 갈등	남학생	31	2.38	0.81	.304
		여학생	53	2.32	0.82	
	직업정보의 부족	남학생	31	2.65	1.07	1.605
		여학생	53	2.28	1.01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남학생	31	2.76	1.02	2.235*
		여학생	53	2.28	0.89	
	경제적 어려움	남학생	31	2.54	1.07	.237
		여학생	53	2.48	0.95	
	성역할 갈등	남학생	31	2.63	1.13	3.742***
		여학생	53	1.77	0.78	

주) *p<.05, ***p<.001

성별에 따른 사회적 지지 인식 수준의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하기 위해 독립표본 t검증을 실시한 결과, 사회적 지지 전체의 등분산 검정 유의확률은 .955, 하위요인별 등분산 검정 유의확률은 또래지지 .357, 교사지지 .544로 등분산 가정을 충족하는 것으로 확인하였다. 검증결과, 성별에 따라서 사회적 지지 인식 수준과 또래지지에서 유의미한 차이(p<0.5)를 보였다. 즉, 여학생이 남학생에 비해 사회적 지지와 또래지지를 더 높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Ⅳ-5> 성별에 따른 사회적 지지의 평균 차이 검증 결과

구분			빈도(명)	평균	표준편차	t
사회적지지	전체	남학생	31	3.51	0.53	-2.423*
		여학생	53	3.80	0.52	
	또래지지	남학생	31	3.46	0.75	-2.147*
		여학생	53	3.80	0.65	
	교사지지	남학생	31	3.56	0.48	-1.967
		여학생	53	3.79	0.56	

주) *p<.05

나. 학교 유형에 따른 진로정체감, 문화적응 스트레스, 진로장벽 및 사회적 지지의 평균 차이

탈북 고등학생이 재학하고 있는 학교 유형에 따른 진로정체감의 인식의 수준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하기 위해 독립표본 t검증을 실시하였다. 진로정체감 전체 유의확률은 .139로 등분산을 충족하고 있으며, 하위요인별 등분산 검정 유의확률은 자신의 이해 .095, 직업정보의 이해 .222, 능력·자신감 .742로 확인되었다. 또한 탈북 고등학생이 재학하고 있는 학교의 유형에 따른 유의미한 차이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Ⅳ-6> 학교 유형에 따른 진로정체감의 평균 차이 검증 결과

구분		빈도(명)	평균	표준편차	t
진로정체감 전체	일반 고등학교	18	3.12	0.80	.011
	탈북청소년 대안학교	66	3.12	0.98	
자신의 이해	일반 고등학교	18	3.25	0.86	.246
	탈북청소년 대안학교	66	3.19	1.05	
직업정보의 이해	일반 고등학교	18	2.90	0.87	-.096
	탈북청소년 대안학교	66	2.92	1.01	
능력·자신감	일반 고등학교	18	3.39	0.93	-.389
	탈북청소년 대안학교	66	3.49	1.02	

탈북 고등학생이 재학하고 있는 학교 유형에 따라 문화적응 스트레스 수준의 차이가 있는지 분석하기 위해 독립표본 t검증을 실시하였다. 문화적응 스트레스 전체 유의확률은 .902로 등분산을 충족하고 있었으며, 하위요인별 등분산 검정 유의확률 이질감 .861, 문화충격 .617, 차별 .524, 주변화 .676, 향수 .163이었고, 탈북 고등학생의 재학 학교의 유형에 따른 유의미한 차이는 존재하지 않았다.

<표 Ⅳ-7> 학교 유형에 따른 문화적응 스트레스의 평균 차이 검증 결과

구분		빈도(명)	평균	표준편차	t
전체	일반 고등학교	18	2.16	0.79	-1.238
	탈북청소년 대안학교	66	2.42	0.78	
이질감	일반 고등학교	18	1.88	0.88	-1.116
	탈북청소년 대안학교	66	2.14	0.88	
문화충격	일반 고등학교	18	2.22	1.07	-.449
	탈북청소년 대안학교	66	2.34	0.95	
차별	일반 고등학교	18	2.11	1.11	-1.014
	탈북청소년 대안학교	66	2.38	0.96	
주변화	일반 고등학교	18	1.91	0.88	-1.950
	탈북청소년 대안학교	66	2.37	0.90	
향수	일반 고등학교	18	2.78	0.85	-.595
	탈북청소년 대안학교	66	2.95	1.18	

탈북 고등학생이 재학하고 있는 학교 유형에 따라 진로장벽 수준의 차이가 있는지 분석하기 위해 독립표본 t검증을 실시하였다. 진로장벽 전체 유의확률은 .848로서 등분산을 충족하였으며, 하위요인별 등분산 검정 유의확률은 자기이해 부족 .305, 자신감 부족 .521, 중요한 타인과의 갈등 .473, 직업정보의 부족 .656,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391, 경제적 어려움 .538, 성역할 갈등(남자) .749, 성역할 갈등(여자) .339였다. 탈북 고등학생의 재학 학교 유형에 따른 유의미한 차이는 존재하지 않았다.

<표 Ⅳ-8> 학교 유형에 따른 진로장벽의 평균 차이 검증 결과

구분		빈도(명)	평균	표준편차	t
전체	일반 고등학교	18	2.16	0.78	-.816
	탈북청소년 대안학교	66	2.32	0.73	
자기이해 부족	일반 고등학교	18	2.40	0.98	-.654
	탈북청소년 대안학교	66	2.59	1.08	
자신감 부족	일반 고등학교	18	2.29	0.91	-.179
	탈북청소년 대안학교	66	2.33	0.86	
중요한 타인과의 갈등	일반 고등학교	18	2.02	0.78	-1.938
	탈북청소년 대안학교	66	2.43	0.80	
직업정보의 부족	일반 고등학교	18	2.08	0.98	-1.542
	탈북청소년 대안학교	66	2.51	1.05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일반 고등학교	18	2.39	0.90	-.344
	탈북청소년 대안학교	66	2.48	0.98	
경제적 어려움	일반 고등학교	18	2.50	1.13	-.019
	탈북청소년 대안학교	66	2.51	0.96	
성역할 갈등(남자)	일반 고등학교	18	2.28	1.14	-1.021
	탈북청소년 대안학교	66	2.75	1.13	
성역할 갈등(여자)	일반 고등학교	18	1.66	0.86	-.483
	탈북청소년 대안학교	66	1.79	0.75	

탈북 고등학생이 재학하고 있는 학교 유형에 따라 사회적 지지 인식 수준의 차이가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독립표본 t검증을 실시한 결과, 사회적 지지의 전체 등분산 검정 유의확률은 .796 하위요인별 등분산 검정 유의확률은 또래지지 .944, 교사지지 .849로 등분산 가정을 충족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검증결과, 탈북 고등학생 재학 학교의 유형에 따른 유의미한 차이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Ⅳ-9> 학교 유형에 따른 사회적 지지의 평균 차이 검증 결과

구분		빈도(명)	평균	표준편차	t
전체	일반 고등학교	18	3.77	0.55	.745
	탈북청소년 대안학교	66	3.67	0.54	
또래지지	일반 고등학교	18	3.81	0.67	.895
	탈북청소년 대안학교	66	3.64	0.71	
교사지지	일반 고등학교	18	3.74	0.58	.316
	탈북청소년 대안학교	66	3.70	0.54	

다. 가족의 동거 여부에 따른 진로정체감, 문화적응 스트레스, 진로장벽, 사회적 지지의 평균 차이

탈북 고등학생의 가족 동거 여부에 따른 진로정체감의 인식의 수준 차이가 있는지 분석하기 위해 독립표본 t검증을 실시하였다. 진로정체감 전체유의확률은 .302로 등분산을 충족하였으며, 하위요인에 따른 등분산 검정 유의확률은 자신의 이해 .462, 직업정보의 이해 .248, 능력·자신감 .191로 확인되었다. 또한 가족의 동거 여부에 따른 유의미한 차이를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Ⅳ-10> 가족의 동거 여부에 따른 진로정체감의 평균 차이 검증 결과

구분		빈도(명)	평균	표준편차	t
진로정체감 전체	가족 동거	65	309	0.98	-.468
	무연고	19	3.21	0.83	
자신의 이해	가족 동거	65	3.17	1.04	-.592
	무연고	19	3.32	0.91	
직업정보의 이해	가족 동거	65	2.91	1.01	-.192
	무연고	19	2.95	0.90	
능력·자신감	가족 동거	65	3.44	1.03	-.539
	무연고	19	3.58	0.90	

탈북 고등학생의 가족 동거 여부에 따른 문화적응 스트레스의 수준 차이가 있는지 분석하기 위해 독립표본 t검증을 실시하였다. 문화적응 스트레스의 하위요인에 따른 등분산 검정 유의확률은 이질감 .107, 문화충격 .802, 주변화 .852로 확인되었으며, 하위요인 중 향수의 경우 무연고인 탈북 고등학생의 경우 가족과 동거하는 탈북 고등학생 보다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p<.01$).

<표 Ⅳ-11> 가족의 동거 여부에 따른 문화적응 스트레스의 평균 차이 검증 결과

구분		빈도(명)	평균	표준편차	t
전체	가족 동거	65	2.31	0.84	-1.182
	무연고	19	2.55	0.53	
이질감	가족 동거	65	2.06	0.93	-.434
	무연고	19	2.16	0.71	
문화충격	가족 동거	65	2.31	0.99	-.012
	무연고	19	2.32	0.91	
차별	가족 동거	65	2.30	1.06	-.500
	무연고	19	2.40	0.73	
주변화	가족 동거	65	2.22	0.92	-1.085
	무연고	19	2.47	0.90	
향수	가족 동거	65	2.74	1.11	-3.193**
	무연고	19	3.53	0.89	

주) *p<.01

탈북 고등학생의 가족 동거 여부에 따른 진로장벽의 수준 차이가 있는지 분석하기 위해 독립표본 t검증을 실시하였다. 진로장벽의 하위요인에 따른 등분산 검정 유의확률은 자신의 이해 부족 .282, 자신감 부족 .053, 중요한 타인과의 갈등 .104, 직업조의 부족 .308,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540, 경제적 어려움 .268, 성역할 갈등(여학생) .578로 확인되었다. 또한 가족의 동거 여부에 따른 탈북 고등학생의 진로장벽 수준은 유의미한 차이를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Ⅳ-12> 가족의 동거 여부에 따른 진로장벽의 평균 차이 검증 결과

구분		빈도(명)	평균	표준편차	t
전체	가족 동거	65	2.29	0.76	.050
	무연고	19	2.28	0.70	
자기이해 부족	가족 동거	65	2.58	1.08	.0468
	무연고	19	2.45	1.01	
자신감 부족	가족 동거	65	2.28	0.92	-.869
	무연고	19	2.47	0.63	
중요한 타인과의 갈등	가족 동거	65	2.28	0.86	-1.437
	무연고	19	2.58	0.60	
직업정보의 부족	가족 동거	65	2.40	1.00	-.332
	무연고	19	2.49	1.20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가족 동거	65	2.47	0.97	.258
	무연고	19	2.41	0.95	
경제적 어려움	가족 동거	65	2.50	1.04	-.024
	무연고	19	2.51	0.83	
성역할 갈등(남자)	가족 동거	65	2.53	0.98	-.715
	무연고	19	3.25	1.97	
성역할 갈등(여자)	가족 동거	65	1.75	0.76	-.201
	무연고	19	1.80	0.80	

탈북 고등학생의 가족 동거 여부에 따른 사회적 지지의 수준 차이가 있는지 분석하기 위해 독립표본 t검증을 실시하였다. 하위요인에 따른 등분산 검정 유의확률은 또래지지 .815, 교사지지 .115로 확인되었다. 탈북 고등학생의 가족의 동거 여부에 따른 유의미한 차이를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Ⅳ-13> 가족의 동거 여부에 따른 사회적 지지의 평균 차이 검증 결과

구분		빈도(명)	평균	표준편차	t
전체	가족 동거	65	3.69	0.56	.030
	무연고	19	3.69	0.46	
또래지지	가족 동거	65	3.71	0.70	.903
	무연고	19	3.55	0.72	
교사지지	가족 동거	65	3.67	0.57	-1.111
	무연고	19	3.83	0.46	

3. 탈북 고등학생의 문화적응 스트레스와 진로장벽, 진로정체감, 사회적 지지의 영향관계

가. 연구변인 간 상관관계

다음의 <표 Ⅳ-14>와 같이, 본 연구의 종속변인인 진로정체감과 독립변인인 진로장벽, 문화적응 스트레스, 사회적 지지 모두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Davis(1971)가 제시한 기준에 따라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진로장벽은 진로정체감과 매우 높은 부적 상관관계(r=-.754, p<.01)를 보였고 문화적응 스트레스는 진로정체감과 중간 정도의 부적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r=-.482, p<.01). 사회적 지지의 경우 낮은 상관관계를 보였다(r=.298, p<.01).

이 연구의 독립변인인 진로장벽은 문화적응 스트레스와 높은 정적 상관관계(r=.699, p<.01)를 보였고, 사회적 지지는 중간 정도의 부적 상관(r=-.317, p<.01)을 보였다. 이 연구의 독립변인 문화적응 스트레스 역시 사회적 지지와 중간 정도의 부적 상관관계(r=-.348, p<.01)를 보였다. 또한 각 변인의 하위요인별 상관관계는 다음 표<Ⅳ-15>와 같다.

<표 Ⅳ-14> 연구변인 간 상관관계 분석 결과

변인	평균	표준편차	1	2	3	4
1. 진로정체감	3.12	0.94	1			
2. 문화적응 스트레스	2.36	0.79	-.482**	1		
3. 진로장벽	2.28	0.74	-.754**	.699**	1	
4. 사회적 지지	3.69	0.54	.298**	-.348**	-.317**	1

주) **p<.01

<표 Ⅳ-15> 연구변인 하위요인 간 상관관계 분석 결과

하위요인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	1																
2	.891**	1															
3	.725**	.710**	1														
4	-.435**	-.381**	-.488**	1													
5	-.411**	-.322**	-.480**	.779**	1												
6	-.575**	-.536**	-.626**	.761**	.647**	1											
7	-.462**	-.423**	-.505**	.625**	.643**	.632**	1										
8	-.040	-.054	-.274*	.394**	.439**	.406**	.440**	1									
9	-.861**	-.780**	-.691**	.490**	.505**	.591**	.532**	.068	1								
10	-.606**	-.620**	-.604**	.633**	.657**	.717**	.692**	.280**	.705**	1							
11	-.498**	-.457**	-.424**	.585**	.513**	.546**	.536**	.102	.589**	.670**	1						
12	-.710**	-.618**	-.551**	.490**	.499**	.532**	.592**	.131	.788**	.597**	.538**	1					
13	-.673**	-.676**	-.583**	.510**	.475**	.498**	.556**	.179	.773**	.670**	.640**	.781**	1				
14	-.398**	-.401**	-.444**	.401**	.554**	.393**	.447**	.259*	.444**	.563**	.603**	.456**	.530**	1			
15	-.738**	-.708**	-.652**	.657**	.643**	.686**	.661**	.219*	.840**	.824**	.838**	.808**	.867**	.683**	1		
16	.248*	.145	.344**	-.168	-.132	-.280**	-.238*	-.238*	-.260*	-.215*	-.108	-.262*	-.131	-.150	-.209	1	
17	.302**	.204	.425**	-.384**	-.285**	-.465**	-.426**	-.426**	-.340**	-.366**	-.263*	-.275*	-.271*	-.193	-.371**	.475**	1

주) *p<.05, **p<.01

주) 1=자신의 이해, 2=직업정보의 이해, 3=능력・자신감, 4=이질감, 5=문화충격, 6=차별, 7=주변화, 8=향수, 9=자기이해 부족, 10=자신감 부족,11=중요한 타인과의 갈등, 12=직업정보의 부족, 13=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14=경제적 어려움, 15=성역할 갈등, 16=또래지지, 17=교사지지

나. 다중공선성 진단

다중공선성은 독립변인 간 상관이 지나치게 높은 경우에 발생하며, 이 경우 회귀계수를 설명하는데 오류를 범하게 된다. 대부분의 사회과학 연구에서 독립변인 간에 상관을 전제하기 때문에 완전한 무상관은 존재할 수 없으나, 상관이 완전하게 일치한 변인을 통해서는 역행렬을 구할 수 없고, 상관이 높을 때 신뢰할 수 없는 역행렬이 산출되기 때문에 회귀분석을 수행함에 있어 다중공선성을 여부를 진단할 필요가 있다(양병화, 2006). 최동선(2003)은 다중공선성이 지나치게 높은 경우, 개별 변인의 변량 해석이 모호해져 회귀계수를 비교하는 것이 무의미해지고 표본 사례 수의 변화와 같은 자료의 미세한 변화에 따라 커다란 표준오차를 갖게 되며, 변인 투입 순서에 따라 종속변인을 설명하는 변량에 큰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고 하였다.

다중공선성 여부를 진단하기 위해, 일반적으로 공차한계(tolerance)와 분산팽창지수(VIF)를 활용하는데 공차한계가 0에 가까울수록, 분산팽창지수가 10을 넘어갈 경우 다중공선성 문제가 있다고 볼 수 있다(김선근, 2017). 다음의 <표 Ⅳ-16>과 같이 공차한계가 .493~.868, 분산팽창지수가 1.152~2.028로 확인된 것으로 볼 때, 독립변인간 상관관계가 다중공선성을 유발하는 수준이 아님을 의미한다.

<표 Ⅳ-16> 다중공선성 진단

종속변인	독립변인	공차한계(Tolerance)	분산팽창지수(VIF)
진로정체감	문화적응 스트레스	.493	2.028
	진로장벽	.505	1.982
	사회적 지지	.868	1.152

다. 탈북 고등학생의 진로정체감과 문화적응 스트레스, 진로장벽 및 사회적 지지의 영향관계

탈북 고등학생이 인식한 진로정체감에 대한 문화적응 스트레스와 진로장벽의 영향관계를 구명하기 위해, 문화적응 스트레스와 진로장벽을 독립변인으로 설정하여 종속변인인 진로정체감에 대한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다음 <표 Ⅳ-17>과 같이, 문화적응 스트레스와 진로장벽을 동시에 투입한 결과, F값은 54.240으로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p<.001)으로 나타났다. 설명량은 .573으로 문화적응 스트레스와 진로장벽을 투입함으로써 설명량은 .562 증가하였다. 문화적응 스트레스의 표준화 회귀계수는 .089으로 나타났으나 유의하지 않았고, 진로장벽의 표준화 회귀계수는 -.816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한(p<.001)것으로 나타났다.

<표 Ⅳ-17> 진로정체감에 대한 문화적응 스트레스 및 진로장벽의 회귀분석 결과

변인		진로정체감	
		모형1	
		β	t
독립변인	문화적응 스트레스	.089	.873
	진로장벽	-.816***	-8.028***
R^2		.573	
$\triangle R^2$		.562***	
F		54.240	

주) ***p<.001

4. 탈북 고등학생의 문화적응 스트레스와 진로정체감의 관계에서 진로장벽의 매개효과

탈북 고등학생의 문화적응 스트레스와 진로정체감의 관계에서 진로장벽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PROCESS model 4를 활용하여 검정을 실시하였다. 다음의 <표 Ⅳ-18>과 같이, 진로장벽을 종속변수로 설정한 모형에서는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진로장벽에 유의미한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β=.6611, p<.05). 진로정체감을 종속변인으로 설정한 모형에서는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진로장벽에 미치는 영향은 유의하지 않았고(β=.1063, p= .3855), 매개변인인 진로장벽은 진로정체감에 유의미한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β= -1.0350, p<.05).

<표 Ⅳ-18> 문화적응 스트레스와 진로정체감의 관계에서 진로장벽의 매개효과 분석결과(Model 4)

변인		종속변인					
		진로장벽			진로정체감		
		coeff	LLCI	ULCI	coeff	LLCI	ULCI
독립변인	문화적응 스트레스	.6611*	.5127	.8096	.1063	-.1361	.3488
매개변인	진로장벽	-	-	-	-1.0350*	-1.2915	-.7785
$\triangle R^2$		.4892*			.5725*		
F		78.5402			54.240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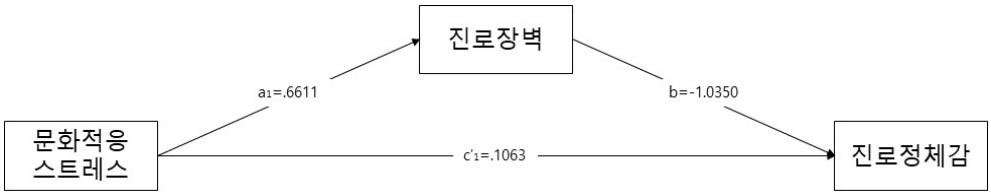
주) *p<.05

다음의 <표 Ⅳ-19>과 같이 10,000개의 부트스트랩 표본에 입각한 직접효과(c′)는 .1063으로 나타났고, 직접효과의 편의수정 부트스트랩 신뢰구간에서 0을 포함하여(-.1361~.3488)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10,000개의 부트스트랩 표본에 입각한 간접효과(ab)는 -.6843이었으며, 편의수정 부트스트랩 신뢰구간(-.9770~.4514)에 0을 포함하지 않아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직접효과와 간접효과, 그리고 총효과의 분석 결과를 볼 때, 진로장벽과 문화적응 스트레스의 관계에서 진로장벽은 완전 매개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 Ⅳ-19> 문화적응 스트레스와 진로정체감의 관계에서 진로장벽의 직접효과, 간접효과 및 총효과와 유의수준

독립변인	직접효과 (LLCI, ULCI)	간접효과 (LLCI, ULCI)	총효과 (LLCI, ULCI)
문화적응 스트레스	.1063 (-.1361, .3488)	-.6843* (-.9770, -.4514)	-.5780* (-.8087, -.3472)

주) *p<.05



〔그림 Ⅳ-1〕 문화적응스트레스와 진로정체감의 관계에서 진로장벽의 매개효과 검증 모형

5. 탈북 고등학생의 문화적응 스트레스, 진로장벽, 진로정체감의 관계에서 사회적 지지의 조절효과

탈북 고등학생의 문화적응 스트레스와 진로장벽, 진로정체감의 관계에서 사회적 지지의 조절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SPSS PROCESS의 model 8을 활용하여 부트스래핑을 실시하였다. 다음의 <표 Ⅳ-20>과 같이, 진로장벽과 문화적응 스트레스의 관계에서 사회적 지지는 조절효과를 갖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반면, 진로정체감과 문화적응 스트레스의 관계에서 사회적 지지는 조절효과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속변인이 진로장벽인 모형1에서, 문화적응 스트레스의 계수는 .6168이었고 LLCI 값은 .4479 ULCI 값은 .7856로 0을 포함하지 않아 유의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사회적 지지 계수는 -.1498로 나타났고 LLCI 값은 -.4093, ULCI 값은 .1097로 나타나 0을 포함하여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문화적응 스트레스와 사회적 지지의 상호작용항의 계수는 -.0835으로 나타났고 LLCI 값은 -.3648, ULCI 값은 .1978로 나타나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종속변인이 진로정체감인 모형2에서, 문화적응 스트레스의 계수는 .1971로 나타났고 LLCI 값 -.0481, ULCI값은 .4422로 나타나 0을 포함하여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적 지지 계수는 .3051로 나타났고 LLCI 값은 .0103, ULCI 값은 .5999로 나타나 유의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문화적응 스트레스와 사회적 지지의 상호작용항의 계수는 .3962로 나타났으며, LLCI 값이 .0785, ULCI 값 .7138로 나타나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진로장벽의 계수는 -.9997로 나타났고 LLCI 값은 -1.2504, ULCI 값은 -.7491로 확인되었으며,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Ⅳ-20> 문화적응 스트레스의 진로정체감의 관계에서 사회적 지지에 의해 조절된 진로장벽의 매개효과(Model 8)

변인		모형1: 진로장벽			모형2: 진로정체감		
		coeff	LLCI	ULCI	coeff	LLCI	ULCI
독립변인	문화적응 스트레스	.6168*	.4479	.7856	.1971	-.0481	.4422
	사회적 지지	-.1498	-.4093	.1097	.3051*	.0103	.5999
	문화적응 스트레스 x 사회적 지지	-.0835	-.3648	.1978	.3962*	.0785	.7138
	진로장벽				-.9997*	-1.2504	-.7491
R		.7054			.7802		
$\triangle R^2$		.4976*			.6087*		
F		26.4081			30.718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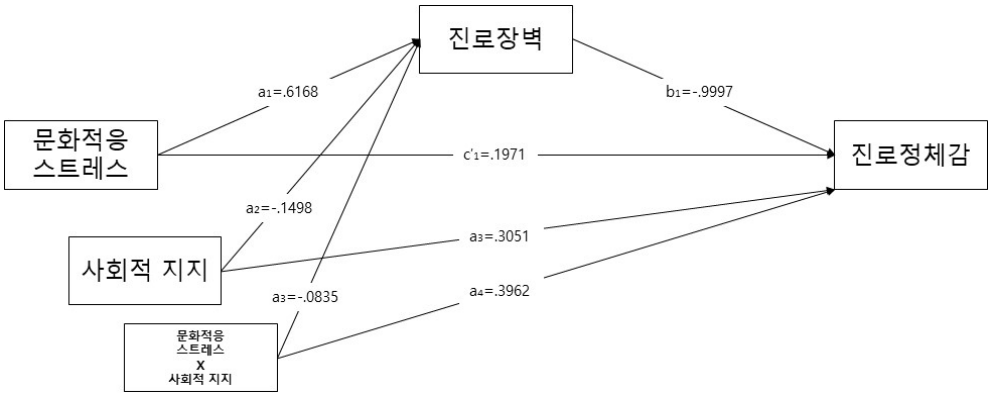
주) *p<.05

다음의 <표 Ⅳ-21>과 같이 조절된 매개효과지수는 .0835로서 조절된 매개효과는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조건부 간접효과를 확인한 결과, 사회적 지지가 -1SD(-.5369)일 때, 간접효과가 -.6664로 나타났으며 LLCI값 -.9862 ULCI값 -.3721로 0을 포함하지 않아 조건부 간접효과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적 지지가 평균일 때는 간접효과가 -.6616로 나타났으며 LLCI값 -.8984 및 ULCI값 -.3433로 0을 포함하지 않아 사회적 지지가 평균 수준의 집단에서 조건부 간접효과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1SD(.5369)일 때 간접효과는 -.5718로 나타났으며 LLCI값 -.9075, ULCI값 -.1530으로 0을 포함하지 않아 사회적 지지가 평균보다 1표준편차 높은 수준의 집단에서 조건부 간접효과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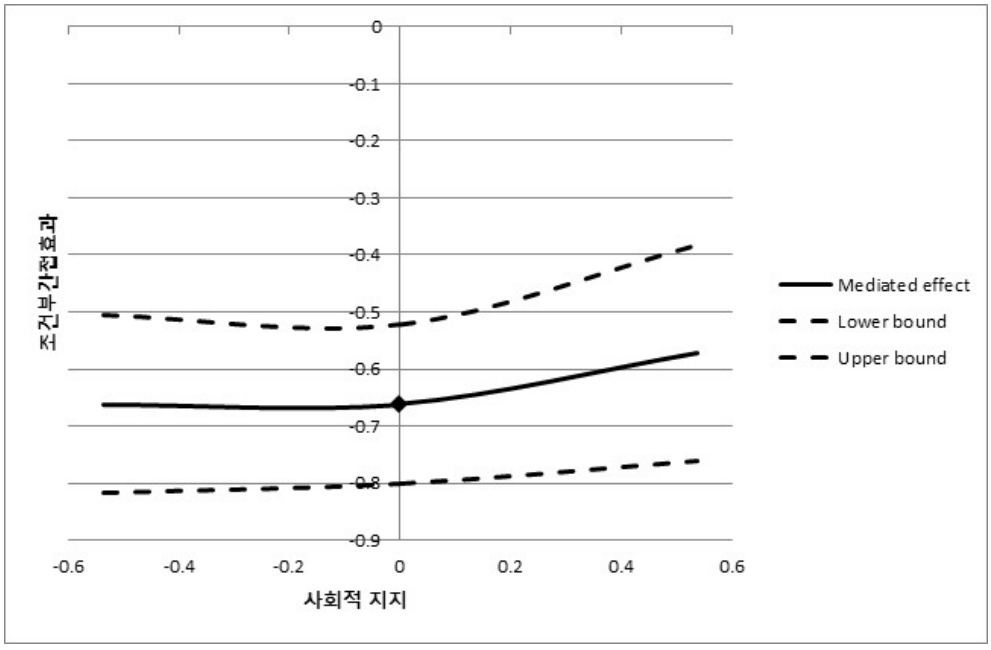
<표 Ⅳ-21> 사회적 지지에 의한 조건부 간접효과의 계수 및 유의수준

사회적 지지	조절변수의 평균값과 ± 1SD의 조건부 간접효과			
	Effect	Boot SE	Boot LLCI	Boot ULCI
-1SD(.5369)	-.6614*	.1552	-.9862	-.3721
Mean(.0000)	-6616.*	.1391	-.8984	-.3433
+1SD(.5369)	-.5718*	.1899	-.9075	-.1530
조절된 매개효과지수	.0835	.1927	-.2334	.5243

주) *p<.05



〔그림 Ⅳ-2〕 문화적응 스트레스와 진로정체감의 관계에서 사회적 지지에 의해 조절된 진로장벽의 매개효과 검증 모형



〔그림 Ⅳ-3〕 사회적 지지의 크기에 따른 진로정체감에 대한
문화적응 스트레스의 조건부 간접효과

6. 논의

이 연구의 목적은 탈북 고등학생의 진로정체감과 문화적응 스트레스, 진로장벽, 사회적 지지의 관계를 구명하는데 있다. 이 연구의 결과는 탈북 고등학생의 진로정체감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적, 사회·문화적 요인의 영향 관계를 구명함으로써 탈북 고등학생의 문화적응과 진로정체감 발달을 위한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 도출된 연구결과를 토대로 주요 논의사항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가. 탈북 고등학생의 문화적응 스트레스, 진로장벽, 사회적 지지 및 진로정체감의 수준과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차이

이 연구에서는 탈북 고등학생의 문화적응 스트레스, 진로장벽, 사회적 지지 및 진로정체감의 수준을 확인하였다. 진로정체감의 평균 점수는 3.12점으로 확인되었으며 하위요인인 자신의 이해는 3.20점, 직업정보의 이해 2.92점, 능력·자신감 3.47점으로 나타났다. 문화적응 스트레스의 평균 점수는 2.36점이었으며 하위요인인 이질감 2.08점, 문화충격 2.31점, 차별 2.32점, 주변화 2.27점, 향수 2.92점으로 나타났다. 진로장벽의 평균 점수는 2.28점으로 하위요인인 자기이해 부족 2.55점, 자신감 부족 2.32점, 중요한 타인과의 갈등 2.35점, 직업정보의 부족 2.42점,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2.46점, 경제적 어려움 2.50점, 성역할 갈등(남학생) 2.63점, 성역할 갈등(여학생) 1.77점으로 나타났다. 사회적 지지의 평균 점수는 3.69점으로 하위요인인 또래지지 3.67점, 교사지지 3.71점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다음의 네 가지 논의로 제시될 수 있다. 첫째, 탈북 고등학생의 진로정체감 수준은 보통 수준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진로정체감의 하위요인을 살펴보면, 탈북 고등학생이 지각하는 능력·자신감 3.47점, 자신의 이해는 3.18점이었으나, 직업정보의 이해는 2.92점으로 보통 수준보다 낮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탈북 청소년들이 직업선택의 자유와 선택권이 제한되어 있는

북한에서 자신의 적성을 발견하고 개발할 기회를 갖기 어렵다는 것과, 장기간의 탈북 과정으로 인한 오랜 학습 공백, 남·북한의 상이한 대학입시제도 등으로 인해 어떻게 자신의 진로를 준비해야 하는지 정보가 부족하여 진로개발에 있어 어려움을 겪게 된다는 선행연구 결과와 일치한다(박세훈, 2009, 조정아, 2005; 좌동훈 외, 2016).

둘째, 탈북 고등학생이 자각하는 문화적응 스트레스는 2.36점으로 다소 낮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문화적응 스트레스의 하위요인별 평균 점수는 이질감 2.08점, 문화충격 2.31점, 차별 2.32점, 주변화 2.27점, 향수 2.92점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탈북 청소년들이 탈북 이후 제3국 또는 한국 생활에 도전하는 도전정신, 탈북 과정에서의 힘들고 어려운 생활을 이겨내면서 남한 사회에 성공적으로 정착하여 적응하려는 자세로 인해 위기대처관리가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사회적 규범과 규칙에 대해 우선적으로 지키려 한다는 점, 남한으로 이동이라는 개인의 삶에 있어 매우 큰 변화를 받아들이는 능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 선행연구 결과와 일치한다(좌동훈 외, 2016).

다만, 무연고 탈북 고등학생과 느끼는 향수는 평균 3.53점으로서, 친부모나 형제·자매, 친척 등 가족들과 함께 동거하고 있는 학생보다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 결과는 무연고 탈북청소년의 경우 부모에 대한 그리움과 외로움, 북한에 두고 온 가족들에 대한 죄책감으로 심리적인 고통을 겪게 된다는 선행연구 결과와 일치한다(전우택, 2000; 최명선 외, 2006).

셋째, 탈북 고등학생이 지각한 진로장벽의 평균 점수는 2.28점으로 하위요인인 자기이해 부족 2.55점, 자신감 부족 2.32점, 중요한 타인과의 갈등 2.35점, 직업정보의 부족 2.42점,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2.46점, 경제적 어려움 2.50점, 성역할 갈등(남학생) 2.63점, 성역할 갈등(여학생) 1.77점으로 나타났다. 남학생의 경우 여학생보다 유의미하게 성역할 갈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전통적인 유교적 관념의 가부장제 성격이 강한 북한(김석향 외, 2019; 이나영, 2012)에서 배우고 익혔던 사고의 영향으로 볼 수 있다.

북한에서의 성역할은 사회제도 등에서 양성평등에 대한 가치관을 표명하는

것과 달리 성별에 따라 바람직한 성격과 행동, 몸가짐 태도, 개인의 사적 부분에 있어 성차별적인 가치관을 보인다(정진경, 2002). 이러한 결과는 북한 사회의 가부장적인 모습에서 기인한 남녀의 차별적 성향으로 인해 탈북 청소년들의 성인지가 가장 낮게 나타난 선행연구의 결과와 일치한다(좌동훈 외, 2016).

넷째, 탈북 고등학생이 지각하는 사회적 지지 평균 점수는 3.69점으로 나타났으며 하위요인 또래지지 3.67점, 교사지지 3.71점으로서 다른 관찰변인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확인되어 상대적으로 사회적 지지를 높게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남학생 대비 여학생이 지각한 사회적 지지와 또래지지가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탈북 고등학생 재학 학교의 유형 및 가족의 동거 여부에 따른 유의미한 차이는 존재하지 않았다.

나. 탈북 고등학생의 문화적응 스트레스와 진로장벽, 진로정체감의 영향관계

연구문제 2에 따라 탈북 고등학생의 진로정체감, 문화적응 스트레스, 진로장벽의 영향관계를 구명하기 위해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문화적응 스트레스는 진로정체감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은 반면, 진로장벽은 진로정체감에 유의미한 수준에서 부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β=−.816, P<.001). 이러한 분석결과는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진로정체감에 유의미한 부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힌 선행연구(어욘치맥, 2018)와 다른 결과이다.

진로정체감과 문화적응 스트레스의 관계를 탐구한 어욘치맥(2018)의 연구대상은 한국인과 재혼한 가정 중 한국에서 태어나지 않은 자녀, 몽골인 근로자 부모의 자녀 중 본국에서 태어나 살다가 학령기에 한국으로 입국한 자녀들 중 연구에 동의한 만13~24세의 몽골 이주배경 청소년이었다. 탈북 고등학생과 몽골 이주배경 청소년은 모두 '학령기의 이주'라는 측면에서 유사점을 갖지만, 탈북 고등학생의 경우 남한과 같은 언어와 문자, 역사·문화적 배경의 동질성을 지니고 있으며, 탈북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대안학교 운영, 일반학교 내 탈북교사로

구성된 탈북학생 전담 코디네이터 배치를 통한 학교적응 지원, 각종 종교·NGO 단체에서 제공하는 교육 프로그램 등이 있기 때문에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진로정체감에 직접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추정해볼 수 있다.

한편, 진로장벽이 진로정체감에 유의미한 부적영향을 미친 것은 선행연구(김경미 외, 2014; 박은선, 박혜훈, 2019; 심효주, 2017; 이순영, 2007)를 지지하는 결과이다. 이는 한 개인이 자신의 진로목표를 방해하는 요인인 진로장벽을 낮게 인식할수록 진로정체감이 높고, 진로장벽을 높게 인식할수록 자신의 진로에 대한 확신이 적어 진로정체감이 낮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진로장벽을 높게 지각할수록 진로준비 행동수준이나 진로발달이 낮게 나타난다는 선행연구 결과(김민정, 2016; 박은선, 박혜훈, 2019; 유수복, 2013)와 일치한다.

다. 탈북 고등학생의 문화적응 스트레스와 진로정체감의 관계에서 진로장벽의 매개효과

연구문제 3에 대한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종속변인을 진로정체감으로 설정하였으며, 문화적응 스트레스를 독립변인으로, 진로장벽을 매개변인으로 설정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PROCESS macro model 4를 활용하여 분석을 실시한 결과, 탈북 고등학생의 진로정체감과 문화적응 스트레스의 관계에서 진로장벽이 완전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탈북 고등학생이 지각한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진로정체감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보다 남한 사회에서의 진로장벽을 더 크게 인지하도록 하여 진로정체감 발달에 부적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진로장벽을 높게 느낄수록 진로결정 수준이나 진로정체감이 낮아진다는 선행연구를 지지하는 결과이다(김은영, 2001; 박은선, 박혜훈, 2019; 손은령, 2001; 손은령, 손진희, 2005; 전연숙, 강혜영, 2009).

라. 탈북 고등학생의 문화적응 스트레스와 진로장벽, 진로정체감의 관계에서 사회적 지지의 조절효과

연구문제 4에 대한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종속변인을 진로정체감으로 설정하였으며, 문화적응 스트레스를 독립변인으로, 진로장벽을 매개변인으로 설정한 후 사회적 지지를 조절변인으로 설정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PROCESS macro의 model 8을 활용하여 분석을 실시한 결과, 진로장벽과 문화적응 스트레스의 관계에서 사회적 지지는 조절효과를 갖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문화적응 스트레스와 진로정체감의 관계에서 사회적 지지는 조절효과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문화적응 스트레스와 진로정체감의 관계에서 사회적 지지에 의한 진로장벽의 조절된 매개효과는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상기 결과는 탈북 고등학생의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높아질수록 진로장벽이 높아지는 것을 사회적 지지가 조절하지 못하고 있음을 의미하며, 관계·심리적 차원의 사회적 지지가 탈북 고등학생이 진로장벽에 대응하는데 있어서 큰 도움을 주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탈북 고등학생의 경우, 탈북 이후 남한으로 입국하기까지의 과정을 통해 생사를 오가는 경험을 하게 되고 제 3국에서의 강제북송 및 구타, 수용소 수감, 현장사살로 인한 가족해체와 PTSD를 겪게 된다. 따라서 이러한 배경으로 인해 더 많은 개인적인 어려움을 갖고 있으며, 사회적 지지가 이러한 탈북 고등학생이 갖는 특수한 맥락에서 비롯되는 문화적응 스트레스와 진로장벽 관계를 조절하지 못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V. 요약, 결론 및 제언

1. 요약

이 연구의 목적은 탈북 고등학생의 문화적응 스트레스와 진로장벽, 진로정체감, 사회적 지지의 관계를 구명하는 데 있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첫째, 탈북 고등학생의 진로정체감, 문화적응 스트레스, 진로장벽, 사회적 지지의 수준을 파악하였으며, 성별 및 재학 학교 유형에 따라 변인별 수준 차이가 있는지 검증하였다. 둘째, 탈북 고등학생의 문화적응 스트레스, 진로장벽, 진로정체감의 관계를 구명하였다. 셋째, 문화적응 스트레스과 진로정체감의 관계에서 진로장벽의 매개효과를 검증하였다. 넷째, 탈북 고등학생의 문화적응 스트레스, 진로장벽, 진로정체감의 관계에서 사회적 지지의 조절효과를 검증하였다.

이 연구의 모집단은 국내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북한 출생 고등학생이다. 한국교육개발원 탈북청소년교육지원센터에서 2021년 9월 29일 공개한 통계자료에 의하면, 2021년 4월 기준 총 355명의 북한 출생 고등학생이 재학하고 있었으며, 본 조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총 91명의 북한 출생 학생들이 탈북청소년 대안학교의 고등학생 학급에 재학 중인 것으로 집계되어, 국내 탈북 고등학생의 수는 446명으로 추산된다.

중다회귀분석 활용 시 적정 사례 수에 대한 일치된 의견은 없으나, 박원우 외(2010)와 Tabachnick & Fidell(2007)은 측정변인과 사례 수의 비율을 약 1:20으로 권장하였다. 또한 50+8 X 독립변인 수를 적정 사례로 Babara & Linda(2001) 및 Keith(2019)의 제안과 관찰변인과 전체 사례 수의 비율이 1:15 수준으로 되어야 예측 변수의 검증력 확보가 가능하다는 Stevens(2009)의 주장에 근거하여 볼 때, 최소 60개 이상의 표본이 필요한 것으로 보았다. 또한 G*Power3.1을 통해 예측한 결과, 중간 정도의 효과크기(0.15), 유의수준 0.05, 검정력 0.85, 예측변인 2개로 매개효과 분석을 위한 적정 표집수를 계산하였을 때, 76명의 표본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나 80명 이상을 표집크기로 설정하였다.

이 연구는 탈북청소년과 이주배경청소년 및 다문화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선행 연구의 도구를 활용하였으며, 분석 결과 타당도와 신뢰도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어 예비조사 없이 본 조사를 실시하였다. 본 조사에서 나타난 진로정체감의 내적일치도 계수는 .961, 문화적응 스트레스 .923, 진로장벽 .955, 사회적 지지 .876으로 나타났다.

자료 수집은 2021년 9월 15일부터 11월 3일까지 온라인 및 오프라인 조사를 통해 이루어졌고, 총 85부를 회수하였다. 85부 중에서 연구 대상자가 아닌 대학생이 설문한 1부를 제외하고 총 84부의 설문을 활용하여 최종분석을 진행했다. 자료분석은 Window SPSS 26.0 통계 프로그램을 사용하였다. 연구변인들의 일반적 통계량을 확인하기 위해 평균, 표준편차의 기술통계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문제 1에 따라, 탈북 고등학생의 문화적응 스트레스와 진로정체감, 진로장벽, 사회적 지지의 수준과 성별, 재학 학교 유형, 가족의 동거 여부에 따른 차이를 분석하기 위해 평균, 표준편차, 독립표본 t검증을 실시하였다. 연구문제 2에 따라, 탈북 고등학생의 문화적응 스트레스와 진로장벽, 진로정체감의 관계를 구명하기 위해 상관분석과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문제 3에 따라 탈북 고등학생의 문화적응 스트레스와 진로정체감의 관계에서 진로장벽의 매개효과를 구명하기 위해 PROCESS macro를 활용한 부트스트래핑을 실시하였다. 연구문제 4에 따라, 탈북 고등학학생의 문화적응 스트레스와 진로장벽, 진로정체감의 관계에서 사회적 지지의 조절효과를 구명하기 위해 PROCESS macro를 활용한 부트스트래핑을 실시하였다.

이 연구를 통해 도출된 결과를 연구문제를 중심으로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이 연구에서 활용된 진로정체감, 문화적응 스트레스, 진로장벽, 사회적 지지 중 진로정체감의 평균 점수는 3.12점으로 확인되었으며 하위요인인 자신의 이해는 3.20점, 직업정보의 이해 2.92점, 능력·자신감 3.47점으로 나타났다. 문화적응 스트레스의 평균 점수는 2.36점이며 하위요인인 이질감 2.08점, 문화충격 2.31점, 차별 2.32점, 주변화 2.27점, 향수 2.92점으로 나타났다. 진로장벽의 평균 점수는

2.28점으로 하위요인인 자기이해 부족 2.55점, 자신감 부족 2.32점, 중요한 타인과의 갈등 2.35점, 직업정보의 부족 2.42점,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2.46점, 경제적 어려움 2.50점, 성역할 갈등(남학생) 2.63점, 성역할 갈등(여학생) 1.77점으로 나타났다. 사회적 지지의 평균 점수는 3.69점으로 하위요인 또래지지 3.67점, 교사지지 3.71점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진로정체감과 문화적응 스트레스, 진로장벽, 사회적 지지가 성별 및 재학 학교의 유형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 독립표본 t검증을 실시하여 분석하였다. 그 결과 남학생의 경우 여학생보다 유의미하게 성역할 갈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남학생 대비 여학생이 지각한 사회적 지지가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문제 2를 구명하기 위해 탈북 고등학생의 문화적응 스트레스와 진로장벽, 진로정체감, 사회적지지 간 상관관계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이 연구에서의 종속변인인 진로정체감과 독립변인인 진로장벽, 문화적응 스트레스, 사회적 지지 모두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Davis(1971)가 제시한 효과크기 기준에 따라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진로장벽은 진로정체감과 매우 높은 부적 상관관계($r=-.754$, $p<.01$)를 보였고, 문화적응 스트레스는 진로정체감과 중간의 부적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r=-.482$, $p<.01$). 사회적 지지의 경우 낮은 정도의 상관관계를 보였다($r=.298$, $p<.01$). 본 연구의 독립변인인 진로장벽은 문화적응 스트레스와 높은 정적 상관관계 ($r=.699$, $p<.01$)를 보였고, 사회적 지지는 중간정도의 부적 상관($r=-.317$, $p<.01$)을 보였다. 이 연구의 독립변인 문화적응 스트레스는 사회적 지지와 중간정도 부적 상관관계($r=-.348$, $p<.01$)를 보였다.

다음으로, 설정된 변인간 영향관계를 살펴보기 위하여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함에 있어 다중공선성 진단을 하였고, 그 결과 독립변인 간 상관관계가 심각한 다중공선성을 유발시킬 정도가 아님을 확인하였다.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문화적응 스트레스와 진로장벽을 동시에 투입하였을 때 진로장벽만이 진로정체감에 유의미한 부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문제 3을 구명하기 위해, PROCESS macro model 4를 활용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진로정체감을 종속변인으로, 문화적응 스트레스를 독립변인으로 설정하였으며 매개변인을 진로장벽으로 설정한 결과, 진로정체감과 문화적응 스트레스의 관계에서 진로장벽이 완전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문제 4를 구명하기 위해 PROCESS macro model 8을 활용하여 탈북 고등학생의 진로정체감과 문화적응 스트레스, 진로장벽의 관계에서 사회적 지지의 조절효과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진로장벽과 문화적응 스트레스의 관계에서 사회적 지지는 조절효과를 갖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진로정체감과 문화적응 스트레스의 관계에서 사회적 지지는 조절효과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문화적응 스트레스와 진로정체감의 관계에서 사회적 지지에 의한 진로장벽의 조절된 매개효과는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2. 결론

이 연구의 목적은 탈북 고등학생의 문화적응 스트레스와 진로장벽, 진로정체감, 사회적 지지의 수준과 그 관계를 구명하는 것으로, 연구 결과를 통해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하였다. 첫째, 탈북 고등학생의 진로장벽이 진로정체감에 강한 부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문화적응 스트레스와 진로정체감의 관계에서 완전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탈북 고등학생이 새로운 터전인 남한사회에서 느끼게 되는 문화적응 스트레스로 인한 진로장벽이 높다는 것과, 이것이 진로정체감 발달을 저해하는 핵심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둘째, 이 연구에서 사회적 지지는 교사 및 또래가 제공하는 관계·심리적 차원 지지의 성격이 강했으나, 탈북 고등학생이 지각하는 문화적응 스트레스와 진로장벽을 완화시켜주지 않았다. 이것은 탈북 고등학생들이 그만큼 문화적응 스트레스와 이로 인한 진로장벽을 크게 느끼기 때문이며, 관계·심리적 차원의 사회적 지지가 효과적으로 작용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셋째, 탈북 고등학생 중 남학생의 성역할 갈등이 여학생보다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이러한 경향은 북한 사회의 가부장적인 모습에서 기인한 남녀의 차별적 성향으로 인해 탈북청소년들의 성인지가 낮게 나타나는 선행연구 결과와 일치한다.

넷째, 탈북 고등학생의 진로장벽 중 자기이해 및 직업정보의 부족이 비교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현상은 오랜 탈북과정으로 인한 학습공백과 자신의 신분을 숨겨야만 하는 상황에의 노출 등으로 겪는 자아정체감 형성에 어려움, 북한과 이질적인 사회·문화체제에서의 혼란 등으로 기인하는 탈북청소년 집단의 특성이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다섯째, 무연고 탈북 고등학생의 경우 가족과 동거하는 학생들 대비 향수가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무연고 탈북청소년의 경우 보호자의 적절한 보호와 관심의 결여로 사회문화적 일탈이나 학업중단, 사회부적응으로 인한 배제, 소외감 및 낙오, 무능력감, 우울증과 같은 문제를 겪을 위험이 높기 때문에(동용국,

2019; 장창호, 2001; 최성숙, 2003), 전술한 일탈적 측면의 문제점에 더 쉽게 노출될 수 있음을 예측할 수 있다.

3. 제언

가.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

이 연구의 결과를 기초로 다음과 같은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탈북 고등학생을 포함한 탈북청소년의 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진로검사 도구개발 연구가 필요하다. 이 연구에서는 문화적응 스트레스 측정 도구를 제외하고, 탈북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개발된 도구가 부재하여 탈북청소년과 유사한 특성과 배경을 지닌 이주배경청소년 및 다문화청소년을 대상으로 사용된 도구를 활용하였다. 이러한 도구들의 경우 탈북 고등학생의 고유한 특성을 측정하기에 제한이 있을 수 있으므로 향후 탈북청소년의 진로 관련 변인을 측정할 수 있는 도구개발이 필요하다.

둘째, 이 연구에서 다뤄지지 않은 중국 등 제3국 출생의 탈북 배경 청소년과의 비교연구가 필요하다. 현재 탈북여성이 제3국에서 출산하여 한국으로 입국하는 제3국 출생 북한이탈주민의 자녀의 수는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으며 북한 출생 학생 수를 초월하고 있다(오인수, 노은희, 2020). 또한 이들이 북한 출생 청소년과 매우 다른 집단임에도 불구하고 두 집단을 분리하지 않은 채 수행한 연구들이 많기 때문에 이들의 독특한 특성이 반영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두 집단 간 진로 발달에 있어 차이점을 분석하여 세분화된 지원 마련을 위한 연구가 필요하다.

셋째, 이 연구는 탈북 고등학생의 문화적응 스트레스와 진로장벽, 진로정체감 및 사회적 지지의 관계를 구명하였다. 이를 위해 양적연구만을 실시하여 탈북 고등학생의 진로정체감 발달에 있어 문화적응 과정과 진로장벽, 사회적 지지가 미치는 영향을 심층적으로 파악하는데 제한적이다. 따라서 질적 연구를 통하여 사회·문화적 및 심리적 요소와 어떠한 현실적인 진로장벽이 탈북 고등학생의 진로 정체감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지 심층적으로 파악하기 위한 후속연구가 필요하다.

나. 실천적 제언

이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향후 현장에서의 활용을 위해 도출한 실천적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탈북 고등학생이 인식하고 있는 여러 가지 진로장벽 요소에 대해 탐색하고, 이를 극복할 수 있도록 교육적 개입 및 물질적·정서적인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탈북 고등학생 대상 진로교육·상담서비스를 제공할 때 학생들이 지각하는 환경적·심리적 진로장벽을 파악하고 이를 낮출 수 있도록 돕는 교육적인 지원을 다각화할 필요가 있다.

둘째, 교사와 또래의 관계·심리적 차원의 사회적 지지가 탈북 고등학생들의 문화적응 스트레스와 진로장벽을 완화시키지 못한 점에서 볼 때, 단순한 심리적 차원의 지지를 넘어 탈북 고등학생에게 특화된 진로·직업교육 등 실질적이고 현실적인 지원을 제공해야 할 필요가 있다.

셋째, 북한과 다른 남한 사회에서의 성역할에 대한 교육을 통해, 성인지를 함양할 필요가 있다. 북한은 대외적으로는 남녀평등 사회를 표방하지만, 전통적인 가부장적인 사회이며 성별에 따라 바람직한 성격과 행동, 몸가짐 태도 등 개인의 사적인 부분에 있어 성차별적인 가치관이 요구되는 사회이다. 따라서 향후 탈북 고등학생이 건전하고 남녀평등·민주주의에 입각한 직업의식을 함양하고 진로설정을 할 수 있도록 성인지를 높여줄 수 있는 교육이 제공되어야 한다.

넷째, 자기 자신에 대한 이해 및 직업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선행연구결과와 이 연구에서 확인된 것과 같이 자기이해 및 직업정보의 부족이 비교적 높은 것으로 나타난 것을 기반으로 볼 때, 이질적인 정치·사회·문화 체제에 편입된 탈북 고등학생이 자기 자신과 남한 사회의 다양한 직업정보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자신에게 적합한 진로를 설정해나갈 수 있도록 도움을 제공해야 한다.

다섯째, 무연고 탈북 고등학생의 사회적응 현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정서적인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 무연고 입국 탈북청소년의 경우 보호자의 보호와 관심의 결여로 학업중단, 사회부적응, 소외감 및 낙오, 무능력감, 우울증과

같은 문제를 겪을 위험이 높다(동용국, 2019; 장창호, 2001; 최성숙, 2003).

이러한 위험을 낮추기 위해, 남한에 거주하는 가족의 수가 많을수록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낮고 가족과 친구 등 비공식적인 지지의 크기가 탈북청소년의 사회·심리적 적응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선행연구 결과를 토대로(이소래, 1997; 박진숙, 윤인진, 2007) 무연고 탈북 고등학생들의 정서적인 지원과 체계적인 관리방안을 강화함으로써, 안정적으로 남한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도움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참 고 문 헌

가영선. (2015). **중학생의 개인 및 창의적 체험활동 변인이 진로정체감에 미치는 영향**.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강경연, 이제경. (2017). 긍정심리자본과 진로관련 변인 관계에 대한 국내 연구의 동향과 시사점. **한국심리학회지: 학교, 14**(1), 41-67.

강구섭. (2015). 탈북교사의 북한교육에 대한 인식 고찰 - 남북한 교육통합을 위한 시사점. **한국교육학회, 53**(2), 455-476.

강수정. (2018). **제3국 출생 북한이탈주민자녀의 문화적응스트레스 감소를 위한 집단미술치료 사례연구**. 대구사이버대학교 석사학위논문.

강영미, 유순화, 윤경미. (2009). 전문계 고등학생이 지각한 진로장애와 자아탄력성이 진로태도성숙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학연구, 16**(1), 415-138.

강원덕, 안귀여루. (2010). 성취동기, 내재적 직업가치, 진로장벽이 고등학생의 진로성숙 및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15**(1), 161-175.

강호경. (2003). **고등학생의 의사결정 유형에 따른 진로성숙도의 차이 연구**. 명지대학교 석사학위논문.

계은진. (2018). **"탈북자인게 뭐 어때서?" : 남한 사회와 거리두기를 통한 북한 출신 대학생들의 정체성 형성과정**.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고경필, 고정리. (2018). 대학생이 인식한 심리적 및 환경적 진로장벽이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에서 사회적 지지의 매개효과 분석.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18**(9), 439-468.

고명숙. (2014). **전문대학생의 사회적 지지와 진로준비행동의 관계에서 진로정체감의 매개효과**.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고은희, 조아미. (2017). 고등학생의 진로정체감 지위에 따른 진로태도성숙과 진로준비행동의 차이. **진로교육연구, 30**(2), 1-16.

고은희. (2017). **고등학생의 진로정체감 지위에 따른 진로태도성숙과 진로준비행동의 차이: VISA 모형을 중심으로**. 명지대학교 석사학위논문.

공윤정. (2005). 진로상담: 진로장벽; 이론적 고찰 및 상담 실제에의 적용. **상담학연구, 6**(3), 861-874.

공인규. (2008). **Holland진로탐색프로그램이 학습부진아의 진로성숙도, 진로효능감, 진로정체감 및 진로장애에 미치는 효과**. 부산대학교 박사학위논문.

교육부. (2009). **대안교육 백서**. https://www.moe.go.kr/boardCnts/view.do?boardID=316&boardSeq=47943&lev=0&m=041208 (검색일 2020.2.14.)

교육부. (2016). **2016년 탈북학생 교육지원 사업 계획**. 교육부.

구교태. (2014). 문화적응과 문화적응 스트레스에 대한 미디어 이용 효과: 중국 유학생을 대상으로. **사회과학연구, 21**(1), 35-55.

권나혜. (2006). **남한 내 탈북이주민 대학생의 정체성과 생활경험**.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권수정, 박정령, 김정예. (2017). 청소년의 또래애착이 진로정체감에 미치는 영향 공동체의식과 학교생활적응의 매개효과 검증. **사회과학연구, 33**(2), 29-51.

금명자, 권해수, 이희우. (2004). 탈북 청소년의 문화 적응 과정 이해.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6**(2), 295-308.

길은배, 문성호. (2003). 북한이탈 청소년의 남한사회 적응 문제와 정책적 함의. **청소년학연구, 10**(4), 163-186.

김갑숙. (2018). **개별과 집단을 병행한 미술치료가 중학생의 자아정체감 형성에 미치는 효과**. 영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김경미, 배영광, 민이슬, 장성화. (2014). 진로정체감과 Krumboltz의 과제접근기술이 진로성숙도, 진로장벽, 진로포부에 미치는 영향.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4**(11), 497-508.

김광수. (2002). 청소년의 학교생활적응 현황과 지도방안. **교육논총, 17**(1), 1-15.

김도연. (2011). **고등학생이 지각한 사회적 지지와 자기효능감이 진로성숙도에 미치는 영향**. 제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김린, 박세훈, 박경자. (2014). 북한이탈청소년의 스트레스와 사회적 지지가 우울 및 불안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학연구, 21**(7), 55-87.

김명수. (2015). 통일 시대 기반 구축을 위한 체육교육의 방향과 과제에 대한 토론. **학습자중심교과교육학회 학술대회자료집**, 173-174.

김미숙. (2014). 학교 부적응 청소년유형과 완화요인. **교육정책연구, 1**(1), 119-154.

김미영. (2019). **북한이탈주민의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에서 사회적 지지와 심리적 안녕감의 조절효과**. 협성대학교 박사학위논문.

김미주. (2011). **대학생의 진로정체감, 진로의사결정유형, 진로결정수준이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 영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김민정. (2016). 대학생의 진로장벽이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 **진로교육연구, 29**(2), 89-107.

김보영, 장은비. (2015). 중학생의 사회적 위축이 진로정체감에 미치는 영향: 우울을 통한 또래애착과 성취가치의 조절된 매개효과. **청소년학연구, 22**(7), 31-52.

김봉환, 김은희, 김효원, 문승태, 방혜진, 이지연, 조붕환, 허은영. (2013). **진로교육개론**. 사회평론 아카데미.

김봉환. (1997). **대학생의 진로결정 수준과 진로준비 행동의 발달 및 이차원적 유형화**.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김상미, 남진열. (2011). 청소년의 또래애착과 학교생활적응이 공동체의식에 미치는 영향: 삶의 만족도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미래청소년학회지, 8**(4), 225-242.

김석향, 김미주, 김엘렌, 윤보영, 이수연, 장명선. (2019). **북한이탈여성 일터 내 차별 및 괴롭힘 실태조사**. 국가인권위원회.

김선경. (2017). **고등학생이 지각한 사회적 지지와 진로준비행동 간의 관계 - 진로정체감과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 명지대학교 석사학위논문.

김성경 (2018). 북한이탈 청소년의 긍정적 학교적응 과정에 관한 질적 연구-막막함에서 자기긍정으로 변화하기. **한국청소년연구, 29**(3), 129-157.

김성경. (2015). 청소년의 진로정체감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자본의 경로모형 연구. **한국아동복지학, 51**, 23-46.

김수희. (2021). **탈북청소년 대안학교 교사의 협력적 학습경험에 대한 내러티브 탐구**. 숭실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김아름, 이지희, 최보영. (2010). 중·고등학생의 진로성숙 발달에 관한 5년 종단연구: 성별 및 부모 또래와의 애착을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2**(3), 843-862.

김연희. (2009). 북한이탈청소년의 학교중도탈락 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한국사회복지학, 61**(4), 191-215.

김영경. (2008). 대학 신입생이 지각하는 진로장벽이 진로결정수준과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0**(4), 1191-1210.

김영수. (2010). 북한이탈주민의 가족문제. **社會科學硏究, 9**, 102-117.

김영은. (2012). **인민에서 국민으로(?): 한 북한이주여성의 정체성 변화에 대한 서사적 설명**. 계명대학교 석사학위논문.

김우리, 박영희, 김정섭 (2014). 중학생의 기본심리욕구, 자아정체감, 진로정체감 간의 구조적 관계. **敎育心理硏究, 28**(2), 333-35.

김원호. (2010). **장애대학생용 진로장벽검사 개발 및 타당화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김유경, 이우경. (2017). 일부 농어촌지역 예체능전공 대학생들의 교수지지가 진로정체감과 취업준비역량에 미치는 영향. **한국도서연구, 29**(4), 47-65.

김윤나. (2008). **북한이탈 청소년의 문화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적응유연성에 관한 통합적 연구**. 중앙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김은숙. (2012). **고등학생이 지각한 부모지지와 진로정체감이 진로태도성숙에 미치는 영향: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학생들을 중심으로**. 국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김은영. (2001). **한국 대학생 진로탐색장애검사(KCBI)의 개발 및 타당화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김은희, 김봉환. (2010). 진로역할지향성에 따른 진로장벽 인식과 타협과정 연구. **상담학연구, 11**(4), 1451-1468.

김정숙. (2005). **우리나라 대안학교의 현황과 전망에 관한 연구-초등 대안학교를 중심으로**. 진주교육대학교 석사학위논문.

김정원, 김지수, 최유림, 이슬기. (2014). **남북한 교사 역할 비교 분석 연구**. 한국교육개발연구원.

김정원, 김지수, 김지혜, 김진희, 조정아, 김윤영, 김성식, 조정래. (2018). **2주기 탈북청소년 교육 종단연구(III)**. 한국교육개발원.

김정원, 김지수, 강구섭, 연보라. (2015). **탈북청소년교육백서**. 한국교육개발원.

김정원, 김지수, 김지혜, 김진희, 조정아, 김윤영, 김서식, 조정래. (2018). **2주기 탈북청소년 교육 종단연구(III)**. 한국교육개발원.

김정원, 김지수, 최유림. (2014). **남북한 교사 역할 비교 분석 연구**. 한국교육개발연구원.

김정희. (2014). **집단미술치료과 남한 거주 북한이탈청소년의 외상 후 성장과 자아탄력성에 미치는 효과**. 서울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김종걸. (2008). **경호전공 대학생의 진로장벽과 진로준비행동의 관계**. 경기대학교 박사학위논문.

김종국. (2008). **새터민청소년의 사회적 지지와 문화적응 스트레스에 관한 연구**. 명지대학교 박사학위논문.

김종백, 탁현주. (2011). 교사의 다문화 교육인식과 다문화가정 학생의 학교적응과의 관계. **한국청소년학회, 18**(10), 161-185.

김지연. (1995). **청소년기 애착과 자아존중감의 관계**.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김지현. (2010). **북한이탈 청소년의 심리사회적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숭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김진섭. (2004). **탈북아동의 남한사회에서의 초기 적응 연구**.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김충기. (2001). 한국 청소년의 교육문화와 가치관 교육 : 청소년의 가치관과 도덕성 함양. **韓國의 靑少年文化, 1**, 291-309.

김현수, 이용순, 김민규. (2013). **북한이탈주민 경력경로 분석을 통한 취업역량 강화 방안 연구**. 한국직업능력개발원.

김현진. (2008). **탈북청소년의 사회적 지지 및 자아존중감이 사회적 문제해결능력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학교 석사학위논문.

김형태. (2004). **북한이탈청소년의 남한사회 적응유형에 관한 통합적 비교연구**. 숭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김혜경. (2012). **진로장벽, 진로포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고등학생의 진로태도성숙에 미치는 영향: 북한이탈청소년과 남한청소년 비교연구**. 건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김혜리. (2017). **대안학교의 교육특성과 대안교육 발전방안**. 성균관대학교 석사학위논문.

김효선. (2014). 부모와의 분리-계별화와 긍정적 자아개념이 교육계열 대학생의 진로정체감에 미치는 영향: 서울 소재 A 대학교를 중심으로. **농업교육과 인적자원개발, 45**(4), 105-124.

김희진. (2001). 대학생의 자아정체감이 진로태도성숙과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 **평택대학교 사회과학연구, 5**, 393-369.

나지영. (2014). 탈북 청소년의 구술생애담 속 가족의 해체와 탈북 트라우마. **통일인문학, 60**, 97-133.

남부현, 오영훈. (2017). 일반계 고등학교 교사의 현장 경험연구. **교육문화연구, 23**(6), 341-364.

남북하나재단. (2020). **2021학년도 북한이탈주민 특별전형 입시자료집(일반대학)**. 남북하나재단.

노자은, 정미나. (2017). 청소년의 진로정체감 변화 양상과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미래청소년학회지, 14**(3), 51-68.

노하나. (2006). **중국 국제결혼이주여성의 문화적응스트레스에 관한 연구 - 문화적응 유형과 이주여성이 인지한 사회적 지지를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동용국. (2019). 탈북 무연고 청소년을 위한 미성년 공공후견제도 도입방안. **부모교육연구, 16**(1), 69-90.

목혜연. (2007). **새터민 청소년의 심리적 적응과 문화적응스트레스 및 사회적 지지에 관한 연구**. 명지대학교 석사학위논문.

문은식. (2015). 중학생의 또래애착, 자아정체감 및 진로정체감과 학교생활 적응의 관계. **인간발달연구, 22**(1), 21-35.

문희정. (2018). **탈북 후기청소년의 대학적응**. 충남대학교 박사학위논문.

박길태. (2012). **북한이탈청소년 대안학교의 운영특성 및 발전방안** 연구. 원광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박미연. (2020). **초기 청소년기 가족지지와 친구지지가 자아가치에 미치는 영향. 또래 괴롭힘 피해 경험과 내재화 문제의 매개효과에 대한 한국과 미국 차이**.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박선민. (2011). **북한이탈주민 대학생이 인식하는 진로장벽에 대한 질적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박세훈. (2019). **탈북중학생을 위한 진로교육 프로그램 개발**. 연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박슬기, 오인수. (2011). 대안학교 출신 북한이탈청소년의 대학진학 진로결정 과정에 관한 질적 연구. 상담학연구, 12(5), 1719-1735.

박슬기. (2011). **북한이탈청소년의 대학진학결과정에 관한 연구: 대안학교 출신 학생들을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박아청. (2003). 한국형 자아정체감 검사의 타당화 연구. **敎育心理硏究, 17**(3), 373-392.

박영신, 김의철, 김영희, 민병기. (1999). 초등학생의 생활만족도 형성요인에 대한 구조적 관계 분석: 사회적 지원과 자기효능감을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5**(1), 57~76.

박원우, 손승연, 박해신, 박혜상. (2010). 적정 표본크기(sample size) 결정을 위한 제언. **노사관계연구, 21**, 51-85.

박윤숙, 윤인진. (2007). 탈북 청소년의 사회적지지 특성과 남한사회 적응과의 관계. **韓國社會學, 41**(1), 124-155.

박윤숙. (2006). **북한이탈청소년의 사회적지지 특성과 남한사회 적응에 관한 연구**. 서울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박은민. (2010). 청소년의 교사애착, 또래애착, 모애착과 자존감 및 우울감이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한국놀이치료, 13**(3), 75-88.

박은선, 박혜훈. (2019). 예비유아교사의 진로정체감, 진로장벽, 회복탄력성 간의 관계 분석.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19**(7), 729-747.

박은정, 이유리, 이성훈. (2016). 부모의 소득계층별 청소년의 사회자본이 진로정체감에 미치는 영향: 중학교 3학년을 중심으로. **청소년학연구, 23**(5), 237-263.

박은주. (2012). **만다라 집단미술치료가 청소년의 자아정체감 향상에 미치는 효과**. 목포대학교 석사학위논문.

박주현. (2010). 북한이탈아동의 부모관련요인과 문화적 지향성이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 **부모교육연구, 7**(2), 23-40.

박지민. (2000). **지각된 사회적 지지와 스트레스 및 감성지능의 관계**. 충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박지연. (2002). **간디학교 영어수업 사례연구**. 영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박지원. (1985). **사회적지지 척도개발을 위한 일 연구**. 연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박찬미. (2020). **부모와 양육태도, 또래애착, 진로관련대화와 청소년의 진로정체감의 관계**. 한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박한샘. (2008). 제주지역 고등학생의 진로장벽과 진로포부와의 관계: 사회적 지지 및 희망의 중재효과. **청소년복지연구, 10**(4), 129-151.

박한샘, 조화진 (2016). 대학생의 진로정체감 지위에 따른 신경증, 다차원적 완벽주의 및 부모 진로지지의 차이. **진로교육연구, 29**(2), 213-236.

박현숙. (2007). 청소년의 자아정체감과 우울이 자살사고에 미치는 영향. **정신간호학회지, 16**(2), 103-112.

백혜정. (2007). 남한 내 북한이탈 청소년들의 심리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적응준비도에 관한 연구. **한국청소년연구, 18**(2), 183-211.

변정훈. (2017). **북한이탈 청소년 대안학교 교사의 소진양상과 요인, 극복방안에 대한 질적 연구**.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서봉연. (1975). **자아정체감형성에 관한 심리학적 연구**. 경북대학교 박사학위논문.

서유란, 이상희. (2012). 대학생의 자아정체감과 진로정체감 비교 연구 : 진로태도성숙을 중심으로. **상담학연구, 13**(2), 525-542.

서유란. (2012). **대학생의 진로정체감지위에 따른 진로태도성숙 연구**. 광운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서은경. (2013). **다문화가정 부부갈등과 자녀 사회적응의 관계: 사회적 지지와 자아탄력성의 매개효과**. 단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서정덕. (2018). **중학생의 자아정체감 형성 촉진 집단상담 프로그램 개발**. 계명대학교 박사학위논문.

석민경. (2011). 희망과 자아정체감이 진로결정 자기효능감과 진로태도성숙에 미치는 영향. **대학생활연구, 17**(1), 40-58.

성동제. (2015). **위기청소년의 진로태도성숙과 사회적지지, 회복탄력성 및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관계**.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성영혜. (1992). **부모의 사회적 지지체계가 아동의 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성윤희, 장은영. (2020). 다문화청소년의 문화적응 스트레스와 진로결정성의 관계: 진로장벽을 통한 자존감의 조절된 매개효과. **진로교육연구, 33**(1), 43-64.

손연아, 신수지, 손은령. (2014). 중학생의 진로정체감에 영향을 주는 변인연구. **진로교육연구, 27**(1), 109-125.

손영미. (2018). **문화적 맥락에 따른 부모자녀관계와 진로정체감의 관계: 한국적 진로상담의 방향모색**.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송경. (2020). **북한 출신 청년의 문화적응 스트레스와 자아정체감의 관계: 지각된 사회적 지지와 심리적 안녕감의 이중매개효과**. 한동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송민경. (2009). 청소년기 진로성숙과 진로선택에 관한 연구. **청소년학연구, 16**(10), 51-81.

송병국. (1992). 개인의 특성발견을 위한 진로성숙도 검사 활용 방안. **진로교육 연구, 12**(1), 99-122.

송현옥. (2008). **청소년기의 자아정체감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 변인간의 구조 분석**. 계명대학교 박사학위논문.

신연주. (2019). **다문화청소년이 지각한 사회적 지지와 진로결정성 관계에서 자아탄력성의 매개효과**. 신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신현숙, 구본용. 김진희. (2001). **청소년 매니아의 세계**. 한국청소년상담원.

신혜영. (2003). **대안학교 학생의 진로태도성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신효정, 이문희. (2011). 진로성숙 발달에 관한 4년 종단 연구: 스트레스, 공격성, 우울의 효과. **청소년학 연구, 18**(7). 139-161.

신효정, 최현주. (2013). 청소년의 자아개념과 자기효능감 및 진로관련 변인 간의 영향. **발달지원연구, 2**(2), 95-114.

심명인, 양은아, 임정아, 한미령, 하늘샘. (2011). **탈북성인을 위한 인문학 교육 과정 개발 및 운영**. 한국교육개발원.

심효주. (2017). **고등학생이 지각한 진로장벽과 진로준비행동의 관계에서 진로 정체감의 매개효과**. 경성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안서영. (2018). **사회적 지지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북한이탈주민여성의 진로 장벽에 미치는 영향**. 전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양계민, 황순택. (2008). 입국초기 새터민 청소년들의 심리적 건강상태에 관한 탐색적 연구. **한국청소년연구, 19**(2), 333-358.

양영은, 배임호. (2010). 학업중단 북한이탈 청소년의 적응과정에 관한 질적 연구. **사회복지연구, 41**(4), 189-224.

어욘치맥. (2018). **몽골 이주배경 청소년의 문화적응 스트레스와 가족기능이 진로정체감에 미치는 영**향.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엄태영, 박은하, 주은수. (2011). 자아존중감, 사회적지지가 빈곤청소년의 진로 결정 수준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진로장벽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보건사회연구, 31**(3), 197-222.

연은모. 최효식. (2019). 다문화가정 어머니의 문화적응스트레스, 양육효능감, 진로관련행동, 진로장벽인식 간 관계: 자녀의 성별에 다른 다집단 분석. **학습자중심교과교육학회, 19**(10), 121-140.

오명숙. (2015). **한국형에니어그램 진로지도프로그램이 진로정체감과 자기효능감 및 진로성숙도에 미치는 영향**. 선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오석구. (2005). **초등학교 아동의 진로의식과 적응유연성 및 학업성취도와의 관계**. 한국교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오순옥. (2007). **중학생의 부모 및 또래애착과 자아탄력성과의 관계**. 부경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오시온. (2018). **아동기 학대 및 방임 피해경험과 청소년 진로정체감의 관계: 자아탄력성과 또래애착의 매개효과**.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오원환. (2011). **탈북 청년의 정체성 연구: 탈북에서 탈남까지**.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오인수, 노은희. (2020). 제3국 출생 북한이탈주민 자녀의 정서행동 문제에 대한 맥락적 이해 및 개입전략. **교육학연구, 58**(1), 1-32.

오정아, 남부현. (2014). 관계적 및 학교적응 요인이 중학생의 진로태도성숙에 미치는 영향. **농촌지도와 개발, 21**(2), 571-586.

유가효, 방은령, 한유진. (2004). 한국사회에서 탈북 아동 청소년의 학업성취 및 사회적 적응.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2**(5), 185-196.

유비, 김가현. (2015). 한국 다문화 중도입국 청소년과 일반 청소년(한국인 부모가정)의 진로정체감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비교. **한국사회복지학 67**(1), 5-29.

유성경, 홍세희, 이아라. (2006). 남녀 학업 우수 청소년이 지각하는 진로장벽과 진로포부의 관계에서 학업 효능감의 매개모형 검증.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8**(4), 837-852.

유소영. (2013). **사회적 지지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다문화 중학생의 진로포부에 미치는 영향**. 명지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유수복. (2013). **대학생의 진로장벽과 사회적 지지가 진로자기효능감과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 충북대학교 박사학위논문.

유순화, 강승희, 윤경미. (2004). 대학생의 진로의사결정 유형과 수준 및 진로성숙간의 관계. **상담학연구, 5**(4), 1111-1123

유혜림. (2015). **전문대 대학생의 자아정체감 및 진로정체감과 진로성숙의 관계**. 아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유혜승. (2016). 한국 대학생의 진로정체감 지위 분석. **아시아교육연구, 17**(2), 283-309.

유화영. (2018). 농업계열 특성화고등학교 학생의 자아탄력성, 진로정체감, 진로성숙도 간의 관계. **한국청소년상담학회지, 3**(2), 63-81.

윤상석. (2006). **새터민 청소년과 함께 하는 평화인권**. 세미나 ppt 자료.

윤석주, 손지희(2014). 북한이탈청소년학교 교사의 실천적 지식. **한국교원교육연구, 31**(4), 197-226.

윤석주. (2015). 북한이탈청소년 대안학교 교사의 소진에 대한 질적 연구. **한국교원교육연구, 32**(2), 315-344.

윤성아. (2004). **탈북 청소년의 적응을 위한 교육실태 및 문제해결방안**.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윤수민. (2020). **다문화청소년의 문화적응스트레스가 진로장벽에 미치는 영향: 부모의 지지와 사회적위축의 조절된 매개효과**. 한양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윤여근. (2002). **고등학생의 사회적지지 및 스트레스와 심리적 안녕과의 관계**. 충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윤은영. (2016). **다문화가정 아동의 부모-자녀관계가 문화적응에 미치는 영향: 영적안녕감과 자아탄력성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숙명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윤초희. (2015). 지각된 사회적 지지와 고등학생의 진로정체감의 관계에서 기본 심리욕구의 매개효과 : 자기결정성 이론을 중심으로. **아시아교육연구, 16**(4), 129-154.

윤초희, 한수연. (2015). 국제학교 학생의 자아존중감, 학교적응 및 부모의 진로지지가 진로정체성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학연구, 22**(2), 145-170.

윤혜순. (2014). **탈북청소년 연구동향과 과제**. 청소년학연구, 21(11), 125-149.

이건우. (2018). **공학계열 대학생의 심리적·환경적 진로장벽이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 희망과 진로정체감의 매개효과**.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이건우, 최바울. (2020). 공학계열 대학생의 심리적·환경적 진로장벽이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 희망과 진로정체감의 매개효과. **진로교육연구, 33**(1), 109-121.

이겨레. (2011). **북한이탈청소년의 정신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문화적응 스트레스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대구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이경선, 남현우. (2011). 중학생의 자아탄력성과 가족건강성이 진로성숙도에 미치는 영향. **순천향 인문과학논총, 30**, 233-256.

이광자. (2005). **부모 지지와 고등학생 진로발달과의 관계 연구: 일반계, 산업정보계, 실업계의 비교**. 성균관대학교 박사학위논문.

이기엽. (2012). **대학생의 진로장벽, 진로태도성숙이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 희망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건양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이기영, 백정원, 김민정. (2014). 특집: 이주의 사회과학적 고찰: 북한이탈여성의 "돌봄과 일" 에 관한 연구 - 제3국출신 아동을 둔 여성의 경험을 중심으로. **민족연구, 60**, 4-23.

이기영. (2002). 탈북청소년의 남한사회 적응에 관한 질적 분석. **한국청소년연구, 35**, 175-224.

이나영. (2012). **북한 사회의 이상적 남성성: 2004년 이후 제작된 텔레비전 드라마를 중심으로**. 북한대학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이동혁, 황윤미, 정지희. (2012). Krumboltz의 우연학습이론을 배경으로 한 과제접근기술, 진로정체감, 진로장벽, 진로성숙도간의 관계. **상담학연구, 13**(2), 855-875.

이문죽. (2012). **전문계 고등학교 학생의 삶의 목적수준과 부모의 진로기대가 진로정체감 및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 백석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이문희, 신효정. (2015). 진로성숙 발달에 관한 4년 종단 연구. **청소년학연구, 18**(7), 139-161.

이미라. (2001). **청소년의 학교생활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지지체계에 관한 연구**. 대구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이민지. (2016). **차별지각, 문화적응,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북한이탈주민의 우울에 미치는 영향 : 매개된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성균관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이보라, 정지희, 이정림. (2014). 한국어판 진로정체감 지위 측정도구. **상담학연구, 15**(3), 1163-1181.

이부미. (2012). 북한이탈 청소년들의 학습경험 및 정체성 재구성에 대한 내러티브 탐구. **교육인류학연구, 15**(2), 23-57.

이상길. (2006). 담임교사와의 대화공감도를 비롯한 학교 변인과 고교생의 진로 정체감.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8**(3), 613-627.

이상희. (2006). 진로발달에서 진로장벽과 사회적지지의 역할: 사회인지 진로이론(SCCT)과 사회인지 이론의 검증. **상담학연구, 7**(4), 1123-1135.

이상희, 오보영. (2014). 대학생의 진로정체감 4단계와 6단계의 비교. **한국심리학회 학술대회 자료집, 2014**(1), 281-281

이선영. (2017). **진로정체감과 교사의 사회적 지지가 중학생의 진로성숙도에 미치는 영향.** 국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이선윤. (2005). **북한이탈청소년의 정신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총신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이소래. (1997). 사회적 지지가 남한이주 북한이탈주민의 문화적응 스트레스(Acculturative Stress)에 미치는 효과. **청소년 상담연구, 5**(1), 209-247.

이소정. (2020). **다문화 중도입국 청소년의 방임과 우울이 진로정체감에 미치는 영향.** 성균관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이수연. (2008). 새터민 청소년의 학교적응에 관한 질적 분석. **청소년학연구, 15**(1), 81-113.

이순영. (2008). **대학생의 지각된 사회적 지지와 진로장애가 진로정체감에 미치는 영향.** 명지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이순형, 조수철, 김창대, 진미정 (2008). **탈북 가족의 적응과 심리적 통합**. 서울대학교 출판부.

이승진. (2011). **청소년의 진로성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관악, 동작구 교육복지특별지원 고등학교를 중심으로**. 서울시립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이신남. (2013). 대학의 회계학과 학생의 진로결정에 관한 연구: 경기지역 대학생 중심으로. **상업교육연구, 27**(2), 47-67.

이아라, 손보영, 이주영. (2018). 다문화 청소년용 진로장벽 척도 개발 연구. **상담학연구, 19**(5), 257-272.

이여진. (2011). **소그룹 미술치료가 북한이탈 청소년들의 자아정체성 및 자아존중감 향상에 미치는 효과 연구: 치료사의 반응 작업**. 한양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이예진. (2014). 전환기 청소년의 개인특성, 또래애착 및 부모양육행동이 학교생활 적응에 미치는 영향: 휴대전화 의존도의 매개효과 검증. **Family and Environment Research, 52**(2), 519-528.

이영자. (1995). 스트레스와 심리적 부적응의 관계에서 사회적 지지와 자아존중감의 역할. **논문집, 1**(3), 195-242.

이은선. (2017). **음악치료가 탈북청소년의 정서발달과 임파워먼트 증진에 미치는 영향**. 숙명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이은설. (2005). **초·중·고 여학생 진로장벽 척도의 개발 및 구인 타당도 검증**.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이일정. (2019). **중국여성결혼이민자의 문화적응 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자아존중감, 사회적지지, 사회활동참여를 중심으로**. 숭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이정림. (2016). **고졸검정고시를 준비하는 학교 밖 청소년들이 지각한 사회적 지지와 진로장벽의 관계: 소외감의 매개효과**. 상지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이정림, 조영아. (2017). 고졸검정고시를 준비하는 학교 밖 청소년들이 지각한 사회적 지지와 진로장벽의 관계: 소외감의 매개효과. **한국산학기술학회지, 18**(6), 90-102.

이종범. (2001). **고등학교에서의 진로검사도구 활용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이종태. (2007). **대안교육 이해하기**. 민들레.

이지선. (2011). **북한이탈 어머니의 사회적 지지, 문화적응스트레스 및 양육 효능감 간의 관계**.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이지연. (2019). **북한이탈청소년의 적응유연성 향상을 위한 지지적 노래심리치료 적용 사례**.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이지은. (2016). **중도입국청소년의 진로장벽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이지형. (2016). **북한이탈가정 청소년의 우울 및 불안이 진로결정 수준에 미치는 영향: 인지적 매개변인 효과를 중심으로**. 대구대학교 박사학위논문.

이채영, 박주희. (2014). 탈북 대학생의 문화적응 스트레스와 레질리언스가 우울증상에 미치는 영향. **Family and Environment Research, 52**(3), 313-324.

이충용. (2009). **남북 청소년 교육문화차이와 교류활동에 관한 연구: 남한의 학생, 학부모, 교사 인식을 중심으로**. 국민대학교 박사학위논문.

이충용. (2009). 남북 청소년 교육문화차이와 교류활동에 관한 연구: 남한의 학생, 학부모, 교사 인식을 중심으로. **청소년문화포럼, 22**, 108-139.

이하원, 채경희. (2017). 탈북청소년의 적응유연성이 사회적 문제해결능력에 미치는 영향.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18**(9), 395-402.

이향규. (2006). **다문화청소년 알아가기: 새터민청소년**. 무지개청소년센터.

이향규. (2007). 새터민 청소년 학교 적응 실태와 과제. **인간연구, 12**, 1-17.

이형국. (2007). **진로상담이 대학생의 진로정체감, 진로결정수준,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효과**. 경북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이홍직. (2011). 재한 중국인 유학생의 문화적응 스트레스 결정요인 - 인구사회학적특성, 한국어 능력, 사회적지지 요인을 중심으로. **스트레스연구, 19**(2), 183-194.

이화연. (2017). **탈북청소년의 대학진학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이효경. (2019). **전환기 청소년의 사회적 지지와 삶의 만족도의 관계: 진로정체감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충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이효경, 손은령. (2019). 전환기 청소년의 사회적 지지와 삶의 만족도의 관계: 진로정체감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19**(16), 871-892.

이희선, 선우현정. (2015). 청소년의 진로정체감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제변인: 자아정체감, 부모의 방임. **청소년학연구, 22**(6), 57-73

이희정, 김금미. (2010). 진로상담 : 경력단절여성의 진로장벽지각이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상담학연구, 11**(2), 623-640.

인효연, 길혜지. (2017). 청소년들의 삶의 목표 유형에 따른 진로정체감, 공동체 의식 및 삶의 만족도 차이. **미래청소년학회지, 14**(1), 25-49.

임주영, 윤경자. (2013). 대학생의 자아탄력성, 대학생활만족도 및 성취동기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족관계학회지, 18**(3), 113-130.

장석진, 송소원, 조민아. (2011). 중학생의 휴대전화의존도, 부모양육태도, 또래 애착이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한국청소년학연구, 18**(12), 431-451.

장옥진. (2020). **북한이탈주민자녀의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고신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장은량. (2018). **청소년의 자아정체감과 사회적 관심의 관계에서 삶의 목표 지향성의 매개효과**. 공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장이슬, 송병국. (2015). 대학생의 진로장벽과 진로준비행동의 관계: 회복 탄력성의 매개효과 검증. **청소년학연구, 22**(7), 363-392.

장지선. (2003). **대학생의 진로정체감과 부모에 대한 심리적 독립 및 애착과의 관계 연구.**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장창호. (2001). 탈북 청소년 적응에 관한 사회사업적 고찰. **한국사회복지, 5**, 203-235.

전소연, 이윤정. (2020). 간호대학생의 감성지능, 자아탄력성, 임상실습 스트레스 대처가 진로정체감에 미치는 영향.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20**(9), 767-783.

전연숙(2012). 북한이탈주민의 정착 실태 분석. **여성연구논총, 11**(8), 5-32.

전연숙, 이영주, 도레미, 최재령, 박성애(2012). **탈북청소년 대안교육시설 운영 매뉴얼**.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전영주. (2018). **고등학생이 지각한 심리적 안녕감, 사회적 지지, 진로장벽, 진로결정수준의 관계**. 아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전영주, 박미희. (2018). 고등학생의 심리적 안녕감, 사회적 지지와 진로결정수준의 관계에서 진로장벽의 매개효과. **발달지원연구, 7**(2), 23-37.

전용수. (2018). **취업지원관의 사회적지지에 따른 특성화고등학교 학생들이 인식한 진로장벽이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의 변화**. 인천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전우택. (2000). 탈북자들의 남한사회 적응과 심리갈등에 대한 이해. **한국심리학회 학술대회 자료집, 2000**(1), 67-91.

전윤식 외(1988). 부산대학교 신입생의 자아 정체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부산대학교 학생생활연구소 연구보, 24**, 1-44.

전일균. (2002). 발도르프 교육학의 대안학교적 의미연구. **교육철학, 28**, 165-185.

전현준, 신난희, 엄현숙. (2016). **학교 밖 탈북청소년 효율적 대안교육 방안**. 남북하나재단.

정명희. (2011). 결혼이주여성의 한국사회적응 스트레스 발생요인에 대한 실증연구. **국제지역연구, 15**(2), 451-481.

정미나, 노자은. (2016). 청소년 진로성숙의 영향요인에 대한 메타분석. **한국청소년연구, 27**(3), 133-162.

정신실. (2016). **에릭슨의 자아정체성 개념의 재조명**. 울산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정옥분, 정순화, 황현주. (2009). **애착과 발달**. 학지사.

정애리, 유순화. (2014). 북한이탈청소년이 남한사회 적응과정에서 경험하는 인식의 변화에 관한 현상학적 연구. **다문화교육연구, 7**(1), 51-75.

정우창. (2005). **탈북 청소년을 교육하는 남한 자원교사들의 갈등과 적응**. 한양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정인성. (2021). **2020 탈북청소년 실태조사**. 남북하나재단.

정재경. (2019). **북한이탈청소년이 경험하는 가족 및 친구지지가 문화적응 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내적 통제성의 매개효과**.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정재경, 강민주. 북한이탈청소년이 경험하는 가족 및 친구지지와 문화적응 스트레스의 관계에서 내적 통제성의 매개효과. **Family and environment research, 57**(4), 485-498.

정준호, 주은선. (2015). 방과 후 돌봄이 초등학교 고학년 아동의 학교생활 적응에 미치는 영향: 또래애착과 공동체의식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사회연구, 18**(12), 63-98.

정진경. (2002). 북한사람들의 성역할 특성과 가치관: 탈북자 자료.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21**(2), 163-177.

정진경, 양계민. (2004). 문화적응이론의 전개와 현황.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23**(1), 101-136.

정진경, 정병호, 양계민. (2004). 탈북 청소년의 남한학교 적응. **통일문제연구, 16**(2), 209-239.

정진곤. (2011). 북한 이탈 학생들의 의식과 사고방식에 대한 기초연구. **다문화교육연구, 4**(1), 79-97.

정철민, 김규태. (2013). 논어에 나타난 이상적인 교사: 교사리더십을 중심으로. **동방학, 29**, 35-60.

정향진. (2005). 탈북 청소년들의 감정성과 남북한의 문화심리적 차이. **비교문화연구, 11**(1), 81-111.

조명실. (2006). **청소년의 자아정체감, 사회적지지,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이 진로성숙과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 성균관대학교 박사학위논문.

조성심, 최승희. (2011). 학교부적응 중학생을 위한 생태체계관점의 진로탐색 프로그램 개발, **학교사회복지, 20**, 23-54.

조양희. (2019). **북한이탈청소년의 부모화 경험, 자아분화, 또래애착이 자아정체감에 미치는 영향**. 단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조영아. (2007). 새터민의 적응기제와 행동 특성. **의학행동과학, 6**(1), 33-43.

조영아. (2011). 북한이탈주민의 차별경험이 심리적 디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자아존중감과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 **상담학연구, 12**(1), 1-19.

조인수, 손민정, 최정은. (2020). 북한이탈주민의 직업문화충돌과 직업적응에 관한 연구.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21**(1), 354-372.

조정아. (2005). **북한의 노동인력 개발 체계: 형성과 변화**. 통일연구원.

조혜은. (2019). **일반계 고등학생의 진로포부와 부모진로지지, 교사지지, 진로결정자기효능감, 진로결과기대의 구조적 관계**.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좌동훈, 이민영, 지소연. (2016). **탈북 청소년 지원체계화 방안 연구 : 탈북 청소년 역량 진단을 중심으로**.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진미정, 이순형, 김창대. (2009). **탈북인의 사회관계망과 사회적 자본**. 학지사.

차아름. (2012). **심리적 진로장벽, 환경적 진로장벽이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 희망을 매개변인으로**. 가톨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최금해. (2006). **한국남성과 결혼한 중국 조선족 여성들의 한국생활 적응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최명선, 최태산, 강지희. (2006). 탈북 아동 청소년의 심리적 특성과 상담전략 모색. **한국놀이치료학회지(놀이치료연구), 9**(3), 23-34.

최성숙. (2003). **탈북청소년을 위한 미술치료**. 가톨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최성훈(2016). 교사의 다문화역량과 탈북청소년 대상 기독교대안교육. **기독교교육논총, 47**, 255-311.

최영희, 김민선, 서영석. (2012). 한국판 청소년또래애착 척도 타당화 연구: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4**(2), 273-296.

최윤미, 이문희. (2011). 진로성숙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위험요인과 보호요인. **청소년상담연구, 19**(2), 171-187.

최윤희, 김순자. (2011). 국제결혼가정 자녀의 자아정체감이 진로성숙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30**(3), 743-762.

최인아. (2021). **아동의 스트레스 및 사회적지지 지각과 행동문제**.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최인화. (1998). **고등학생의 내외통제성과 진로정체감 및 진로결정과의 관계**. 홍익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최정화. (2016). **북한이탈청년들의 정체성 변화와 적응전략 연구-성찰적 사진 인터뷰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최혜선. (2019). **고등학생의 성격강점과 진로정체감의 관계**.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최희경. (2006). **가정의 심리적 환경과 고등학생의 진로성숙도 및 의사결정과의 관계**. 원광대학교 석사학위논문.

통일부 정착지원과. (2020). **2020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실무편람**. 통일부.

피기용. (2005). **고등학생들의 진로정체감, 진로결정 수준 및 진로성숙도와의 관계**. 한서대학교 석사학위논문.

하성헌. (2006). **부모, 친구와의 애착정도가 진로성숙도에 미치는 영향: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 경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한국교육개발원. (1991). **진로성숙도 표준화 연구**. 한국교육개발원.

한국직업능력개발원(2016). **탈북학생을 위한 학교진로상담(지도) 운영 매뉴얼**. 한국직업능력개발원.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13). **전문가워크숍자료집 13-S36: 탈북청소년 사회통합을 위한 정책과제 탐색**.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한나, 이승연, 이지영. (2017). 북한이탈 청년의 문화적응에 따른 군집유형별 문화적응 스트레스, 일상적 차별감, 남/북 공동체지지 간 차이.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31(2)**, 77-100.

한미현. (1996). **아동의 스트레스 및 사회적지지 지각과 행동문제**.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한미현, 유안진. (1996). 아동의 스트레스 및 사회적 지지 지각의 행동문제. **아동학회지, 17**(1), 173-188.

한종철, 이기학. (1997). 진로태도 측정도구의 타당화를 위한 연구. **진로교육연구, 8**, 219-255.

한혜성. (2012). **다문화가정 자녀의 부모-자녀간 의사소통과 학생생활적응의 관계: 자아탄력성의 매개효과와 사회적 지지효과를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허승연. (2009). **청소년의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생태체계변인**. 숙명여자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허은영, 강혜영. (2007). 탈북청소년과 남한청소년의 진로성숙도와 진로자기효능감 비교. **상담학연구, 8**(4), 1485-1500.

허재경, 김유숙 (2005). 부모애착안정성과 사회적 지지가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10**(4), 483-495.

허혜경, 김혜수. (2010). **청년발달**. 학지사.

현미희. (2019). **탈북청소년의 진로 진학 실태와 문제 해결 방안 연구: 경기도 A학교 사례 중심으로**. 공주교육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홍미기. (2010). **결혼이주여성이 인지한 문화적응스트레스와 부부 적응에 관한 연구: 사회적 지지와 부부의사소통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홍미자. (2006). **한부모가정 아동의 또래애착과 우울성향 및 대인관계성향과의 관계**. 서울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홍순혜, 이숙영, 김선화. (2010). 북한이탈청소년의 문화변용 추적과 남한 사회적응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복지학, 62**(1), 343-365.

황매향, 박혜영. (2005). 대학생의 진로발달과 학교적응도와의 관계. **고용직업능력개발연구. 8**(2), 157-176.

황매향, 유성경, 이은설. (2005). 청소년용 여성진로장벽 척도의 개발 및 구인타당도 검증. **상담학연구, 6**(4), 1205-1224.

황매향, 이아라, 박은혜. (2005). 청소년용 남성 진로장벽 척도의 타당도 검증 및 잠재평균 비교. **한국청소년연구, 16**(2), 125-159.

황미경. (2010). **다문화가정 아동의 부모애착, 또래애착 및 사회불안과의 관계 연구.** 부경대학교 석사학위논문.

Ahwarn, F. & Athey, J. (Eds). (1991). *Refugees children: Theory research and service*. Baltimore: John Hopkins Universirty Press.

Armsden, G. C., & Greenberg M. T. (1987). The inventory of parent and peer attachment: Individual differences and their relationship to psychological well-being in adolescence.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16*(5). 427-454.

Atkinson, D. R., Morton, G., & Sue, D. W. (1998). *Counseling American Minorities*. San Francisco: McGraw-Hill.

Bandura, A. (1986). *Social foundations of thought and action*. Englewood Cliffs, NJ: Prentice Hall.

Barbara G. T., & Linda S. F. (2001). *Using multivariate statistics-Structural equation modeling*. London: Pearson.

Beck, A. (1972). *Depression: Clinical, Experimental, and Theoretical Aspects*. New York: Hoeber Medical Division.

Beiser, M., Barwick, C., & Berry, J. W. (1988). *Mental Health issues affecting immigrants and refugees*. Ottawa: Health and Welfare Canada.

Berry, J. W., & Annis, R. C. (1974). Acculturative stress: The role of ecology, culture and differentiation. *Journal of Cross-Cultural Psychology, 5*(4), 382-406.

Berry, J. W., & Sabatier, C. (2010). Acculturation, discrimination, and adaptation among second generation immigrant youth in Montreal and Paris. *International Journal of Intercultural Relations, 34*(3), 191-207.

Berry, J. W., Phinney, J. S., Sam, D. L., & Vedder, P. (2006). Immigrant youth: Acculturation, identity, and adaptation. *Applied Psychology, 55*(3), 303-332.

Block, J. H., & Block, H. (1980). The role of ego-control and ego-resilient in the organization of behavior. *Minnesota Symposia on child psychology, 13*, 39-101.

Block, J. H., & Kremen, A. M. (1996). IQ and ego-resiliency: Conceptual and empirical connections and separatenes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0*(2), 349-361.

Blustein, D. L., McWhirter, E. H., & Perry, J. C. (2005). An emancipatory communitarian approach to vocational development theory, research, and practice, *The Counseling Psychologist, 33*(2), 141-179.

Bowlby, J. (1969). *Attachment and Loss*. Basic Books.

Bosma, H. A. (1985). *Identity development in adolescence: Coping with commitments*. Doctoral dissertation, Rijksuniversiteit te Groningen.

Cardoso, P., & Marques, J. F. (2008). Perception of career barriers: The importance of gender and ethnic variables. *International Journal for Educational and Vocational Guidance, 8*(1), 49-61.

Cassel, J. (1976) The Contribution of the Social Environment to Host Resistance. *American Journal of Epidemiology, 104*, 107-123.

Cobb, S. (1976). Social support as a moderator of life stress. *Psychosomatic Medicine, 38*(5), 300-314.

Cohen, S., & Hoberman, H. M. (1983). Positive event and support as buffers of life change stress. *Journal of Applied Social Psychology*, *13*, 99-125.

Colins, G. R. (2007). Christian Counseling. Nsshville: Thomas Nelson. commitment and exploration: Preliminary validation of an integrative decision-making self-efficacy, vocational identity, and career exploration behavior in African American high school students, *Journal of Career Development, 33*(1), 19-28.

Collins, W. A., & Repinski, D. J. (1994). Relationships during adolescence: Continuity and change in interpersonal perspective. In R. Montemayor, G. R. Adams, & T. P. Gullotta (Eds.), *Personal relationships during adolescence*(pp. 7-36). Sage Publications Inc.

Davidson, L. M., & Demaray, M. K. (2007). Social support as a moderator between victimization and internalizing-externalizing distress from bullying. *School Psychology Review, 36*(3), 383-405.

Diemer, M. A., & Blustein, D. L. (2007). Vocational hope and vocational identity: Urban adolescents' career development, *Journal of Career Assessment, 15*(1), 98-118.

Dignan, M. H. (1965). Ego identity and maternal identificat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1*(5), 476-483.

Dubow, E. F., & Ullman, D. G. (1989). Assessing social support in elementary school children: The survey of children's social support. *Journal of Clinical Child Psychology, 18*(1), 52-64.

Erath, S, A., Flanagan, K. S., & Bierman, K. L. (2008). Early Adolescent School Adjustment: Associations with Friendship and Peer Victimization. *Social Development, 1*(4), 853-870.

Erikson, E. (1968). *Identity: Youth and crisis*. New York: Norton.

Erikson, E. H. (1956). The problem of ego identity. *Journal of the American Psychoanalytic Association, 4*(1), 56-121.

Felsman, D. E., & Blustein, D. L. (1999). The role of peer relatedness in late adolescent career development.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39*(6), 1191-1200.

Felsman, D. E., & Blustein, D. L. (1999). The role of peer relatedness in late adolescent career development.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54*(2), 279-295.

Forster, E. M. (1997). Teacher Leadership: Professional Right and Responsibility. *Action in Teacher Education, 19*(3), 82-94.

Franco, M., Hsiao, Y. S., Gnilka, P. B., & Ashby, J. S. (2019). Acculturative stress, social support, and career outcome expectations among international students. *International Journal for Educational and Vocational Guidance, 19*(2), 275-291.

Garmezy, N. (1983). *Stressors on childhood, In N. Garmezy. & Rutter(Eds.), Stress, Coping, and Development in Children*, New York: McGraw-Hill.

Gribbons, W. D., & Lohnes, P. R. (1964). Relationships among measures of readiness for vocational planning.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11*(1), 13-19

Grills, A., & Ollendick, T. (2002). Peer Victimization, Global Self-Worth, and Anxiety in Middle School Children. *Journal of Clinical Child & Adolescent Psychology, 31*(1), 59-68.

Grills-Taquechel, A. E., Norton, P., & Ollendickb, T. H. (2010). A longitudinal examination of factors predicting anxiety during the transition to middle school. *Anxiety Stress Coping, 23*(5), 493-513.

Gushue, G. V., Scanlan, K. R., Pantzer, K. M., & Clarke, C. P. (2006). The relationship of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vocational identity, and career exploration behavior in African American high school students, *Journal of Career Development, 33*(1), 19-28.

Hankin, B. L., & Abramson, L. Y. (2001). Development of Gender Differences in Depression: An Elaborated Cognitive Vulnerability-Transactional Stress Theory. *Psycho Bull, 127*(6), 773-796.

Hawker, D., & Boulton, M. (2000). Twenty Years' Research on Peer Victimization and Psychosocial Maladjustment: A Meta-analytic Review of Cross-sectional Studies. *The Journal of Child Psychology and Psychiatry and Allied Disciplines, 41*(4), 441-455.

Heider, F. (1958). *The Psychology of Interpersonal Relations*. New York: Wiley.

Hirichi, A., & Herrmann, A. (2012). Vocational identity achievement as a mediator of presence of calling and life satisfaction. *Journal of Career Assessment, 20*(3), 309-321.

Hirschi, A. (2012). Vocational identity trajectories: Differences in personality and development of well-being. *European Journal of Personality, 26*(1), 2-12.

Holland, J. J., Gottfredson, D. C., & Power, P. G. (1980). Some diagnostic scales for research in decision making and personality: Identity, information, and barrier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39*(6), 1191-1200.

Holland, J. J., Gottfredson, D. C., & Power, P. G. (1980). Some diagnostic scales for research in decision making and personality: Identity, information, and barrier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39*(6), 1191-1200.

Holland, J. L. (1985). *Making Vocational Choice: A theory of vocational personalities and work environment(2nd)*. New York: Prentice-Hal.

Holland, J. L., Gottfredson, D. C., & Power, P. G. (1980), Some diagnostic scales and signs for the selection of vocational treatment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39*, 1191-1200.

Holland, J. L., Johnston, J. A., & Asama, N. F. (1993). The Vocational Identity Scale: A diagnostic and treatment tool. *Journal of Career Assessment, 1*(1), 1-12.

Holland, J. L., Gottfredson., D. C., & P. G. Power. (1980). Some Dagnostic Scales fo Research in Decision Making and Personality: Identity Information, and barrier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39*(6), 1191-1200.

Hovey J. D., & Magana, C. G. (2002). Cognitive, Affective, and Physiological Expressions of Anxiety Symptomatology Among Mexican Migrant Farmworkers: Predictors and Generational Differences. *Community Mental Health Journal, 38*(3), 223-237.

Hoyt, K. B. (1977). *The School Counselor and Career Education*. Washington D. C. : U.S. Government Printing Office.

Juang, L. P., & Cookston, J. T. (2009). Acculturation, discrimination, and depressive symptoms among Chinese American adolescents: A longitudinal study. *The Journal of Primary Prevention, 30*(3-4), 475-496.

Keith, T, Z. (2019). **다중회귀분석을 넘어: 다중회귀분석과 구조방정식모델링 소개**(노석준, 박만식, 김인숙, 역). 학지사. (2019).

Kelley, K., & Maxwell, S. E. (2003). Sample size for multiple regression: Obtaining regression coefficients that are accurate and not simply significant. *Psychological Methods, 8*, 305-321.

Kim, Y. H., & O'Brien, K. M. (2018). Assessing women' s career barriers across racial/ethnic groups: The Perception of Barriers Scale.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65*(2), 226-238.

Koumoundourou, G. A., Kounenou, K., & Siavara, E. (2012). Core self-evaluations, career decision self-efficacy, and vocational identity among Greek adolescents. *Journal of Career Development, 39*(3), 269-286.

Kroger, J., & Marcia, J. E. (2011). The identity statuses: Origins, meanings, and interpretations. In S. J. Schwartz, K. Luyckx, & V. L. Vignoles (Eds.), *Handbook of identity theory and research* (pp. 31-53). New York: Springer Science & Business Media.

Laible, D., Carlo, G., Roesch, S. (2005). Peer Attachment, Empathy, and Social Behaviors. *Journal of Adolescence, 27*(6), 703-16.

Lent, R. W., Brown, S. D., & Hackett, G. (1994). Toward a unifying social cognitive theory of career and academic interest, choice, and performance.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45*(1), 79-122.

Lent, R. W., Brown, S. D., & Hackett, G. (2000). Contextual supports and barriers to career choice: A social cognitive analysis.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47*(1), 36-49.

Lent, R. W., Brown, S. D., & Hackett, G. (2000). Contextual supports and barriers to career choice: A social cognitive analysis.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47*, 36-49.

Liamputtong, P., & Naksook, C. (2003). Life as mothers in a new land: The experience of motherhood among Thai women in Australia. *Health Care for Women International, 24*(7), 650-668.

Liebkind, K. (2006). Ethnic identity and acculturation. In D. L. Sam & J. W. Berry (Eds.), *The Cambridge handbook of acculturation psychology* (pp. 78-96).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London, M. (1997). Overcoming career barriers: A model of cognitive and emotional processes for realistic appraisal and constructive coping. *Journal of career development, 24*(1), 25-38.

Luyckx, K., Goossens, L., Soenens, B., & Beyers, W. (2006). Unpacking commitment and exploration: Preliminary validation of an integrative model of late adolescent identity formation. *Journal of Adolescence, 29*, 361-378.

Luyckx, K., Schwartz, S. J., Goossens, L., Beyers, W., & Missotten, L. (2011). Processes of personal identity formation and evaluation. In S. J. Schwartz, K. Luyckx, & V. L. Vignoles (Eds.), *Handbook of identity theory and research* (pp. 77-98). New York: Springer Science & Business Media.

Marcia, J. E. (1980). Identity in adolescence. *Handbook of adolescent psychology* (pp. 109-137). New York: Wiley.

Marcia, J. E. (1993). The ego identity status approach to ego identity. In J. E. Marcia, A. S. Waterman, D. R. Matteson, S. L. Archer, & J. L. Orlofsky (Eds.), *Identity: A handbook for psychosocial research* (pp. 3-21). New York: Springer-Verlag.

Marko, K. W., & Savickas, M. L. (1998). Effectiveness of a career time perspective intervention.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52*(1), 106-119.

McDougall, P., & Vaillancourt, T. (2015). Long-term adult outcomes of peer victimization in childhood and adolescence: Pathways to adjustment and maladjustment. *American Psychologist, 70*(4), 300-310.

McWhirter, E. H. (1997). Perceived barriers to education and career: Ethnic and gender differences.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50*, 124-140.

Meeus, W. (1996). Studies on identity development in adolescence: An overview of research and some new data.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25*(5), 569-598.

Meeus, W., & Dekovic, M. (1995). Identity development, parental and peer support in adolescence: Results of a national Dutch survey. *Adolescence, 30*, 931-944.

Morse, N. C., & Weiss, R. S. (1968). *The Function and Meaning of Work and The Job*. New York: Holt, Rinehart and Winstin, Inc.

Mortimer, J. T., Zimmer-Gembeck, M. J., Holmes, M., & Shanahan, M. J. (2002). The process of occupational decision making: Patterns during the transition to adulthood.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61*, 439-465.

Naidoo, J. C. (1985). A cultural perspective on the adjustment of South Asian women in Canada. In L. R. Lagunes & Y. H. Poortinga (Eds.), From a different perspective: *Studies of behavior across cultures*(pp. 76-92). Amsterdam: Swets & Zeitlinger.

Nolten, P. W. (1994). *Conceptualization and measurement of social support: The development of the student social support scale.*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Wisconsin, Madison.

Patrick, H., Ryan, A. M., & Kaplan, A. (2007). Early adolescents' percerptions of the classroom social enviornment, motivational beliefs, and engagement.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99*(1), 83.

Porfeli, E. J., Lee, B., & Vondracek, F. W. (2013) Identity development and careers in adolescents and emerging adults: Content, process and structure. In W. B. Walsh, M. L. Savickas, & P. J. Hartung (Eds.), *Handbook of Vocational Psychology: Theory, Research and Practice* (pp. 133-153). New York: Routledge.

Porfeli, E. J., Lee, B., Vondracek, F. W., & Weigold, I. K. (2011). A multi-dimensional measure of vocational identity status. *Journal of adolescence, 34*(5), 853-871.

Poyrazli, S., Kavanaugh, P. R., Baker, A., & Al-Timimi, N. (2004). Social Support and Demographic Correlatesm of Acculturative Stress in International Students. *Journal of College Counseling, 7*, 73-82.

Ramos, M. R., Cassidy, C., Reicher, S., & Haslam, S. A. (2016). A longitudinal study of the effects of discrimination on the acculturation strategies of international students. *Journal of Cross-Cultural Psychology, 47*(3), 401-420.

Rangaraj, A. (1988). The health status of refugees in Southeast Asia in D, Miserez (Ed.), *Refugee: The Trauma of exile* (pp.39-44). Dordrecht, Netherlands: Nijhoff.

Rodriguez, N., Myers, H. F., Mira, C. B., Flores, T., & Garcia-Hernandez, L. (2002). Development of the multidimensional acculturative Stress inventory for adults of Mexican origin. *Psychological Assessment, 14*(4), 451-461.

Romero, A. J., Carvajal, S. C., Valle, F., & Orduna, M. (2007). Adolescent bicultural stress and its impact on mental well-being among Latinos, Asian Americans, and European Americans. *Journal of Community Psychology, 35*(4), 519-534.

Rosental, B. S. (1995). The influence of social support on school completion among Haitian. *Journal of Social Work in Education, 17*, 30-39.

Rutter, M. (1987). Psychosocial resilience and protective mechanism. *American Journal of Orthopsychiatry, 57*, 316-331.

Sam, D. L., & Berry, J. W. (1995). *International Migration and International Trade*. Washington DC: World Bank.

Sanders-Phillips, K. (2009). Racial discrimination: A continuum of violence exposure for children of color. *Clinical Child and Family Psychology Review, 12*(2): 174-195.

Saunders, D. E., Peterson, G. W., Sampson Jr, J. P., & Reardon, R. C. (2000). Relation of depression and dysfunctional career thinking to career indecision.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56*(2), 288-298.

Sandhu, D. S., & Asrabadi, B. R. (1994). Development of an acculturative stress scale for international students: Preliminary findings. *Psychological reports, 75*(1), 435-448.

Saunders, D. E., Peterson, G. W., Sampson Jr, J. P., and Reardon, R. C. (2000). Relation of depression and dysfunctional career thinking to career indecision.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56*(2). 288-298.

Savickas, M. L. (2012). Life design: A paradigm for career intervention in the 21st century. *Journal of Counseling & Development, 90*, 13-19.

Schmitt, M. T., Branscombe, N. R., Postmes, T., & Garcia, A. (2014). The consequences of perceived discrimination for psychological well-being: A meta-analytic review. *Psychological Bulletin, 140*(4), 921-948.

Schwartz, K., Luyckx., & Vignoles V. L. (Eds.), *Handbook of identity theory and research*. New York: Springer Science & Business Media.

Sewell, W. H., Hauser, R. M., Blau, P., & Duncan, O. D. (1992). The Influence of The American Occupational Structure on the Winsconsin Model. *Contemporary Sociology, 21*(5), 598-603.

Skorikov, V. B., & Vondracek, F. W. (2011). Occupational identity. In S. J. Schwartz, K. Luyckx, & V. L. Vignoles (Eds.), *Handbook of identity theory and research* (pp. 693-714). New York: Springer.

Stevens J., P. (2009). *Applied multivariate statistics for the social sciences(5th ed)*. New York: Routledge.

Strauser, D. R., Lustig, D. C., & Ciftci, A. (2008). Psychological well-being: Its relation to work personality, vocational identity, and career thoughts, *The Journal of Psychology*, 142(1), 21-35.

Super, D. E. (1955). Dimensions and measurement of vocational maturity. *Teachers College Record, 57*, 151-163.

Super, D. E. (1957). *The psychology of careers*. New York: Academic Press.

Super, D. E. (1984). A life-span, life-space approach to career development.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16*(3), 282-296.

Super, D. E. (1990). A Life-span, Life-space Approach to Career Development., In D. Brown, L.Brooks & others, (Eds.), *Career Choice and Development: Applying Contemporary Theories to Practice, 2nd ed*. (pp.197-261) San Francisco: Jossey-Bass.

Super, D. E., & Hall, D. T. (1978). Career development: Exploration and planning. *Annual Review of Psychology, 29*, 333-372.

Swanson, J. L., Danniels, K. K., & Tokar, D. M. (1996). Measuring perceptions of career-related barriers: The career barriers inventory.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22*, 63-81.

Swanson, J. L., & Woitke, M. B. (1997). Theory into practice in career assessment for women: Assessment and interventions regarding perceived career barriers. *Journal of Career Assessment, 5*(4), 443-462

Swanson, J. L., & Tokar, D. M. (1991). Development and initial validation of the Career Barriers Inventory.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39*(3), 344-361.

Tabachnick, B. G., & Fidell L., S. (2007). *Using multivariate statistics(5th ed).* Allyn &Bacon/Pearson Education.

Taylor, D. M., & Lambert, W. E. (2010). The Meaning of Multiculturalism in a Culturally Diverse Urban American Area. *The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136*(6), 727-740.

Tiedman, D. V., & O'Hara, R. P. (1963). *Career development: Choice and adjustment*. New York: College Entrance Examination Board.

Turner, J. C., Brown, R. J., & Tajfel, H. (1979). Social comparison and group interest in ingroup favouritism. *European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9*(2), 187-204.

Van Hoof, A. (1999). The identity status field re-reviewed: An update of unresolved and neglected issues with a view on some alternative approaches. *Developmental Review, 19*(4), 497-556.

Vignoli, E., Croity-Belz, S., Chapeland, V., de Fillipis, A., & Garcia, M. (2005). Career exploration in adolescents: The role of anxiety, attachment, and parenting style.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67*(2), 153-168.

Wallace-Broscious, A., Serafica, F. C., & Osipow, S. H. (1994). Adolescent career development: Relationships to self-concept and identity status, *Journal of Research on Adolescence, 4*(1), 127-149.

Wanberg, C. R., & Munchinsky, P. M. (1992). A type of career decision status: Validity extension of the vocational decision status model.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39*(1), 71-80.

Waterman, A. S. (1985). Identity in the context of adolescent psychology. *Child and Adolescent Development, 30*, 5-24.

Watts, A. G. (2001). Career guidance and social exclusion: A cautionary tale. *British Journal of Guidance and Counselling, 29*(2), 157-176.

Weiss, D. J. (1982). Improving measurement quality and efficiency with adaptive theory. *Applied Psychological Measurement, 6*(4), 473-492.

Wienke, C, M., Totura, A., Marc, E. G., Ellis, S. K., Gesten, L. (2009). Multiple informants in the assessment of psychological, behavioral, and academic correlates of bullying and victimization in middle school. *Journal of Adolescence. 32(*2), 193-211.

Wilkinson, R. B. (2008). Development and properties of the adolescent friendship attachment scale. *Journal of Adolescent*, 33, 709-717.

Willie B. Henderson & William L. Berry. (1977). Determining optimal shift schedules for telephone traffic exchange operators. *Decion Sciences, 8*(1), 239-255.

Yeh, C. J., & Inose, M. (2003). International Student 's reported English fluency, social support satisfaction and social connectedness as predictors of acculturative stress, *Counselling Psychology, 16*(1), 15-28.

Ying, Yu-Wen & Liesea, L. H. (1991). Emotional well-being of Taiwan students in the U.S.: An examination of pre-to post-arrival differential. *International Journal of Intercultural Relations. 15*(3), 345-366.

Zunker, V. G. (1986). *Career Counselling: Applied Concepts of Life Planning*. CA: Cole Publishing Company.

【부록 1】 본 조사 질문지

탈북 고등학생의 진로정체감과 문화적응 스트레스, 진로장벽의 관계에서 사회적 지지의 조절효과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 질문지는 여러분의 학교 선생님의 지원과 친구의 지지, 평소 느끼고 있는 진로와 관련된 어려움, 남한에서 겪는 문화적 차이로 인한 스트레스가 여러분들이 자신의 진로에 대해 인식하는데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파악하기 위해 제작되었습니다.

질문지는 총 9면이며 응답 소요 시간은 약 10 ~ 15분 정도입니다. 조사결과는 통계법에 의거하여 익명으로 처리되므로 여러분의 개인정보는 유출되지 않으며, 정해진 답이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께서 작성해주신 질문지는 매우 귀중한 자료가 되오니 한 문항도 놓치지 않고 응답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소중한 시간을 내어 질문지 작성에 협조해 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여러분의 가슴을 뛰게 하는 진로를 선택하고 그 꿈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멋진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질문지와 관련해 궁금한 점이 있으면 언제든지 아래의 연락처로 연락주세요. 감사합니다.

2021년 09월

서울대학교 농산업교육과

대학원생 김 동 주

지도교수 정 철 영

Ⅰ. 다음은 여러분이 자신과 진로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에 대한 문항입니다. 각 문항을 읽으신 후, 가장 일치한다고 생각되는 정도를 선택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보통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현재의 진로선택을 올바르게 했는가에 대해서 다시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①	②	③	④	⑤
2	나는 현재의 나의 흥미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바뀔지 몰라서 염려가 된다.	①	②	③	④	⑤
3	나는 내가 잘 할 수 있는 직업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아직 확신이 없다.	①	②	③	④	⑤
4	나는 나의 장점이 무엇이고 약점이 무엇인지를 잘 모른다.	①	②	③	④	⑤
5	내가 할 수 있는 직업은 내가 원하는 종류의 삶을 살 수 있을 만큼 나에게 만족을 줄 수 없을지도 모른다.	①	②	③	④	⑤
6	만약 내가 지금 당장 직업선택을 해야만 한다면, 잘못된 선택을 할까봐 걱정이 된다.	①	②	③	④	⑤
7	나는 내가 어떤 종류의 진로를 탐색야만 할 것인가를 알아야 할 필요성을 느낀다.	①	②	③	④	⑤
8	나에게 있어서 진로에 관한 결심을 하는 것은 오래된 문제임과 동시에 어려운 문제이다.	①	②	③	④	⑤
9	나는 진로에 관한 결정의 전반적인 문제에 관하여 혼란을 느낀다.	①	②	③	④	⑤
10	나는 진로선택에 관한 현재의 내 결정이 올바른 것인지에 대해서 확신이 없다.	①	②	③	④	⑤
11	나는 여러 가지 직업 분야에서 실제로 어떤 일들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충분히 알지 못한다.	①	②	③	④	⑤
12	특정한 어느 한 직업이 나에게 강한 매력을 주지는 않는다.	①	②	③	④	⑤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보통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13	나는 내가 즐겁게 일할 수 있는 직업이 어느 것인지에 대해서 확신이 없다.	①	②	③	④	⑤
14	나는 내가 고려할 수 있는 직업의 숫자를 늘리고 싶다.	①	②	③	④	⑤
15	나의 능력이나 재능에 관한 평가는 시간이 지날수록 자신감이 없는 쪽으로 가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16	여러 가지 생활 영역에 있어서 나 자신에 대해 확신이 없어져 간다.	①	②	③	④	⑤
17	내가 원하는 직업이 무엇인가를 아직 알아내지를 못하였다.	①	②	③	④	⑤
18	나는 사람들이 어떻게 자신들이 원하는 직업을 찾아서 착수할 수 있는지 이해할 수 없다.	①	②	③	④	⑤

Ⅱ. 다음은 여러분이 남한 생활 중에 겪는 스트레스에 관한 질문입니다. 각 문항을 읽으신 후, 자신의 생각과 가장 일치한다고 생각되는 정도를 선택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보통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1	사람들이 나를 남한 청소년과 다르게 대우한다.	①	②	③	④	⑤
2	성공할 기회가 나에게는 주어지지 않는다.	①	②	③	④	⑤
3	남한사람들이 나에 대해 좋지 않게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4	나는 남한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이 부담스럽다.	①	②	③	④	⑤
5	종종 고향집이나 고향친구에 대한 꿈을 꾼다.	①	②	③	④	⑤
6	남한의 사고방식에 맞추기가 힘들다.	①	②	③	④	⑤
7	남한 말(외래어, 한자)로 의사소통하려니 힘들다.	①	②	③	④	⑤
8	남한 청소년과 노는 문화가 달라 끼기가 힘들다.	①	②	③	④	⑤
9	나는 남한사회에 소속된 느낌이 안든다.	①	②	③	④	⑤
10	내가 북한에서 왔기 때문에 피하는 것 같다.	①	②	③	④	⑤
11	다른 나라로 가서 살고 싶다는 생각이 든다.	①	②	③	④	⑤
12	나는 여기 오지 않았으면 좋았을 거라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13	남한의 학교 분위기나 공부 방식이 달라 힘들다.	①	②	③	④	⑤
14	고향 생각이 나서 힘들다.	①	②	③	④	⑤
15	고향과 고향사람들이 그립다.	①	②	③	④	⑤
16	두려움 때문에 사람들 눈에 뛰지 않고 살려고 한다.	①	②	③	④	⑤

Ⅲ. 다음은 여러분이 평소 느끼고 있는 진로와 관련된 어려움에 관한 질문입니다. 각 문항을 읽으신 후, 자신의 생각과 가장 일치한다고 생각되는 정도를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남녀공통).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보통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어떤 일을 잘 할 수 있는지 모르겠다.	①	②	③	④	⑤
2	나는 나를 잘 몰라서 앞으로 무엇을 해야할지 모르겠다.	①	②	③	④	⑤
3	나는 나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모르겠다.	①	②	③	④	⑤
4	나는 무엇을 하든 자신감이 부족하다.	①	②	③	④	⑤
5	나는 내가 원하는 직업을 가질 만큼 실력이 안된다.	①	②	③	④	⑤
6	나는 한국어를 못해서 내가 원하는 직업을 가질 수 없을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7	게임과 TV 등 주위 유혹을 이기지 못해서 미래가 걱정된다.	①	②	③	④	⑤
8	나는 힘든 일이 생기면 해결할 수 없을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9	나는 내가 어떤 일을 좋아하는지 모르겠다.	①	②	③	④	⑤
10	나는 이성친구가 내가 선택한 직업을 좋아하지 않을까봐 걱정이 된다.	①	②	③	④	⑤
11	부모님의 기대 때문에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지 못할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12	부모님의 반대나 참견으로 직업선택이 자유롭지 못할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13	내가 선택한 직업을 친구들이 좋지 않게 얘기하면 그 직업이 싫어진다.	①	②	③	④	⑤
14	우리 선생님께서 내가 원하는 직업이 나와 맞지 않다고 하면 포기할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15	내가 원하는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실제로 어떤 일을 하는지 모른다.	①	②	③	④	⑤
16	내가 원하는 직업을 가지기 위해서 어떤 준비를 해야 하는지 모른다.	①	②	③	④	⑤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보통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17	나는 직업의 다양한 종류에 대해서 모른다.	①	②	③	④	⑤
18	나는 관심 있는 직업에 대한 정보를 어디서 찾을 수 있는지 모른다.	①	②	③	④	⑤
19	나는 미래에 직업이 없을까봐 두렵다.	①	②	③	④	⑤
20	나는 앞으로 원하는 직업을 찾지 못할까봐 불안하다.	①	②	③	④	⑤
21	내가 원하는 직업은 인기가 많아서 불안하다.	①	②	③	④	⑤
22	내가 선택한 직업이 앞으로 인기가 떨어질까봐 걱정이다.	①	②	③	④	⑤
23	가정 형편이 좋지 않아 원하는 직업을 갖지 못할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24	형편이 어렵기 때문에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직업을 선택해야 한다.	①	②	③	④	⑤
25	내가 원하는 직업을 갖기 위해서는 돈이 많이 들어 고민된다.	①	②	③	④	⑤

Ⅲ-1. 다음은 여러분이 평소 느끼고 있는 진로와 관련된 어려움에 관한 질문입니다. 각 문항을 읽으신 후, 자신의 생각과 가장 일치한다고 생각되는 정도를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남학생 추가질문).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보통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남자이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직업을 가져야 한다.	①	②	③	④	⑤
2	나는 남자이기 때문에 가족을 위해 돈을 잘 버는 직업을 선택해야 한다.	①	②	③	④	⑤
3	나는 남자이기 때문에 직장에서 성공해야 한다.	①	②	③	④	⑤
4	나는 남자라서 여자보다 사회적으로 성공하기 쉽다.	①	②	③	④	⑤
5	내가 공부를 못하면 여자들에게 인기가 없을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Ⅲ-2. 다음은 여러분이 평소 느끼고 있는 진로와 관련된 어려움에 관한 질문입니다. 각 문항을 읽으신 후, 자신의 생각과 가장 일치한다고 생각되는 정도를 선택해주시기 바랍니다(여학생 추가질문).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보통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결혼을 하면 직업을 갖지 않을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2	나의 행복은 내 능력보다 미래의 남편 능력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3	나는 여자라서 돈을 많이 벌지 못할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4	나는 여자이기 때문에 직장에서 차별대우를 받을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5	내가 여자이기 때문에 선택할 수 있는 직업은 적다.	①	②	③	④	⑤

Ⅳ. 다음은 학교 선생님과 친구들이 평소 여러분에게 제공하는 지지와 관련된 질문입니다. 각 문항을 읽으신 후, 자신의 생각과 가장 일치한다고 생각되는 정도를 선택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보통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친구들이 나를 좋아한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2	나는 친구들이 나를 따돌린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3	나는 내 생각이나 말을 친구들이 잘 들어준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4	나와 내 친구들은 서로 도움을 주고받는다.	①	②	③	④	⑤
5	나는 내가 어려울 때 격려해 줄 수 있는 친구들이 있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6	나의 친구들은 나에게 관심이 있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7	나는 친구들이 나를 잘 이해해 준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8	나는 친구들 중에 나와 가까이 있기를 좋아하는 친구가 있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9	나는 선생님과 매우 가깝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10	우리 선생님은 나를 좋지 않게 본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11	나는 선생님과 이야기하기가 어렵다.	①	②	③	④	⑤
12	우리 선생님은 나에게 관심이 많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13	내가 도움을 요청하면 우리 선생님은 잘 들어주실 거라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14	우리 선생님은 나를 중요하게 여긴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15	우리 선생님은 내 기분을 나쁘게 한다.	①	②	③	④	⑤
16	우리 선생님은 나를 잘 이해해 준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Ⅴ. 다음은 여러분의 일반적 사항에 대한 문항입니다. 모든 정보는 익명으로 처리되며, 연구의 목적으로만 사용되므로 누락 없이 기입해주시기 바랍니다.

1. 생년은 언제입니까?	(　　) 년
2. 성별은 어떻게 됩니까?	① 남　　② 여
3. 하나원 기수가 어떻게 되십니까?	(　　) 기
4. 한국에 입국한 시기는?	(　　) 년 (　　) 월
5. 북한에서 가장 오랫동안 거주했던 도는 어디십니까?	(　　) 도
6.현재 남한에서의 가족 구성은 어떻게 되십니까? ① 부모님과 형제자매 ② 부모님 ③ 부모님 중 한 분(어머니 / 아버지)과 형제자매 ④ 형제자매 ⑤ 혼자 ⑥ 보호시설 ⑦ 기타 (　　)	
7. 재학 중인 학교의 유형과 이름은 어떻게 되나요? ① 일반 고등학교 (인문계, 특성화, 특목고 등)　　② 대안학교	

- 끝까지 응답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Abstract

The Moderating Effects of Social Support on the Relationship between Acculturative Stress, Career Barriers and Career Identity of North Korean Defectors' High School Students in South Korea

by Dong-joo Kim

Thesis for Master for Science in Education
in the Graduate School in Seoul National University, Korea, 2022

Major Advisor: Chyul-young Jyung, Ph. D.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verify the moderating effect of social support in the relationship between acculturative stress, career barrier, and career identity of high school students who defected from North Korea. To achieve this goal, acculturative stress, career barrier, career identity, and social support level were verified according to demographic characteristics of high school North Korean defectors, and the mediating effect of career barrier and social support i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two variables.

Summarizing the results of this study, first, the career barrier of high school students who defected from North Korea had a significant effect on career identity. Second, it was found that the career barrier of high school North Korean defectors had a complete mediating effect in the relationship

between acculturative stress and career identity. Third, it was found that social support did not control the mediating effect of career barriers in the relationship between acculturative stress and career identity of high school students who defected from North Korea. In addition, social support was found to have a moderating effect in the relationship between acculturative stress and career identity.

The conclusions obtained through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it was found that the career barrier of high school North Korean defectors had a strong negative effect on career identity, and completely mediated the relationship between acculturative stress and career identity. This means that high school students who defected from North Korea have high career barriers due to acculturative stress in South Korea, and shows that it is acting as a key factor hindering the development of career identity. Second, social support did not alleviate the stress of cultural adaptation and career barriers of high school students who defected from North Korea. This is because high school students who defected from North Korea feel the stress of cultural adaptation and the resulting career barriers, and it shows that social support at the psychological level is not working effectively. Third, it was confirmed that male students had significantly higher gender role conflicts than female students. This is consistent with the results of previous studies showing that adolescents who defected from North Korea have a low adult status due to gender discrimination caused by North Korea's patriarchal culture. Fourth, the relatively high lack of self-understanding and job information can be seen as reflecting the characteristics of North Korean refugee youth groups, such as confusion of self-identity experienced in the process of hiding their identity. Fifth, the nostalgia of high school students who defected to North Korea without family members was significantly higher than that of high school students who lived with their families. In the

latter case, it can be predicted that they can be more easily exposed to problems in terms of socio-cultural deviance due to the lack of proper protection and interest of guardians.

Suggestions for follow-up studies drawn based on the conclusion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it is necessary to develop a tool that can reflect the characteristics of high school students who defected from North Korea. Second, a comparative study with adolescents born in third countries such as China is needed. Third, qualitative research is needed to understand what social, cultural, and psychological factors and realistic career barriers affect the development of career identity of high school students who defected from North Korea. In addition, practical suggestions derived based on the conclusion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educational intervention and material and emotional support should be strengthened to explore and overcome various career barrier elements recognized by high school students who defected from North Korea. Second, practical and realistic support such as career and vocational education specialized to high school students who defected from North Korea should be provided. Third, it is necessary to cultivate a place of adulthood through education on gender roles in North Korea and other South Korean society. Fourth, it is necessary to provide a program that can improve one's understanding of oneself and the world of work. Fifth, it is necessary to monitor the current status of social adaptation of high school students who defected from North Korea without family members and to strengthen emotional support.

Ket Word: Career Identity, Acculturative Stress, Career Barrier, Social Support, North Korean Defectors' High School Students

Student Number: 2018-23514

감사의 글

28살, 막연한 꿈과 기대를 안고 석사과정에 입학한지 어느덧 4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짧지 않은 시간 동안 많은 시행착오와 과정들이 있었음에도 이렇게 무사히 학위과정을 마칠 수 있도록 이끌어주신 하느님께, 그리고 부족한 저의 곁을 지켜주시며 늘 아낌없이 물심양면으로 도움을 주신 모든 분들께 이 지면을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올립니다.

먼저 저의 지도교수님이시자, 인생의 스승님이신 정철영 교수님. 오랫동안 바라왔지만 도전하지 못한 채 속앓이만하고 있던 저에게 용기를 북돋아주시고 지지해주신 유일한 분이셨습니다. 교수님 덕분에 삶의 의미에 대해 깊이 성찰할 수 있는 2년의 시간을 가질 수 있었고 뜻 깊은 4년의 석사과정을 무사히 마칠 수 있었습니다. 어려운 고비 때마다 교수님께서 주셨던 조언과 따뜻한 말씀이 항상 저에겐 버팀목이 되었고 이정표가 되었습니다. 제가 살아가는 이 삶이라는 것이 속도가 아니라 방향에 있다는 가르침, 늘 마음속에 간직하고 제가 받은 선물을 이웃에게 나누며 살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18년 1학기, 갓 입학하여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북한이탈주민이라는 대상만을 바라보던 철부지 석사과정 학생을 격려해주시고, 학문적 열정과 참된 연구자의 자세를 몸소 보여주시며 가르쳐주신 나승일 교수님께도 감사드립니다. 교수님 덕분에 제가 대학원 진학을 결심했던 동기를 잊지 않고 이 과정을 걸을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에게 주신 가르침을 품고 박사과정에 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농산업교육과의 어머니’로 이견 없이 통용되실 만큼 인자하시고 온화하신 김진모 교수님께도 감사의 말씀 올립니다. 학위논문 과정을 처음부터 끝까지 세심하게 지켜봐주시고 조언을 해주신 덕분에 더 많이 학습하고 진지하게 고민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며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언제나 따뜻한 미소로 친근하게 인사를 받아주시고, 2018년 2학기 석사과정 세미나 발표부터 학위논문까지 북한이탈주민 분들을 향한 저의 마음을 이해해주시며 응원해주셨던 이찬 교수님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교수님께서 보내주신 관심과 학문적 조언 덕분에 저의 연구 주제에 대해 자신감을 갖고 진지하게 숙고하며 정진할 수 있었습니다. 논문계획서 발표부터 종심까지 모든 과정을 함께 해주시고, 어려움에 봉착했을 때 이를 타개할 수 있도록 다양한 조언을 주셨던 정진철 교수님, 감사드립니다. 교수님 덕분에 제 논문의 방향을 잡아갈 수 있었고, 학위논문을 무사히 마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저의 부족한 논문이 갖을 수 있는 의의를 찾아주시고 더 나은 연구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따뜻한 격려를

주신 최수정 교수님께도 감사드립니다. 종심 때 주셨던 격려의 말씀들이 아직도 생생하게 마음 깊이 와 닿습니다. 박사과정에서는 더욱 성장한 모습으로 보여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른 누구보다도, 심지어 가족보다도 더 많은 시간을 함께 했던 농산업교육과 대학원 선후배님들, 동기 분들께도 고개 숙여 감사드립니다. 논문 준비하시느라 바쁘신 와중에도 함께 동거동락 해주시며 많은 추억을 쌓을 수 있도록 배려해주신 김태환 박사님, 조규형 박사님, 임정훈 박사님, 이유우 박사님, 임소현 박사님, 임한려 박사님 감사합니다. 철없이 까불거리기만 하고 꼼꼼하지 못해 빈틈 많던 동생을 늘 웃음으로 돌봐주신 덕분에 제가 졸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018년부터 바로 옆에서 도와주고 참아주며 많은 시간을 함께 해주셨던 영광이형, 승엽이 두 선배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두 사람이 없었다면 제가 이 글을 쓸 수 없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 짧은 글로나마 그동안 말로써 다 표현하지 못했던 감사함과 미안함, 진심을 담아 전해드립니다. 미국에서 공부하고 있는 성격 좋은 신희 누나, 함께 낙성대 성당에서 추억을 쌓았던 로미 누나, 똑 부러지고 술 잘 마셔서 너무나 좋았던 선영이, 항상 곁에서 4가지 차원의 사회적 지지를 제공해주었던 학식 메이트 은혜, 면도의 중요성을 알려준 기민이, 주말 고정 멤버로서 힘이 되어주신 밤에 피는 장미꽃 진규 누나, 히게단을 통해 문화적 소양의 지평을 넓혀준 도현이에게도 고마움을 전합니다.

논문 작성에 있어 기초적인 설계부터 연구방법론까지 아는 것이 없어서 허덕일 때 옆에서 물심양면으로 도움을 주셨던 양인준 형님, 구장회 형님, 정성지 박사님, 정지용 감사드립니다. 네 분 있었기에 정말 많이 학습하고 발전해갈 수 있었습니다. 다른 연구실 소속임에도 항상 바쁜 시간을 내어주시고 알려주신 덕분에 제가 잘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선배님들께 받았던 도움을 잊지 않고, 더 열심히 공부하여 저도 언젠가 다른 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연구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정진하겠습니다. 특히 학업 이외에도 여러모로 함께 해준 지용이 정말 고마웠어ㅎㅎ 또한 항상 곁에서 밝은 웃음으로 즐거움을 주시고 위로해주셨던 장회 형님과 박보람 박사님! 두 분처럼 어떠한 상황에서도 웃으면서 긍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했고, 앞으로도 잘 부탁드립니다.

미국 일리노이에서 열심히 공부하고 있을 동기 혜림에게도 다시 한번 축하와 감사를 드립니다. 짧은 1년의 시간이었지만 누구보다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었고 격려가 되어주었다고 생각합니다. 비록 함께 공부하지는 못하지만, 각자가 있는 곳에서 최선을 다하며 앞으로 더 멋진 연구자가 되어 다시 만날 수 있기를 두 손 모아 기도합니다. 그리고

박사 논문을 준비하고 있을 동기 지식이. 지식이도 박사학위 논문 준비부터 졸업까지 잘 마무리할 수 있기를 응원합니다.

대학원 생활과 개인적인 진로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항상 곁에 있어주셨던 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권덕중, 김종운, 김수현, 박세욱, 민준홍, 장문수, 최찬수, 장나연, 임지현, 김용덕, 김동휘, 김학민, 최장원, 안정빈, 홍정택, 김혜원, 조혜미, 이채연, 구민하, 이한밀, 정소영, 리빈, 공재우, 엄지용, 송선빈, 정민아, 김정수, 이인석, 이진우, 황지남, 김영국, 장현웅, 이준, 유포토 선후배분들, 예수회 신부님 수사님, 예수성심시녀회 포항 성모병원의 수녀님들, 이 밖에도 다 열거할 수 없는 많은 분들께 고마움을 전합니다.

또한 이 논문을 작성하는데 있어 많은 영감을 주셨고, 실질적인 도움과 많은 배려를 해주셨던 북한인권정보센터의 윤여상 소장님, 임순희 본부장님, 김성남 박사님, 김소원 연구원님, 이승엽 연구원님, 전국 대안학교와 고등학교의 탈북 고등학생 담당 교직원분들, 그리고 마순희 선생님, 정창민 형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당신들께서 주신 관심과 조력 덕분에 부족한 제가 불가능하리라 여겨지던 석사 논문을 잘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용기를 잃지 않고 자신의 꿈을 찾아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고 있을 이 땅의 북한 출생 고등학생 친구들에게 감사함과 더불어 죄송한 마음을 전해드립니다. 여러분들께서 많은 고민 끝에 주셨을 설문에 대한 응답들을 제가 온전히 담아낼 수 있었는가 반성하게 됩니다. 비록 당신들이 나눠주셨던 아픔의 기억을 제가 오롯이 합당하게 다루지 못했지만, 조금이나마 이 부족한 졸저를 통해 북한이탈주민 분들의 사회정착과 남·북한 통일에 보탬이 되었기를 소망하며 용서를 구합니다. 다시 한 번 이 과정을 도와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연구자는 타인의 목소리를 전하기 위해 끊임없이 문을 두드리는 사람이라고 했던 한 선배의 조언이 생각납니다. 아직 나아가야할 길이 구만리이지만, 새롭게 시작하는 박사 과정을 통해 소외되고 어려운 이웃의 목소리를 전할 수 있도록, 세상을 향해 문을 두드리는 연구자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 2월,
200동 2107호에서
김동주 요한 올림